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9 호 9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9호 (142)

1957년9월25일

내 용

당과 정부와 인민의 위대한 통일

전체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공화국 창건 9주년을 맞이하면서 비상한 정치적 및 로력적 앙양 속에서 두번째로 되는 자기들의 최고 주권 기관 선거를 승리적으로 진행하여 99.99%의 참가률과 99.92%의 찬성 투표률을 보여 주었다.

이 승리는 거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전체 인민의 통일의 위력한 시위로 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우리 인민의 대내 대외적 위신은 더 한층 제고되였으며 그의 위력은 더욱더 증대되였다. 선거의 결과는 우리 당과 인민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거대한 승리로 되며 우리 인민의 통일 단결과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해 온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이미 우리 당에 의하여 폭로 분쇄된 최 창익, 박 창옥, 서 휘, 윤 공흠 등 반당 종파 분자들에 대한 전 인민적 심판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흉악한 원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히 전후 시기에 있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반대하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인민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며 이리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 막기 위하여 갖은 반혁명적 책동을 다하여 왔으며 또 계속하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3년간의 가혹한 전쟁을 강요한 적들은 전쟁의 수치스러운 결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전 협정의 파괴와 전쟁 재도발을 획책하고 있는바, 사회주의 건설이 승리적으로 진척되고 당과 정부의 주위에의 인민 대중의 결속이 점점 더 강화됨에 따라 더욱 초조해 진 적들은 배가된 적의를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시키며 인민의 통일 단결을 약화시키려고 집요하고 악랄한 간첩 파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어 웽그리야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폭동을 조작하려고까지 시도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앞두고 이를 파탄시켜 보려고 원쑤들은 갖은 수단을 다 썼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혁명을 반대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여 책동하면서 마치도 북반부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에게 강요된 것이며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다는 듯이 기만 선전하는 방법으로써 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로부터 떼여 내며 일부 견실치 못한 분자들을 유인하려고 시도한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우리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책동하며 지어는 북반부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기도한 바로 그때에 최 창익, 박 창옥, 서 휘, 윤 공흠 등 종파 분자들은 당과 정부에서의 자기들의 《헤게모니》라는 추악한 반당, 반국가적, 반혁명적 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대중에게 아부할 목적으로 인민 생활의 곤난을 운운하면서 당의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하였으며 당의 경제 정책의 관철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책임하에 있던 부문들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당 정책을 외곡 집행하며 또는 집행을 태공하는 범죄적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해방 후 새 조국 건설에서의 당과 공화국 정부의 업적에 대하여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지어는 우리 당을 형제 당들 특히 쏘련 공산당으로부터 리간시킬 목적으로 쏘련 공산당에 대한 우리 당의 태도와 주체성의 확립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민족주의적 편향으로 묘사하려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지도부를 반대하여 나섰으며 이리함으로써 대중을 분렬시키고 그들을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로부터 자기들 편으로 떼여 내려고 획책하였다. 종파 분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적들과 같이 행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결과는 원쑤들과 반당 종파 분자들의 이 모든 책동과 망상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준엄한 대답으로 되며 철추로 되였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북반부에 설정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의 재천명을 의미하며 제1차 최고 인민 회의 선거,

공화국 창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로선과 사업에 대한 전 인민의 일치한 지지 승인을 의미하며 력사적인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앞으로의 웅대한 사회주의 건설 강령에 대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찬동을 의미하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의 그들의 철옹성같은 통일을 시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통하여 시위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인민 대중의 위대한 통일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견고성에 대한 확증으로 되며, 이 제도가 마치 우리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에게 강요된 것이며 그 밑에서는 인민에게 아무런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고 떠드는 원쑤들의 허구 날조에 대한 폭로로 되였다.

우리의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근로 대중의 애국적 헌신성 및 무궁무진한 창조적 적극성과 재능의 발현은 우리의 사회 제도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그것을 위하여 가장 광활한 길을 열어 주고 있다는데 대한 명백한 표증으로 된다. 사람들을 실업과 빈궁의 공포로부터 해방하여 보다 유족한 래일을 위하여 로동하며 휴식하며 교육 받으며 문화적으로 생활하며 개성을 발전시킬 모든 권리와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며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우리의 경제 제도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그것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의 복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데서 우월하며 따라서 인민 대중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데서 반석같이 공고하다.

자본가, 지주 제도가 본질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의 략탈적 테로 통치 12년에 민족 산업도, 농업도 날로 더욱 파멸의 구렁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인민은 실업과 기아와 폭압의 생지옥에서 헤매고 있다.

이번 선거의 빛나는 승리는 남반부에서의 로후하고 파멸해 가는 사회 정치 제도와의 대비를 더욱더 뚜렷하게 하며 남반부 인민들을 더욱 혁명화하고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그들로부터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선거의 승리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승리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의미한다.

선거의 승리를 통하여 시위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인민 대중의 통일은 또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적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애국주의와 혁명에 대한 그들의 적극성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쳐 조국 없는 노예의 처지에서 신음하였으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니만큼 오늘의 새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와 헌신성은 각별하다.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우리 인민이 로동당의 령도와 쏘련의 사심 없는 원조하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창건하였고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조하에 원쑤들의 야수적 침공을 반대하여 피로써 고수한 새 조국——외래 제국주의 강도들의 침해로부터 보위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주와 예속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제로부터도 보위되여 있는 새 조국,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 그 무엇으로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인민 주권이 없이는 자기들의 조국도 행복도 있을 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인식을 바로 선거에서 표시하였다.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만의 불패의 통일은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거대한 승리로 되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구현시키는 우리 당의 령도의 정확성에 대한 확증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과학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은 집체적 지도의 현명성에 의거하면서 우리의 투쟁의 종국적 목적과 매 시기마다의 당면 목적을 명시해 주는 정확한 정치 로선으로써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 주고 있으며 철저한 군중 로선에 립각하여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가르치고 조직 동원하는 교양자적, 조직자적 역할로써 당 정책의 실현에서의 성과를 보장하였으며 또 보장하고 있다. 선거의 결과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과 신뢰를 웅변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당과 대중의 불패의 련계는 당의 군중 로선의 승리를 말해 주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와 전체 인민의 이와 같은 통일, 이와 같은 승리는 물론 일조일석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반혁명간, 인민과 인민의 원쑤들 간의, 당 내에서와 당 외에서의 치렬한 계급 투쟁, 생산과 건설에서의 당과 정부와 인민 대중의 영웅적 로력 투쟁

의 결과로서 전취된 것이며 공고화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의 인민 주권의 수립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 봉건적 착취 관계의 청산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우리 인민의 통일의 첫 기초로 되였다. 원쑤들의 그 모든 파괴 암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치적 및 로력적 투쟁에 의하여 이 기초는 확대 공고화되였으며 이에 따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인민의 통일 단결도 계속 장성 발전하였다.

전쟁 전 시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유화된 산업에서만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인민의 통일의 경제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까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오늘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과 상업은 더욱 급속한 템포로 장성하면서 우리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다.

자본가, 지주 제도의 복구를 열망하는 원쑤들은 바로 발광적인 계급적 적의로써 우리의 복구 건설, 사회주의 건설의 이와 같은 성과와 당과 정부의 주위에의 인민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려고 발악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적 의식과 혁명적 경각성으로 무장된 우리 인민과 인민 정권은 당의 령도하에 전 군중적 운동으로써 반혁명적 간첩 파괴 활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원쑤들에게 발붙일 곳을 주지 않았으며 또 주지 않고 있다.

반당 종파 분자들이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의하여 폭로 규탄되자 전 당은 이 종파 분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결정과 투쟁을 일치하게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당 종파 분자들이 마치도 우리 당이 인민 생활에 《무관심》한드시 떠들면서 당의 경제 정책을 비방 중상하며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를 거부하도록 설교하려 하였을 때 전체 근로자들은 3개년 계획의 초과 완수로써, 당의 총로선의 헌신적 집행으로써 종파 분자들에게 대답하였으며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당의 호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증산 절약을 결의하고 이 결의 조차도 초과 완수하는 정치적, 로력적 열의로써 대답하였다.

이번의 선거는 실로 근로자들의 정치적 앙양으로써 뿐만 아니라 미증유의 로력적 앙양으로써도 특징 지어지고 있다.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에서 우리 로동 계급은 8.15 명절과 선거를 경축하여 금년도 상반년 국가 계획을 112%로, 증산 계획을 102%로 초과 실행하여 금년도 상반년 총생산액을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141%로 장성시켰으며 뜻 깊은 10월 혁명 40주년을 앞두고 계속 증산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비약적 장성은 당의 호소에 충실하게 국가의 수요에 수응하려는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성과 창발성에 기초한 무수한 기술적 혁신들과 새로운 작업 방법들의 도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실로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비하여 근로자들의 몇 배나 더 많은 귀중한 창의 고안들이 제기되였으며 생산 공정에 도입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고 있다.

전기 부문에서의 자동 재투입 장치에 의한 사고 방지법, 석탄 및 광업 부문에서의 고속도 굴진법을 비롯하여 상반년 동안에 전체 공업 부문에서 새로히 도입된 기술적 개선 또는 선진적 작업 방법들은 실로 7천 여 건에 달한다.

수산 부문 일'군들은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당의 호소를 실천하면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알곡 생산 340만 톤의 결의를 실천하려는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개인 농민들은 3개월에 걸친 수십년래의 대 한발에 봉착하자 앉아서 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물과 인수로를 파는 방법으로 가물을 극복하고 례년보다도 파종 면적을 더욱 확장하는 류례 없는 완강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였다. 농민들은 당의 지도를 받들어 랭상모, 륙상모 도입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알곡 증산, 공예 작물 재배 확장, 과수원 10만 정보 등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온갖 열성을 다 발휘하고 있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창조한 새로운 환경——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인민 주권하에서 로력하며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로동 계급의 사상이며 우리 당의 사상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되였으며 점점 더 확고히 무장되고 있다.

로동당의 령도하에 혁명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였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 받는 우리 인민들은 당과 정부가 언제나 자기들을 승리와 행복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또 인도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그 정책을 보다 훌륭히 관철시키는 것이야 말로 자기들의 복리 증진과 조국의 번영과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체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로선과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공업도 농업도 급속히 발전시키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총로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제반 정책, 또는 시책,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정책,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제반 정책 또는 시책들이 객관적 정세와 우리 인민의 리해 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행복의 창조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왔으며 또 가져 오고 있는가를 생활에서 직접으로 체험하고 있다.

매개 로동자, 농민들, 근로 인테리들은 자기들의 로력 투쟁과 인민 주권의 가일층의 공고화 및 당 정책의 관철에서 보다 행복한 래일을 보고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통일된 조국의 부강 발전을 보고 있으며 때문에 그들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자기들의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우리 인민의 당과 정부 주위에의 불패의 통일은 바로 이와 같이 하여 이루어졌으며 공고화되였다.

이 통일은 부단히 발전하는 호상 협조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인민 자체의 주권하에서 날로 확대되는 경제적 및 정치적 리해 관계의 공통성과 이에 기초한 사상 의지의 공통성으로서 뭉쳐진 사람들의 통일이며 자기들의 행복을 위하여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얻어진 것이며 장성된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였으며 또 승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만하지 말며 정지하지 말며 승리를 공고히 하며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은 거대하며 곤난하다. 적들의 반항은 더욱 치렬해 질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완강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요하는 사업이다. 가까운 5개년 동안에 우리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과업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나간 3개년 계획 기간에 형제적 인민들의 물질적 및 기술적인 막대한 원조가 있으므로 하여 아주 유리한 조건하에서 복구 건설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 나라 내부 예비의 동원으로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국으로부터 공업—농업국으로의 력사적 전변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고도로 강화된 민주 기지에 의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중대한 력사적인 과업은 무수한 곤난과 애로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곤난과 애로를 극복함이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과거 10 여 년의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또 오늘의 승리가 증시하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의 확고한 통일에 불패의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천은 부단히 더욱 함양하여야 한다.

국내 국외의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체 인민의 통일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의 통일은 그의 전제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종파 분자, 이색 분자들을 반대하여, 우리 당 대렬의 조직적, 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의 강화를 위하여, 당의 군중 로선의 관철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 인민 주권의 독재 기능을 가일층 강화하며 경제 문화 건설에 대한 정권 기관들의 지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당원들과 전체 인민의 계급 의식과 혁명적 경각성의 가일층의 제고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의 주위에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통일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적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의 담보로 될 것이며 전 세계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력량의 강화에의 기여로 될 것이다.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쏘련의 대외 정책

남 일

조선 인민은 높은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앙양 속에서 전 세계 근로자들과 더불어 인류 력사에서 새로운 시기 즉 자본주의의 몰락과 새로운 사회주의 승리의 시기를 열어 놓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맞이한다.

위대한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공산당의 령도 밑에 수행된 10월 혁명은 세계의 강대한 한 나라의 로동 계급이 자본주의 노예의 쇠사슬을 영원히 끊어 버리고 로동 계급의 정치적 지배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첫 혁명이였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원칙들을 실현하였으며 전 세계 근로자들 앞에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무자비한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모든 나라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혁명적 작용을 주었으며, 세계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웠으며, 로씨야에 있어서의 경제, 사회의 계급적 구성, 민족 관계, 인민들의 정치 및 문화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일으키게 하였다.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서 수행된 10월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쏘련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 각종 형태의 민족적 압박과 민족적 불평등이 제거되였으며 국가의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이 열려졌다.

쏘련 인민이 자기 수중에 주권을 장악한 이후 40년의 짧은 력사적 기간에 쏘베트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공산당의 지도 밑에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 문화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착취 계급을 청산하고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였다.

위대한 쏘련 인민은 지금 인류 사회의 최고 목표인 장엄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차 당 대회가 제시한 과업 즉 인구 일인당 생산에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 잡으며 앞서는 기본적 경제 과업을 가장 짧은 력사적 기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40 년간 쏘련은 대외 정책 분야에서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원칙을 지침으로 삼으면서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호혜적인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 발전의 정책을 부단히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실시하여 왔다.

평화와 제 인민간의 친선 및 그들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한 쏘련의 대외 정책은 그의 고유한 정치 사회 제도로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한 10월 혁명의 승리와 함께 쏘베트 사회에는 침략 전쟁과 타국 령토의 강점에 리해 관계를 가진 계급이 청산되였다.

로동 계급의 정책과 사상은 제 인민간의 친선과 우의적 협조를 의미하는 것만큼 사회주의는 피압박 민족의 해방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레닌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쏘련 공산당은 자기 활동의 시초부터 민족 자결에 관한, 민족적 적대와 제 인민간의 불신임을 제거할 데 대한, 또 자유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형제적인 가정에 인민들을 단결시킬 데 대한 강령적 요구를 선포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유명한 론문 《대로씨야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에 관하여》에서 《민족적 긍지감에 가득찬 우리 대로씨야 로동자들은 대민족을 훼손하는 농노제적인 특권 원칙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평등의 원칙에서 린방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수립하는, 반드시 자유롭고도 독립적인 그리고 자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공화제의 자랑스러운 대로씨야를 희망한다》 (전집, 제21권, 86 페지)고 교시하였다.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쏘련 인민들의 평등권 정책의 선언과 그의 철저한 실현은 다민족 국가인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의 창설 강화를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졌었다.

10월 혁명 승리 후 쏘베트 국가가 제기한 거대한 공업화의 제 과업과 사회주의 협동화 그리고 문화 혁명의 제 과업은 쏘련의 모든 인민들 간에 형제적 친선과 호상 방조의 제 관계가 설정되여 있었기 때문에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이렇듯 레닌적 민족 정책과 그 원칙의 철저한 실현은 쏘베트 다민족 국가의 힘의 기본적인 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레닌적 민족 정책의 원칙은 기타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쏘련의 대외 정책의 기초에는 평화와 제 인민간의 친선 협조의 지향이 안받침되여 있다.

평화와 제 인민간의 친선을 위한 투쟁은 대외 정책 분야에서의 쏘베트 국가의 총로선으로 되였으며 쏘련은 이러한 원칙 우에서 대 소 국가들 간의 관계를 수립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 왔다. 이와 같은 관계는 평등의 원칙과 내정에 대한 불간섭 그리고 불가침에 기초하고 있으며 타국의 령토 완정에 대한 침해의 거부와 주권과 민족적 독립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

쏘베트 국가는 레닌적 민족 정책의 심오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쏘련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화하였으며 그의 영향력을 더욱더 증대케 하였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한 쏘베트 국가의 적극적인 투쟁은 그가 존재한 전 력사적 행정에서 가리 빛나고 있다. 1917년 12월 3일에 피압박 인민들에 대한 쏘베트 국가의 정책을 천명한 《로씨야 및 동방의 모든 로력자, 회교도들에 고함》이라는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이 호소문에서 쏘련 정부는 쏘베트 정권이 피압박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준다는 것을 동방의 로력자, 회교도들에게 선포하였다. 이 호소문에서는 쏘베트 국가가 호상 존중의 기초에서 그리고 평등과 친선의 기초에서 동방 인민들과의 관계를 수립하려라는 것이 강조되였다.

이 력사적 문헌들에서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제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그들의 민족적 독립을 존중하는 쏘베트 국가의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들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쏘련 정부는 그가 선포한 이와 같은 정당한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1917년 12월 31일 분란에 독립을 허여하였다. 이에 뒤이어 인민 위원 쏘베트는 1918년 1월 16일부 자기의 성명에서 페르샤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1907년도 영국-짜리 로씨야 협정을 영원히 폐기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쏘련 정부의 이 조치는 페르샤 인민의 자유와 민족적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였다. 그러므로 페르샤 정부가 자국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체 협정들을 폐기한 공정한 조치에 대하여 쏘련 정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1918년 8월 29일 쏘련 정부는 인민 위원 쏘베트 정령으로서 이전 짜리 정부가 프로씨야 및 오흥 제국과 더불어 체결하였던 파란 분할에 관한 일체 조약 및 협정들을 폐기하며, 파란 인민에게 민족 자결 및 통일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쏘련 정부는 1919년 5월 27일 아프카니스탄 왕에게 보내는 인민 위원 쏘베트 위원장 웨. 이. 레닌의 서한에서 쏘베트 국가가 아프카니스탄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을 널리 선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쏘베트 정부는 짜리 정부와 림시 정부가 체결한 타국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는 일체 불평등 조약들을 폐기함과 동시에 제 인민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적 비밀 외교 문건들을 공포하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쏘베트 국가는 그가 창건된 첫날부터 제 인민의 자주권과 민족적 독립을 존중하는 기초 우에서 인민들 간의 평등적이며 친선적인 호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노력하여 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피압박 인민들은 일찍부터 쏘련 인민을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의 진정한 원조자로, 훌륭한 벗으로 보았으며 위대한 쏘련 인민과의 친선적 관계를 수립할 것을 절실히 념원하였다.

일찌기 쏘베트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의 피압박 민족의 해방 투쟁은 고립된 상태에서 진행되였으며 정확한 길을 택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10월 혁명이 승리하여 새 시대가 도래한 이후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및 예속국 인민들을 압박 착취하던 시대

는 이미 과거지사로 되였으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피압박 민족 해방 운동은 쏘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였다. 이태리의 파쑈적 침략의 희생으로 된 아비시니야를 옹호하여 나선 강대국이 오직 쏘련뿐이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36년 미국, 영국 및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 파쑈 독일 및 이태리 략탈자들이 서반아를 침공하였을 때에도 쏘련은 이를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서반아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진정한 원조를 주었다.

쏘련 공산당과 전체 쏘련 인민은 자기의 국제주의적 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한 불요불굴의 의지를 파시쓰트 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또다시 보여 주었다. 쏘련 인민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시쓰트와 군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구라파와 아세아 인민들의 해방을 방조하였다.

쏘련의 결정적인 역할에 의한 파쑈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궤멸은 인민들의 독립과 민주주의 운동의 앙양을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구라파와 아세아의 많은 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획득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전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다.

이 거대한 승리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10월 혁명 이래 최대의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피압박 인민들은 자기의 종국적 해방의 가능성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쏘베트 국가의 결정적 지지를 받으면서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은 날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의 20여 개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들에서 13억 이상의 인민들이 수치스러운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벗어 던졌다. 전후 시기에 치욕적인 식민주의 제도의 완전한 철페가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의 하나로서 국제 생활의 일정에 올랐다.

제국주의 렬강 지배층들은 전후 국제 관계 발전의 이 위대한 력사적 전진을 가로 막으려고 광분하면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발광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들은 군비 경쟁의 강화, 침략적 군사 뿔럭들의 조작,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는 《랭전》의 격화, 타국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과 국가적 독립에 대한 파렴치한 유린과 내정 간섭,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야수적 탄압의 길에 들어 섰다.

제국주의 렬강의 이와 같은 정책은 전후 시기의 국제 정세를 새로이 첨예화시켰으며 여러 민족들 및 국가들의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켰다. 조성된 정세는 제 인민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자기의 고귀한 사명으로 하는 쏘련의 대외 정책 앞에 새로운 중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쏘련은 제국주의 렬강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과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제 인민의 자주권과 민족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쏘련은 유엔에서의 빛나는 활동으로서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의 수호를 위한 사업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쏘련의 주장에 의하여 《인민들의 평등과 자결권》의 인정 및 《자주적 평등》의 존중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유엔 헌장에 포함되였으며 민족적 독립을 침해하는 서방측의 책동은 쏘련의 견결한 규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쏘련은 전후 년간 아세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대의 조류로 된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반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으며 독립을 쟁취한지 얼마 안된 나라들, 례컨대 씨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비르마 등 나라들에 대하여 국제적 무대에서의 대외적 성원과 막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독립의 공고화와 경제 및 문화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쏘련은 국제 무대에서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의 보장을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미 제국주의자들은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가장 흉악한 원쑤로 나서고 있다.

전후 년간 미제를 위시한 식민지 소유 렬강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유지하며 또 일부 지역에서 상실한 리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각종 파렴치한 수단과 함께 력사에서 이미 철저히 규탄된 무력의 방법까지도 꺼리낌 없이 적용하면서 식민지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또한 전후 시기에 식민지 노예화 정책의 새로운 형태로 출현한 후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소위 《원조》도 일정한

정치적 조건, 즉 이 나라들의 침략적 군사 뿔럭에의 가담, 공동 군사 조약의 체결, 그리고 세계 제패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견하는 조건하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랍 동방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통일을 파괴하고 이 나라들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바그다트 조약을 조작하였으며, 동남 아세아 국가들을 분렬시키기 위하여 세아토 군사 침략 뿔럭을 조작하였다.

동방 아랍 국가들의 독립과 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며 이 나라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려는 식민지 소유 렬강들의 시도는 애급에 대한 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와 그 후에는 《아이젠하워주의》에 의하여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

《아이젠하워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중근동 지역의 민족주의 국가들을 전복하려는 책동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씨리아와 애급에서 발생한 반 정부적 음모 책동이 바로 이를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며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위대한 쏘련은 식민지 소유 렬강들의 침략 행동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제때에 경고를 행하였으며 중근동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쏘련 정부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영국 수상 이든, 불란서 수상 기 몰레 및 이스라엘 수상 벤 구라온에게 보낸 1956년 11월 5일부 쏘련 내각 수상 불가닌의 서한들과 안전 보장 리사회에 보낸 쏘련 정부의 서한을 비롯한 공식적 문헌들에서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 행동에 대한 쏘련의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였으며 침략자들에 대한 제재를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침략자들을 저지시키고 애급에서의 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쏘련 정부가 기타 유엔 성원 국가들과 더불어 쏘련의 해 공군을 사용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의를 표명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영, 불 및 이스라엘이 애급을 반대하는 군사 행동을 재개하려는 위험을 조성하면서 력량을 축적한다면 쏘련의 해당 기관들은 독립을 위한 애급 인민의 투쟁에 지원병으로 참가할 것을 원하는 쏘련 공민들의 출발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쏘련 지도층의 단호한 언명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애급 인민에 대한 쏘련 인민들의 깊은 동정의 표현인 동시에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한 쏘련의 고유한 대외 정책 원칙의 뚜렷한 표시이였다.

애급 인민을 반대하는 영, 불 및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이 당한 참패는 애급 인민을 비롯한 아랍 제국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과 특히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쏘련 및 기타 평화 애호 국가들의 결정적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중근동 지역에서 평화 유지의 담보를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쏘련은 자기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쏘련 정부는 금년 2월 11일 미국, 영국 및 불란서 정부들에게 《중근동에서의 평화 및 안전과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내정 불간섭 문제에 대한 쏘련, 미국, 영국 및 불란서 정부들의 선언서의 기본 원칙》을 작성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중근동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자주권과 독립의 존중, 군사 뿔럭에로의 인입의 방지, 정치적, 군사적 및 기타 부대 조건이 없는 경제적 협조, 중근동 제국 령토로부터의 외국 군대의 철수와 외국 군사 기지의 철페 등의 제 원칙을 포함한 쏘련의 이 제안은 중근동 지역의 평화 유지와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 지역 인민들은 물론 광범한 세계 사회 여론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과 그의 공고화를 위한 쏘련의 대외 정책은 후진 국가들에 대한 경제, 기술적 원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쏘련은 인도, 씨리아, 인도네시아, 애급 등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후진 국가들에게 평등, 호혜의 기초 우에서 사심 없는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주고 있다. 쏘련의 진정한 원조는 이 지역 인민들의 경제 및 문화적 발전에 거대한 기여로 되고 있다.

모든 국가들 간의 친선 및 협조의 정책을 대외 관계의 확고 부동한 기초로 삼고 있는 쏘련의 레닌적 대외 정책은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심오히 표현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사회주의 제국으로 되는 국제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바 이 진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과 평화와 인민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공통적인 리해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였다. 사회주의

진영 제국간의 관계는 확고 부동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에 기초하여 주권 국가들의 호상 존중과 완전한 평등권의 인정으로써 특징지어 지는 국제적 관계의 새 형이다. 그들 간에는 경제적 및 문화적 건설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 교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국제적 분업의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형제적인 호상 방조와 동지적 협조의 원칙 우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자본주의 제국간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에 립각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간의 호상 관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쏘련 정부가 1956년 10월 30일부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의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성명》에서 재 천명한 바와 같이 쏘련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형제적 인민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 국가적 독립 및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그리고 호상 내정에 대한 불간섭의 심오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자유와 민족적 독립, 그리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쏘련의 대외 정책의 이 기본 립장은 작년 10월 제국주의 국제 반동이 웽그리야에서 조직한 반인민적 폭동 당시에 웽그리야 인민의 사회주의 전취물과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쏘련이 제공한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조에서 다시금 명백히 표현되였다. 쏘련은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이 자기들의 헌신적 투쟁과 로력으로써 쟁취되였으며 공고화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를 국 내외 반동 세력의 파괴 행위로부터 확고 부동하게 고수하는 사업에 결정적 원조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의 경제 및 문화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하여 진실로 사심 없는 원조를 부단히 제공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은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의 형제적 단결과 호상 원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오늘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의 친선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리념의 공통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로서 굳게 단합한 이 진영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파괴 책동으로써도 결코 약화시킬 수 없는 불패의 요새로 되였다.

❋ ❋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한 쏘련의 대외 정책은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훌륭히 실현되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와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의 출현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다.

미국, 영국, 불란서 등 제국주의 렬강 지배층들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조선의 개화》라고 찬양하였을 때 오직 위대한 레닌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 국가 쏘련만이 조선 인민의 진정한 리익을 옹호하여 나섰으며 동방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을 주장하였었다.

레닌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이 조선 인민의 《민족 자결권의 유린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였으며 조선 인민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친정한 벗인 위대한 쏘련에 의하여 드디여 12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다. 영웅적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의 해방은 우리 인민에게 일제의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이때로부터 조 쏘 량국 인민은 더욱 견고한 형제적 친선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뉴대로서 호상 련결되였다. 일본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조선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투에서 흘린 쏘련 병사들의 피로써 굳게 맺어진 조 쏘 량국 인민간의 친선은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준 쏘련 인민의 정신적 및 물질적 원조에서 더욱더 공고화되였다.

우리들이 걸어 온 지난 12 년간의 력사적 행정이 여실히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조선에 대한 쏘련의 정책은 민족 자결권에 관한 심오한 레닌적 대외 정책 로선을 견지하면서 조선인 자신에 의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강력한 물질적 기초를 축성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를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불굴의 적극적 원조를 준 것으로 특징 지어 진다.

쏘련이 조선 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기울인 거대한 노력은 쏘, 미, 영 모쓰크바 3상 회의, 제네바 외상 회의 및 유엔 총회들에서 더욱더 명백히 표시되였다.

쏘련은 모쓰크바 3상 회의에서 해방된 조선 인민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나라의 통일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림시 정부의 창건을 촉진하며 나라의 경제를 재건하고 민족 문화를 개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도를 실천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쏘련의 이 주장은 해방 직후 앙양된 조선 인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운동과 이 기초 우에서 통일 독립을 실현할 것을 념원하는 조선 인민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써 각계 각층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악랄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문제는 해방 후 첫날부터 일방으로는 대 소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쏘련의 레닌적 대외 정책 로선과, 타방으로는 제 민족의 권리와 자유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 로선간의 격렬한 투쟁을 야기시켰다.

미국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통일 독립에로의 지향을 추호도 고려함이 없이 조선이 독립하기 전에 10 년 이상의 외국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립장을 취함으로써 그의 침략자적 본성을 폭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배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 전쟁은 이를 더욱 확증하여 주었다.

침략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와 제 인민간의 친선 및 민족적 독립의 부단한 옹호를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쏘련은 미제 무력 간섭자들을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조선에서 류혈을 종식시키고 조속히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실현하도록 견결히 주장하여 나섰다.

쏘련의 평화적 이니샤티브에 의하여 1951년 7월 조선에서 정전 담판이 시작되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위대한 쏘련은 조선 정전 담판 과정에서 조선에서의 급속한 정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중측의 정당한 방안들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조속한 정전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 무대에서 정열적으로 투쟁하였다.

조선에서 정전이 달성된 이후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시도로서 소집되였던 정치 회의 문제에 관한 쌍방 예비 회담이 미국측에 의하여 파탄의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에 쏘련은 1954년 2월 백림 4렬강 외상 회의에서 조선 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여 나섰다.

쏘련의 적극적 이니샤티브의 결과로 이루어 진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 외상 회의에서도 쏘련은 레닌적 대외 정책의 확고한 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의 독립과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조치로서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조속한 철거와 조선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담보를 보장하며 조선 인민의 내정에 대한 여하한 간섭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주장하여 나섰다.

제네바 회의에서 조선 문제에 관한 토의가 미국을 비롯한 일련의 국가들의 일방적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이후에 있어서도 쏘련 정부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유엔 총회들에서와 기타 국제 무대에서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쏘련이 국제 무대에서 기울인 거대한 노력은 모두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존중하며 제 인민간의 친선과 평화를 지향한 레닌적 대외 정책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전체 조선 인민의 지향과 완전히 일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쏘련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민족 문화를 개화시키기 위하여 제공한 원조는 조선 인민에게 쏘련의 레닌적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확신케 하여 준다.

위대한 쏘련은 해방된 조선 인민이 자체의 공업을 건설하며 자기의 기술 인테리를 양성하며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자기의 민족 문화를 부흥 발전시킴에 있어서 막대한 원조를 주었다.

이에 있어서 1947년 3월 17일에 조 쏘 량국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이 협정은 조선 인민이 해방 직전 일제가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신설 운영하는데 있어서와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길을 개척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 쏘 량국 인민간의 친선의 뉴대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조선 인민의 진정한 원조자이며 민족적 독립의 지지자인 위대한 쏘련은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기인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위하여 10억 루블리에 달하는 거액의 무상 원조를 주었으며 인민 경제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는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와 협조를 주었으며 또 주고 있다. 쏘련의 이 막대한 원조는 조선 인민이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복구 계획 기간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령도 밑에 나라의 중공업을 건설하고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와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실제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쏘련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의 보장을 위한 진정한 벗이며 그의 불가결의 담보이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자기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의 견결한 옹호자이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의 진정한 지지자인 형제적 쏘련 인민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으며 위대한 쏘련 인민과의 영구 불멸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친선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자기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인 1957년도 계획 과제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더욱더 높은 로력 투쟁을 전개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실로 쏘련이 실시하는 평화와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대외 정책은 국제 무대에서 쏘련의 국제적 지위의 공고화와 그의 영향력의 장성을 초래하였다.

쏘련 정부는 평화를 지향한다는 자기의 일관한 선언을 국제적 협조의 공고화와 국제 긴장 상태의 가일층의 완화를 위하여 취하고 있는 더욱 대담하고 새로운 조치들로써 보충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절박한 리해의 가장 철저한 옹호자로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쏘련이 평화와 제 인민간의 친선을 위한 투쟁에서와 장엄한 공산주의 건설 도상에서 더욱더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쏘련의 위력 장성은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승리의 담보

박 우 영

위대한 쏘련은 우리 인민의 운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적 인류의 운명을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수행하고 있다. 그는 40 년간 사회주의 강국으로서, 세계 혁명의 중심지로서 전체 진보적 인류의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담보로 되고 있다.

위대한 쏘련은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고 온갖 시련과 곤난을 극복하면서 풍부한 혁명적 및 건설적 경험을 축적 소유하게 되였으며 현대적 선진 기술로 장비된 공업—꼴호즈의 세계적 강국으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아울러 평화 애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오늘날 평화 진영의 최선두에 서고 있다.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의 령도하에 영웅적인 로씨야 로동 계급에 의하여 승리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로씨야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협의의 사건인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운명에 결정적인 전변을 가져 온 세계사'적 혁명이였다. 10월 혁명은 낡은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사회주의 세계로 비약하는 인류 력사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되였으며 그의 새 기원—공산주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10월 혁명의 승리로 말미암아 쏘련에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념원하던 진보적 인사들의 희망이 비로소 현실화되였으며 공산주의 사상은 위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현실화되였다. 쏘련에서는 로농 동맹의 기초 우에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였고 생산 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만들었으며 착취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게 되였다.

레닌에 의하여 창건된 쏘련 공산당의 령도하에 쏘련 인민들은 혁명 승리 후 나라의 공업화와 농촌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완성하였으며 그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싸워 왔다. 그의 결과 오늘날 쏘련은 세계에서 류례 없는 강력한 공업——꼴호즈 국가로서 장성 강화되였다. 여기서 거둔 풍부한 경험은 모든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훌륭한 모범으로 빛나고 있다.

10월 혁명 시기로부터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 위기가 도래하였는바 그의 직접적 영향과 쏘련에서 달성한 제 성과는 각국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혁명 투쟁을 고무 추동하였으며 오직 로씨야 로동 계급들이 택한 길만이 인류를 해방에로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로동 운동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고도로 앙양케 하였다.

위대한 쏘련은 혁명과 건설적 성과로서 세계 근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직접 자기의 정예 무력으로써 파쑈의 침범을 저지 분쇄함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을 고수하고 구라파 및 전 세계 인민들을 파쑈 기반으로부터 구원하였다. 쏘련의 해방적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를 위시한 여러 아세아 및 구라파 인민들이 자본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고 오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행복스러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제국은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였고 국제 정세와 세계 혁명 운동의 발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구라파 및 아세아 제국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과 발전 강화는 곧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더 심각화시키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련의 결정적 역할과 전후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각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제 성과에 고무되면서 아세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반식민주의 운동이 미증유로 장성 강화되였고 바야흐로 제국주의 식민지 체

계가 붕괴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애급 등을 비롯한 식민지 국가들이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자주의 도상에 서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쏘련이 40 년간 견지하여 왔으며 실현하고 있는 10월의 정신은 오늘날 모든 진보적 인류의 전진 운동 속에 생동하고 있다. 10월의 산아인 쏘련은 우리 나라의 해방자이며 친근한 벗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혁명 운동의 강유력한 중심지로 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를 밝혀 주는 등대로, 세계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 ❊

위대한 쏘련이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은 비단 그가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다른 나라의 혁명적 등대로 되였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40년간, 특히 최근 년간에 달성한 경제적 성과와 그의 위력에 우선 기인된다. 쏘련이 오늘날까지 성취한 모든 경제적 성과들은 현 시기 국제 정세 발전에 위력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물질적 토대로 되고 있다.

쏘련의 경제적 위력 장성의 국제적 의의에 관하여서는 이미 레닌이 1921년에 말한바 있다. 《지금 우리들은 국제적 혁명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자기의 경제적 정책으로써 주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건설에 관한 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연 특수한 의의를 갖게 된다》(전집 32권, 413 페지).

쏘련에서의 경제 건설이 짜리 시대의 락후성에다가 제1차 대전으로 인하여 극도로 파괴된 경제의 토대와 외부로부터의 원조 없이 외래 침략 및 공민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시작된 데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쏘련 인민들은 모든 곤난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우월성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립각하여 단기간 내로 사회주의 조국인 쏘련을 선진적인 공업——꼴호즈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수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는 락후한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케 하였으며 국방력을 미증유로 강화케 하였다. 쏘련의 경제적 위력은 현대적 기술로써 무장된 파쑈 군대를 타승함으로써 여실히 증명되였다. 제2차 대전으로써 쏘련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려던 국제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음흉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쏘련은 대전을 통하여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대하여졌으며 그의 위력은 비할바 없이 장성 강화되였다.

특히 쏘련은 전후 시기에 온갖 곤난, 애로들과 투쟁하면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도로 부흥 발전시킨 결과 단기간 내에 전전 수준을 릉가했다. 제5차 5개년 계획(1951—55년)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결과에 1955년도 공업 총생산액은 1940년도에 비하여 2.3 배로 장성되였다.

공산주의로 과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제6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6년도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1%, 혁명 전 수준에 비하여 30 배 이상으로 장성되였다. 그중에서도 야금, 석탄, 전력 등 중공업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현저한 장성을 가져왔는바 선철 생산은 3천 5백 80만 톤, 강철은 4천 8백 60만 톤, 석탄은 4억 2천 9백만 톤, 석유는 8천 3백 80만 톤, 전력은 1,920억 키로와트시로 장성되였다.

품종	단위	1913년	1955년	1956년	1913년에 대한 1956년도의 비률	제6차 5개년 계획	
						1960년	1955년에 대한 비률
선철	백만 톤	4.2	33.3	35.8	8.5배	53.0	159%
강철	〃	4.2	45.3	48.6	11.6〃	68.3	151%
압연	〃	3.2	35.3	37.8	10.8〃	52.7	152%
석탄	〃	29.1	391.0	429.0	14.7〃	593.0	152%
석유	〃	9.2	70.1	83.8	9.1〃	135.0	191%
전력	10억 키로와트시	1.9	170.1	192.0	101.0〃	320.0	188%
선반기	천 대	1.5	117.8	121.3	80.8〃	200.0	190%
자동차	〃	—	445.3	465.0	—	650.0	146%
뜨락또르	〃	—	163.4	184.0	—	322.0	197%

이리하여 현재 쏘련은 선철, 강철, 석탄, 전력 생산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쏘련은 공업 생산의 발전 템포에 있어서 전체 자본주의 국가들을 훨씬 릉가하고 있는바 쏘련에 있어서는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기간에 공업 생산품이 3. 48 배나 장성하였다면 미국에서는 이 기간에 겨우 20% 밖에 장성하지 못한 형편이다.

공업 생산에 있어서 쏘련 공산당의 령도하에 쏘련 인민들의 영웅적인 로력적 투쟁으로써 달성한 이러한 제 성과는 쏘련의 위력을 더욱 제고시켰다. 공업 특히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주의 조국인 쏘련의 국방력을 강화케 하였다. 동시에 쏘련의 경제적 위력과 국방력의 장성 강화는 쏘련의 국제적 위신을 제고시켰으며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승리의 담보로서의 국제적 진지를 더욱 견고케 하였다.

쏘련에서는 최근 년간에 공업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업에 립각한 농업 생산도 현저한 장성을 보았다. 쏘련 공산당과 정부는 전체 인민들의 지지 밑에 농산물 생산 제고를 위한 대규모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954년과 1955년에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344억 루블리, 즉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농업에 대한 투자의 138%를 하였다.

농업의 기술적 토대도 현저히 강화되였다. 만약에 1940년 꼴호즈, 엠떼에쓰, 쏩호즈에 68만 4천 대의 뜨락또르(15 마력으로 환산하여)들이 있었다면 1955년에는 143만 9천 대로 되였다. 1956년도에는 농촌에서 24만 8천 대의 뜨락또르, 11만 4천 대의 화물 자동차, 5만 6천 대의 꼼바인들을 받았다.

농업의 현대적 기계화 뿐만 아니라 경작 면적 확장을 위한 투쟁도 맹렬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3 년간에 처녀지 및 황무지의 개간으로 얻은 새 토지는 3천 550만 헥타나 된다. 만약에 1913년 쏘련에서의 경작 면적이 1억 1천 821만 5천 헥타였다면 1956년에 와서는 약 1억 9천 5백만 헥타로 확장되였다. 이러한 결과 최근 년간에 농업 생산품의 현저한 제고를 보았다. 만약에 1950년도를 100으로 한다면 1955년도 총수확은 밀 151%, 옥수수 201%, 해바라기 207% 등등으로 각각 장성하였다. 1956년에는 더 현저한 장성을 보았는 바 곡물 총수확고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20%나 증가되여 쏘련 력사상 최고 수준의 수확고를 이루고 있다.

쏘련은 원자 과학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보다 앞서 이미 수소탄 연구에 성공하였고 최근에는 따쓰 통신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쏘련은 대륙간 탄도탄 연구와 그의 시험에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쏘련은 대륙간의 탄도탄의 유일한 소유자로 되였으며 쏘련의 국방력은 현저하게 강화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전쟁 모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으로 된다.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속에서 위대한 쏘련 인민들이 쟁취한 제 성과는 그들의 경제 건설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쏘련은 형제적인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446 개의 기업소와 90 개 이상의 개별적 쩨호 건설을 위한 사업을 직접 방조하였다. 쏘련의 경제적 성과들은 원조 및 기타 협조의 형식을 통하여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공고케 한다.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제국의 호상 협조의 강화 특히는 쏘련의 원조와 경험에 의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위력은 급진적으로 장성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55년도 사회주의 진영 공업 생산액은 1937년도 수준에 비하여 약 4 배나 장성하였으며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약 2 배밖에 장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체계가 자본주의 체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며 동시에 그의 강대한 위력을 명시하여 준다.

공업 생산 대비표

년대	1937	1950	1952	1955
사회주의 진영	100	192	264	378
자본주의 국가	100	142	158	186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위력 장성은 이에 망라된 쏘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동적으로 해결할려는 경제적 과업과 그의 전망 계획들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쏘련 및 여러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호상간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1960년도에 선철을 6천 860만 톤, 강철을 9천 40만 톤, 압연을 6천 860만 톤으로 각각

생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강화 발전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의 경제적 위력 장성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며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세력의 강유력한 물질적 토대로 되고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달성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들은 전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활적 권리를 위하여 더욱더 분발 분투하게끔 고무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들 특히 락후한 나라의 인민들은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 예속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만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오늘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시범은 전 세계 인민들 앞에 훌륭한 구감으로 생동하고 있으며 그의 선전적이며 혁명적 작용은 거대하다.

또한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달성한 경제적 성과들은 락후한 나라 특히 방금 제국주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정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신흥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방조를 줄 수 있는 토대로 된다. 현 시기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 비르마, 인도네시아, 애급 및 기타 국가들은 자기의 경제적 자주를 확립하고 민족 경제의 륭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경제적으로 위력한 쏘련과 경제적 련계를 밀접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제5차 5개년 계획에서 달성된 경제적 성과와 제20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제6차 5개년 계획에서 예견되고 있는 쏘련의 경제 및 문화 생활의 장성 발전은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신흥 국가들에게 제공되는 대규모적이고 다방면적인 원조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조는 동방 인민들을 예속 노예화하려는 미국식 원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그는 아무러한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조건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립과 자주 발전을 도와 주는데 그 진의가 있다.

동방과 아프리카 인민들은 쏘련과 같은 유력한 선진적인 공업 국가가 존재하며 세계적 사회주의 체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력사적 환경에서 현대적인 공업 기구, 기계와 기타 필요한 상품들을 얻기 위하여 구태여 제국주의자들의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레닌은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우리들은 몽고인, 페루샤인, 인도인들과 접근하며 교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 우리들은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와 자기의 리익으로서 간주한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서구에서의 사회주의는 공고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우리보다 락후하고 압박 받는 인민들에게 파란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표현을 빌어 〈사리 사욕 없는 문화적 원조〉 즉 기계 사용, 로동 간편화, 민주주의,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전집 23권 55페지)라고 말하였다.

쏘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세아와 아프리카 신흥 국가들과의 체결한 경제 협조에 관한 제 조약은 레닌의 교시가 실현되고 있음을 실증하여 준다. 현재 사회주의 국가와 신흥 국가들 사이에는 두터운 경제 문화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쏘련은 항상 평화를 념원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자기가 달성한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을, 타국을 위협하는데 리용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평화 사업에 이바지하려 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에 리용하고 있다. 쏘련은 대외 정책에서 항상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규탄 반대하며 전쟁 준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을 념원하여 각국들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밀접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

위대한 쏘련이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진영의 승리의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은 그의 경제적 위력에서 뿐만 아니라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그의 적극적인 투쟁으로서도 설명된다. 이러한 신성한 투쟁은 집중적으로 쏘련의 대외 정책에서 표현되고 있다.

쏘련의 대외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의 원리, 우선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사회주의 혁명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회 발전 법칙에 부합되며 진보적 인류의 리해 관계와 완전히 합치된다.

쏘련의 대외 정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리익에 복무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에 복종되고 있다. 쏘련의 공산주의 건설은 세계 근로자들의 리해 관계에 부합되므로 쏘련의 대외 정책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리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특히 대외 정책과 그의 수단들이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였을 때 그것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전환된다. 오늘날 쏘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대외 정책은 인민들의 수중에 놓여 있으므로 적극적인 평화와 진보를 위한 강유력한 무기로서 국제 무대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쏘련의 대외 정책은 전체 진보적 인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의 쏘련의 위신은 날로 제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위력도 더 강화되여 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날로 장성하여 가는 쏘련의 위신과 위력의 원천은 그가 자기의 대외 정책의 기본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두고 있는데 있다. 이것은 쏘련의 대외 정책이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그는 우선 국제주의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쏘련은 어느 때나 국제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 자기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전 세계 근로자들의 리익을 적절히 일치시키면서 종국적 목적인 공산주의를 향하여 전진하여 왔으며 전진하고 있다.

쏘련은 40년간 사회주의 조국을 륭성 발전시키면서 전 세계 혁명 운동을 지지하여 나섰으며 그의 성과적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다. 쏘련은 어떠한 국제적 사건이 발생하던간에 그는 우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립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제 문제에 대한 쏘련의 이러한 태도는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전쟁에서도, 작년 말에 제국주의 반동들에 의하여 야기된 웽그리야 반혁명에서도 여실히 표현되였다. 위대한 쏘련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튼튼히 립각하여 웽그리야 인민에게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웽그리야에서의 로동 계급이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었다. 쏘련은 국제 제국주의 반동들이 웽그리야 반혁명 분자들과 야합하여 웽그리야에 파쑈 제도의 수립과 구라파에서의 전쟁 온상을 조작하려던 음흉한 기도를 분쇄하고 구라파의 평화를 고수하였다.

쏘련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새로 발생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새로운 형의 국제 관계를 설정하였다. 오늘날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우리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행복한 생활을 약속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주의 강국인 쏘련의 희생적 투쟁과 그의 사심 없는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쏘련은 항상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제 관계 발전에 있어서 향도적 력량으로 사회주의의 공동적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호상 친선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 사회주의 위업에 충실하며 인민들 간의 친선 협조를 강화하려는 쏘련의 진지한 지향은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결정들과 그의 발전으로 되는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를 가일층 강화 발전할 데 대한 1956년 10월 30일부 쏘련 정부의 성명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였다. 여기서 쏘련은 타국의 령토 완정, 민족적 평등권, 호상 원조의 원칙들을 다시 한 번 천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쏘련 정부의 성명이 나온 후 각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기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면서 쏘련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단결할 것과 온갖 사회주의의 적들의 음모를 반대하여 공동적으로 진출할 것을 표명하였다. 오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 부동하며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위업의 달성을 위한 강유력한 성새로 되고 있다.

쏘련은 국제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 운동, 특히 현 시기 앙양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이는 레닌적 민족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쏘련의 대외 정책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독립과 자유를 위한 약소 민족들의 투쟁에 대한 쏘베트 강국으로부터의 지지, 그들의 주권과 민족적 특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은 쏘련 대외 정책의 기본 측면으로 되고 있다.

쏘련은 그가 존재하는 첫날부터 략탈과 강압의 제국주의적 정책에다 《피압박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전연 다른 국제 관계》(레닌 전집 31권 446페지)를 대립시켰다. 특히 오늘날 위대한 쏘련은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식민주의적 기도를 폭로 분쇄하면서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된 많은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을 옹호하여 투쟁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승냥이 법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과는 달리 온갖 민족적 차별과 민족적 압박을 반대하는 쏘련은 인민들

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옹호하는 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비근한 례로써 애급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과 자주를 위하여 투쟁하였을 때 쏘련은 전체 진보적 인류의 맨 선두에 서서 애급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였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적극적인 원조에 의하여 애급 인민들은 독립과 자주를 수호할 수 있었다.

쏘련은 비단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 성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서구라파 인민들 특히 미제의· 마수에 들어 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를 위한 정당한 투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야수적인 미제가 서구라파 인민들을 지배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는 이때 제국주의 국가와는 전연 질적으로 다른 쏘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정치, 도덕적 성원으로 된다. 만약에 사회주의 진영 특히 쏘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제의 침략적 기도는 더욱더 로골화되였을 것이며 그들의 추악한 행동은 서구라파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위협하였을 것이다.

쏘련은 전 세계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동시에 쏘련은 적극적인 평화 옹호자로서 진출하고 있다. 쏘련은 탄생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평화 위업을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레닌의 평화적 공존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2차에 걸친 전쟁의 재화를 맛본 세계 인민들의 평화에 대한 념원을 반영하고 있는 쏘련의 대외 정책은 현 시기 전쟁 방지의 객관적 가능성을 백방으로 리용하면서 전쟁 방지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라파 및 아세아에 있어서의 집단 안전 체계 창설 특히 전후 12 년간 군비 축소를 위한 쏘련의 투쟁은 전쟁을 방지하는데 향도적 작용을 하였다.

쏘련이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약하거나 전쟁에서의 패배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직 전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념원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오늘날 쏘련은 강대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선두로 하는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세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력사적 환경에서 평화를 반대하는 어떠한 기도도 여지 없이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두로 하는 위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 자체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목적 실현에 큰 방해로 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전쟁 방화자들의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을 것이며 전쟁의 위협은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최근에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는 평화를 반대하여 군비를 발광적으로 확장하며 군사 쁠럭을 계속 유지 강화하고 있으며 서부 독일을 원자 무기로 무장시키며 《아이젠하워—덜레스주의》를 조작하며 중근동과 전 세계 인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려고 하는 복잡한 국제 정세하에서 쏘련은 계속 군비 축소, 구라파 안전 체계 창설과 국제 긴장 상태의 가일층의 완화를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금번 쏘련의 대륙간 탄도탄 시험 성공은 미국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전쟁 모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만약에 침략자들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쏘련은 가장 무서운 무기인 수소탄을 대륙간 탄도탄에 의하여 세계의 어느 대륙의 멀리 떨어진 곳에라도 즉시 쏘아 보낼 수 있으며 어떠한 침략자들에게도 섬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였다.

쏘련이 이러한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타국을 침범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를 옹호하며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인 것이다. 쏘련 공군 사령관 웨르쉬닌 원수가 성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쏘련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평화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제도를 무력으로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 쏘련의 강력한 여러 군사적 수단들은 오직 평화 사업에 복무하고 있다.

쏘련이 군비 축소 문제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루차 제의하고 있는 것은 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가 약하거나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보다 더 파괴적으로 될 제3차 세계 대전을 없이 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포로부터 구원하며 평화적 공존을 보장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전 세계 인민들은 자기들의 실제 체험을 통하여 참말로 쏘련이야말로 40 년간 꾸준히 싸워 온 평화 투사였으며 옹호자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은 물질적으로나 정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인민들의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강유력한 담보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문화 혁명에 대한 레닌적 원칙과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 혁명에 대하여

김 태 선

사회주의 혁명은 인류 력사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변혁 즉 수천년래의 계급 사회로부터 무계급 사회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인 모든 령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불가결의 요소로 된다. 레닌은 쏘련에서 문화 혁명이 없이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는 주민의 대다수가 문맹 또는 문화적 락후성을 면할 수 없는만큼 문화 혁명은 비단 쏘련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필수적인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우리도 역시 문화 혁명의 과업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우리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또 계속 성과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세기적으로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농업국으로의 전환의 전야에 처해 있으며 더우기 가장 락후했던 우리 농촌은 이미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에로의 비약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전면적인 기술적 개조의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인민 경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은 방대하고 곤난하며, 이를 파괴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려는 원쑤들의 반혁명적 활동은 첨예한 사상전을 동반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과 전체 혁명의 이와 같은 형편은 문화 혁명을 계속 전개하며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요한다. 이러한 토대로 될 수 있는 높은 생산력이 자본주의하에서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낡은 생산 관계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적 생산을 부단하고 급속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적, 기술적 수준을 요하는 곤난한 사업이며 더구나 주민들의 문맹의 조건하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례하면 농촌의 협동화와 기술적 개조는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다.

때문에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글을 알고 문화적인 사람들로——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소유할 수 있는 문명한 사람들로 되는 것이 필요하며 또 현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인재들과 관리 간부들이 대량으로 요구된다.

또 사회주의 혁명은 사람들의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변시킴이 없이는 완수될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 이것은 인류의 력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변혁인 동시에 반드시 의식적으로 수행되여야 할 변혁인만큼 혁명적,사회주의적 의식은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전제로 되며 그의 승리의 담보로 된다.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의 기본 과업의 하나로 되며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교육, 문화 건설의 지도적 사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 국가 건설을 비롯한 전체 생활의 지도적 사상으로 된다.

사회주의 혁명은 또 사람들의 물질적 수요 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요도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조건을 조성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전체 사회 성원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전체 인민의 재산으로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전 인민적인 고도의 문화 발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과 같은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으로서의 문화 혁명은 자기의 과업으로서

우선 전체 주민들의 지능과 일반 교양 문화 수준을 급격히 제고하여 문맹 또는 문화적 락후 상태로부터 교양 있고 문명적인 사람들로 전변시켜야 하며 또 기술, 문화 인테리들, 정치, 행정 간부들——요컨대 민족 간부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해 내여야 하며 또 사람들의 의식에서 낡은 자본주의적,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새로운 사회주의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전변시켜야 하며,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의 건설 및 개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전체 인민의 지능과 문화성의 제고 및 사회주의적 인테리들, 민족 간부들의 양성은 물론 맑스—레닌주의 당과 프로레타리아 독재 주권의 새로운 교육,문화 정책에 의하여, 문화 교양자적 역할에 의하여 광범한 인민 교육, 성인 교육, 기술 및 고등 교육으로써 이루어 지며 사람들의 의식의 개변도 학교 교육 및 사회적 사상 교양, 실물 교육 등으로써 이루어 진다.

사람들의 의식에 있어서의 혁명,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써의 사람들의 무장은 사회주의적 경제, 문화 건설의 필수 조건으로 전제로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 개변의 완수를 기다려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오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물질적,정치적 령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이후에야 사람들의 의식의 개변은 완수되는 것이다.

인민 교육의 발전, 주민들의 문화 수준의 제고는 그들의 의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키며 특히 사회주의적 문화의 개화 발전은 전체 인민의 정신적 재산으로 되는 동시에 그들의 의식을 개변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주민들의 문화 및 사회주의적 의식 수준의 제고, 사회주의적 문화의 개화 등 문화 혁명의 성과는 사회주의적 경제 및 국가 건설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경제 및 국가 건설은 또한 새로운 사람들의 생활 조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 기타 문화 발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혁명의 완성을 촉진하는 반작용을 논다.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문화의 건설은 낡은 부르죠아적, 봉건적 문화에 대한 하나의 혁명을 의미하지만은 이 혁명이 민족적 고전 문화에 대한 비판적 개작, 거기에서의 인민적 요소,가치 있는 요소의 섭취를 전제로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레닌은 특히 사회의 력사적 발전 과정에서 전 세대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의 재부는 다음 세대에 의하여 개작되며 리용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문화 유산을 부정하는 소위 프로레꿀리도브쯔이(프로레타리아 문화주의자)와 라뽀브쯔이(로씨야 프로레타리아 작가 협회원)들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문화는 어떤 빈터에서, 또 과거의 문화와 관계 없이 창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비판적인 섭취와 개작에서, 또 력사에서 인류가 창조한 모든 성과들을 일층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적 문화는 모든 시대와 인민들의 문화적 달성을 정당히 계승 발전시키면서 어떤 자본주의 문화도 비견할 수 없는 높은 단계에 도달한다.

문화 혁명의 특징은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 주권의 창의와 지도하에서 그리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수백만 근로자 대중측으로부터의 적극적 지지 및 참가에 의하여 완수되는 거기에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되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사회주의 혁명의 최초의 승리, 즉 로동 계급 또는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의 주권 전취로써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레닌은 소위 《혁명의 문화적 전제》라는 기회주의적 사상을 결정적으로 비판 폭로하였다. 제2 국제당 《리론가》들은 프로레타리아트가 문화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충분한 자기의 문화 일'군들을 준비할 때까지는 정권을 전취할 수 없으며 또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는 문화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를 통치하며 지배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레닌은 계급 사회에서 피압박 인민들은 자기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한 조건들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소위 《문화의 일정한 수준》(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누구도 규정할 수는 없는)에 도달할 때까지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리론》은 결국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우선 정권을 쟁취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전제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근로 대중의 문화를 급격히 발전시키며, 새로운 자격 있는 인민적 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바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문화 혁명은 이와 같이 진행되였으며 또 되고 있으며 력사의 경험은 문화 혁명에 관한 레닌적 원칙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쏘련 인민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국가를 통치하며 위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새로운 문화를 창전하면서 전체 인민의 재능과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켰다.

쏘베트 정권은 우선 계급 사회의 유산인 문맹자들을 퇴치하는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벌써 쏘베트 정권의 첫 10 년간에 근로 인민의 문화적 락후성은 근본적으로 청산되였고 이 기간에 지주와 자본가들이 문화 령역에서 100 년간에 진행한 사업보다 더 많은 것을 수행하였다.

쏘련 인민은 오늘 전반적 7 년제 의무 교육을 완성하고 전 련맹적으로 10 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투쟁하고 있다.

쏘련에서의 일반 교육의 특징은 생산 교육 및 생산 로동과의 밀접한 결부에 있다. 레닌은 인민 교육을 해당 시기의 기술 및 과학 발전의 요구에 일치하게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들은 인민 교육에 관한 레닌의 사상을 실천하면서 현대 산업의 기본 원리와 로동 기능을 습득시켜 인민 대중의 일반 기술 교육 수준을 꾸준히 제고하여 왔다.

쏘련에서 문화 혁명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또 로동 계급에 복무하는 새로운 인민적 인테리와 민족 간부의 양성이였다.

쏘베트 정권은 사회주의 공업화와 여러 차례의 5개년 계획의 실천 행정에서 사회주의적 인테리의 양성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해결하였다. 쏘련에서 만약 짜리 로씨야 시대에 16 개 도시에 91 개의 대학이 설치되여 있었다면 1939년에는 벌써 140 개소의 문화 중심지에 750 개의 대학들이 설치되였다.

오늘 쏘련의 대학생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하며 구라파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학생 수를 합한 것보다 2 배 이상 많으며 현대 과학과 기술로 무장된 쏘베트 인테리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사회 발전의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문화 혁명의 성과로서 쏘련에서의 지도적, 지배적 사상인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오늘 쏘베트 인민의 생활의 모든 령역에 침투되여 그들의 일상적 로력과 행동과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쏘련에서의 문화 혁명의 중요한 결과는 또 세계에서 제1류의 과학과 문학과 예술의 개화이다. 쏘련 공산당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서 과학과 예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그 발전을 위한 온갖 시책을 강구하여 왔다.

쏘베트 과학과 문학, 예술은 오늘 위대하고 론의할 여지 없는 위업을 달성하고 있다.

쏘련에서는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대중을 위한 문화 교양 기관들이 광범히 설치되였다. 도서관, 박물관, 신문, 라지오, 구락부 등 문화 시설은 인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또 각종의 체육,위생 시설들은 근로자들의 원만한 육체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민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의 결과 쏘련 인민의 정신적 생활은 비할 바 없이 풍부하여졌으며 새로운 도덕과 품성들이 형성되였다.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생활 수준의 제고를 최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오늘 사회의 전체 성원의 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점차로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페절하며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하고 로동이 진실로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상 요구로 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 혁명에 관한 레닌의 사상과 쏘련에서의 문화 건설의 력사적 경험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지배적 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개화하는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는 오늘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재산으로 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복리 수준을 날로 급속히 제고시키고 있다.

* *

1945년 8월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우리 조국의 해방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정치, 경제,문화의 각 분야에서 심각한 혁명적 변동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의 인민 주권의 수립은 낡은 식민지적, 반봉건적 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적 제도를 창건하며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에로 점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주권의 령도하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은 사회주의 건설에로의 이행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닦았으며 낡은 식민지적 교육 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인민적 교육 문화 건설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

혁명의 진전에 따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서면서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전국적 규모에서의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문화 혁명의 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지도적 사상으로 삼았다.

사회주의적 새 조국 건설의 길에서 해방 후 평화적 건설의 5 년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우선 일제의 노예화 정책의 잔재인 인민의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일제의 탄압하에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성인 교육 기관을 광범히 설치하였고 그들이 현대적 지식과 문화를 소유하고 조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으며 젊은 세대들의 인민 교육과 민족 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1949년 3월까지에 북반부에서는 벌써 230 여 만 명의 문맹자들이 퇴치되였고 또 문맹을 벗어난 성인들을 위한 학교망이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근로 청년들과 농민 대중들 속에서 문화 계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1950년에 국 내에는 모두 1,500 개소의 각급 성인 학교들에서 15만 5천 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었다.

각급 일반 교육 학교 건설을 위한 투쟁은 특히 당과 정부의 지도와 인민 대중의 애국적 열성에 의하여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였다.

전쟁 전인 1949년에 벌써 인민 학교 수는 해방 전에 비하여 2.5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고 중학교 수는 실로 20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수 많은 야간 학교들과 통신 학교들이 설립되였고 특히 농촌 학교와 학생 수는 급격히 장성하였다. 남녀 평등권 법령이 실시된 후 녀자 중학교 학생 수가 1948년에는 벌써 해방 전의 13 배로 장성하였다. 1949년 9월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4차 회의는 벌써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1950년 9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할 과업을 제기하였었다. 전쟁 전 시기에 우리의 기술 및 고등 학교망들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수다한 기술 간부들과 기타 민족 간부들을 양성 배출하였다. 전쟁 시기에도 문화 건설에 대한 당과 정부의 관심과 시책은 중단되지 않았다.

전후 인민 경제 및 교육 문화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과 전체 인민의 애국적 열성과 로력의 결과 1956년 8월에는 우리 나라 인민의 문화 발전에서 획기적 사변으로 되는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다.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는 해방 후 우리 나라 문화 혁명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또한 새로운 인민적 인테리들의 양성이다. 선진적 과학과 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민족 간부들과 인민적 인테리들의 양성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국가의 공업화와 농촌의 협동화,기계화를 실시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제 과업을 완수할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오늘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한 17 개의 정규 대학들과 또 근로 청년들을 위한 통신 대학과 야간 대학들이 사업하고 있으며 1956년에는 벌써 1만 7천 여 명의 학생들을 교양하였다. 인민 경제 발전에 요구되는 기술자와 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 내에는 또한 180 여 개소의 각 부문 기술 전문 학교와 고등 기술 전문 학교가 설치되였고 또 로동 후비의 준비를 위하여 기능 전수 학교들이 수 많이 설치되였다. 해방 후 10 년간에 벌써 약 5만 명의 대학생들과 전문 학교 학생들이 새로이 졸업하였는바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 건설에서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민족 간부와 인민적 인테리의 양성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근로 청년들이 생산과 유리됨이 없이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며 새로운 간부들로 장성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각급 직장 기술 교육 기관과 로동 청년 학교,로동 학원 등을 설치하고 근로 인민 출신의 수 많은 기술 과학 일'군들을 양성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민족 간부와 기술 인재는 또한 국 내에서만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 쏘련과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의 각종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 수 많은 공화국 청년 학생들이 선진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여 조국의 믿음직한 간부로서 양성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 교육의 발전과 인민의 문화 기술 수준의 제고, 민족 간부들의 대량적 양성은 우리의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 기계화 등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진행되는 전체 혁명 투쟁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 따라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며 문화 혁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는 것은 전체 인민의 사상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변하며 그들에게 과학적 세계관과 사회주의적 도덕을 형성시키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우선 각급 학교와 사회 교양 기관들의 사업의 내용을 개선 강화하며 장성하는 후대에게 과학적,유물론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며 조국을 사랑하고 원쑤를 증오하며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 및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는 정신을 배양하여 왔다.

우리 인민에 대한 당의 교양자적 역할은 특히 국 내외에 조성된 혁명적 환경에서 계급 투쟁의 첨예성을 반영하여 낡은 사회의 의식의 잔재를 청산하며 교육과 문화에서 부르죠아적 영향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진행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의식의 개변을 위한 우리 당의 사상 교양 사업에 있어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제14차 회의 (1946년) 결정 《사상 의식 개변을 위한 투쟁 전개에 관하여》, 제5차 전원 회의 결정, 1955년 4월 전원 회의 결정 등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청년 학생들을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학교들과 함께 민청과 소년단 단체들이다.

해방 후 북반부에서 사회의 민주주의적,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에서 조선 인민의 새로운 정신적 풍모가 형성되였다. 공화국의 근로 청년들과 학생들은 건설과 로력에서, 난관과의 투쟁에서 교양되였고 단련되였다.

조선 인민에게 새로이 형성된 정치 도덕적 의식과 그들의 열렬한 애국주의, 이에 기초한 인민의 공고한 통일 단결은 실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증거로 되며 사회주의 건설 및 혁명의 승리적 완수를 위한 주요 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의식에서의 혁명, 그 결과로서의 우리 인민 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성과 애국주의적 헌신성은 지나간 조국 해방 전쟁에서 이미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멸의 위훈을 떨치게 하였으며 그것은 또 우리 근로 대중으로 하여금 무궁무진한 창조적 적극성으로써 전후 3개년 계획과 당이 호소한 증산 과제를 초과 실행하게 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게 하며 자기들의 최고 주권 기관 선거를 승리적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경축하여 로력 투쟁의 성과를 더욱 제고하게 하며 혁명의 원쑤들과 반당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여 당과 정부의 주위에 한결같이 통일 단결되게 하는 기본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와 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조건지어 주고 있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문학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시종 일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인민의 문화와 과학에서 일제의 악독한 잔재를 숙청하고 사회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인민적 민족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민족적 고전들을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문학 예술의 혁명적 전통을 고수하면서 선진 과학,문학,예술을 적극 도입하게 하여 극장,도서관,라지오 및 영화관 사업들을 꾸준히 확장 발전시키는 시책들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 나라의 민족 문화와 과학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전체 인민의 고도로 앙양된 열성과 로력에 의하여 급속히 개화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수 많은 인민적 작가 예술인들이 자라났고 인민들의 생활과 또 전형적인 새 인간들을 예술적 형상으로 밝혀 내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정당히 반영하였다. 우리 나라 문학과 예술은 그 시초부터 높은 사상성과 당성을 가지고 인민의 정서와 리익을 반영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사상적 무기로서 복무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1947년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29차 상무 위원회의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 문화 건설에 관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우리 나라 민족 문화를 옳게 계승 발전시키며 선진 국가의 문화를 광범히 연구 섭취하고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를 창건하는 구체적 방책들을 제시하였다. 결정은 특히 문학 예술 출판물 등 각 분야에서 아직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무사상성을 청산하며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반대하며 문학 예술의 사상적 순결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 결정은 또 과학 예술 문화 등이 인민 속에 침투되며 광범한 로동자,농민들의 소유로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의 지도하에 북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이 창설되여 진보적 작가들과 예술인들의 창작 사업을 지도하여 왔으며 또 음악,미술,연극,무용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예술의 전통을 연구하며 인민적 예술을 창작하기 위한 각종 기관들이 조직되여 당의 문예 정책의 관철을 방조하여 왔다.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침투 행정 자체와 마찬가지로 치렬한 계급 투쟁의 반영으로서 낡은 세계관, 예술관, 정치적, 도덕적 견해 및 창작 방법들을 반대하는 충돌과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카프》의 혁명적 전통을 부인하고 해방 후 인민들이 이룩한 문화의 제 성과를 부인하고 이에 대치하여 침략자들에게 복무하는 부르죠아 반동 문학 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한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과, 이들과 사상적으로 야합하여 당의 문예 정책을 외곡한 박 창옥 기타 분자들이 폭로 분쇄된 것은 해방 후 우리 당과 우리 문학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의 하나이다. 이것은 당 문예 정책의 기치를 높이 든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술계의 모든 사상—예술성을 위한 투쟁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당과 정부는 또한 우리 나라 과학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와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인민의 창조력과 과학 발전의 온갖 조건들을 조성하였고 과학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과학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자기 재능을 무한히 발전시키며 과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는 광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레닌의 사상을 다시 한번 실증하였다.

*　　　*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 혁명의 성과는 론의할 바 없이 크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 문화 및 인민들의 새로운 의식의 발전은 사회주의적 경제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하여 뒤떨어 지고 있으며 현실 생활이 제기하는 요구를 아직은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후진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농업국으로의 비약을 약속하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이제 5개년 계획으로써 본격적 단계에 들어 서며 협동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우리 나라 농촌은 기계화 및 문화적 농촌 건설의 과업을 일정에 올리고 있다. 우리의 성과가 크면 클 수록 반혁명의 파괴 활동은 격화되고 있다. 해방 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인민에게는 보다 높은 문화, 기술 수준과 사회주의적 의식과 보다 많은 기술 인재들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것은 문화 혁명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들이다.

이 과업들의 성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전체 인민의 과학 문화적 수준을 계속 제고시키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의 전 지역에서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한 토대우에서 앞으로 전반적 초중 의무 교육제(7년제)를 실시할 것이 예견되여 있는바 이것은 전체 인민이 높은 현대적 지식을 소유케 하며 우리 나라를 문명한 국가로 전변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로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문화 혁명의 성과를 열층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다음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수요되는 기술 인재와 민족 간부의 대렬을 계속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술 교육과 고등 교육 사업을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원대한 발전 전망에 근거하여 조직하며 이미 최고 인민 회의 제9차 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바와 같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인민 경제의 기사 구성 비률을 전체 수에 대하여 공업 부문에서는 약 30%, 농업 부문에서는 약 10%를 차지하게 하고 기수 구성 비률은 공업 부문에서는 약 40%, 농업 부문에서는 약 20%를 차지하게 하는 과업을 완강히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근로 인민의 과학, 기술적 수준 제고에서 제일차적인 과업은 우선 대중적인 일반 교육 학교——보통 교육 부문 각급 학교에서 기본 생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이다. 생산에 수요되는 유능한 기술 인재의 양성과 인민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의 제고는 중등 학교를 졸업하는 수 많은 청년 학생들이 현대적 공업과 농업의 기본 원리와 실천적 숙련을 소유하고 생산적 활동에 급속히 순응하도록 준비되는 사업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현대적 기술이 광범히 적용되며 생산력의 제고를 위한 기계화와 전기화, 자동화 등이 실시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 생산의 기술적 진보와 생산 조직의 합리화는 작업간의 호상 관계와 로동자의 자질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왔고 로동자의 손 로동을 기계에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고도로 조직된 기술적 작업을 발생시켰다. 이 사실은 로동자와 기술자의 양성에서 그들의 문화, 기술적 수준을 더 한층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을 규정한다.

힘든 육체 로동이 기계로 교체되며 중요 산업 분야에서 경제의 사회적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생산에서 로동의 지'적, 기술적 내용은 현저히 증대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들을 요구한다.

엥겔스는 《생산의 사회적 관리는 현재(당시의 자본주의 사회——필자 주)와 같은 인간들로써는 실현될 수 없다.… 전 사회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또 사회적 리익에서 관리되는 산업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능력을 소유한 인간을 요구하며 모든 생산 부문에서 방향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맑스 엥겔스 전집, 5권, 478 페지)라고 말하였다.

1957년 9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는 기본 생산 기술 교육은 바로 이와 같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육성하고 그들이 우리 나라 생산을 운영하며 발전시키도록 하는 우리 나라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기본 생산 기술 교육의 실시는 앞으로 사회주의적 생산의 자각적인 참가자들을 대량적으로 준비하고 생산력을 무한히 발전시키는 전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각급 기술 및 고등 교육 기관의 시설과 내용을 강화하며 교육과 생산을 긴밀히 련결시키며 특히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의 기술 보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그들을 우리 나라 생산과 기술 발전에 순응하는 능력 있는 인간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앞으로 적들의 치렬한 반항 속에서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우리 인민이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대한 곤난의 극복을 요하는 사업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의 현 단계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성과 경각성, 그리고 곤난과의 투쟁에서의 완강성과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급적으로 각성된 근로 대중이 창조적 적극성과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와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무궁무진하게 발휘하는 조건에서만 우리들 앞에 제기된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과학과 문학 예술 및 교육 교양 사업은 미제 침략자들과 반동 부르죠아지와 지주 계급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의 구성 부분으로서 그들의 사상적 영향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 우리 나라에서 아직 일부 주민과 학생들에게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의식의 잔재와 부화한 도덕의 표현들을 청산하며 특히 아직 우리 경제에서 존재하는 소상품 생산에 기초하여 부단히 발현될 수 있는 부르죠아적 개인 리기주의와 기타 낡은 사상 잔재들을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가 제시한 사상 사업의 기본 방향에 립각하여 전체 인민과 청년 학생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그들의 교양을 우리 나라의 생동적인 현실 생활과 투쟁에 적응시켜 진행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여야 한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문화 혁명의 새로운 성과를 위하여 궐기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문화 농촌 건설의 과업에 대하여

허 호

오늘 우리 당과 정부의 옳바른 지도하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자기의 내용과 형식을 일신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전체 농호의 85% 이상이 협동 경리에 망라된 우리 나라 농촌은 이미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되였으며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어제'날의 개인 농민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변되였다.

1956년에 농업 협동 조합들은 전국적으로 개인농 경리에 비하여 정당 알곡 수확고를 평균 19%나 높였을 뿐만 아니라 목축, 어업, 양잠 및 기타 각종 부업들을 성과적으로 조직 발전시킨 결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공동 경리의 토대는 더욱 공고화되고 조합원들의 수입은 급속히 증가되였는바 1955년에 비하여 1956년에 조합원 호당 평균 알곡 분배량은 129%, 현금 분배는 170%로 장성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 우에서의 농업 생산의 발전은 점차 농촌에서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청산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의 가일층 추진, 기술 혁명, 문화적 농촌 건설 등등 새 문제들을 일정에 오르게 하였는바 이 문제들은 이미 일보일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때문에 전쟁에서 파괴된 농촌을 보다 훌륭하게 복구하며 농민들의 절실한 지향과 조합 및 조합원들의 경제력의 장성에 따라 사회주의적 경리에 알맞는 생산적이며 문화적인 사회주의적 농촌 건설, 다시 말하여 농업 협동 조합 주민 부락의 건설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방대한 농촌 건설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 주택을 비롯하여 수 많은 생산 건물들과 문화—편의 시설들을 건설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우리 당과 정부는 이에 요구되는 목재, 세멘트, 철재, 유리 등 건재 증산을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에 대한 기술적 방조를 줄 데 대하여 구체적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문화 농촌의 건설——이것은 바로 농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되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것이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제3차 당 대회에서 하신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가운데서 이미 농촌의 생산 문화를 제고시킬 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함남도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경제 기관 일'군들 앞에서와 최근 중앙에서 진행된 도, 시, 군당 지도 일'군들과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의 강습에서는 농촌 건설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방향적 및 방법적 지시를 구체적으로 주었다.

* *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건설은 그것이 전쟁 피해로부터의 단순한 복구나 자연 발생적인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실시되는 건축—기술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라 력사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제기되는 필연성이며 그 자체가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나라 농촌, 협동 조합의 주민 부락들은 과거와 같이 독립된 생산 단위인 개인 농호들의 단순한 집결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대규모적 생산 단위인 농업 협동 조합의 생산적인 협동 로력이 전개되며 그 성원들의 단란한 가정 생활과 문화 생활이 영위되는 사회주의적 근로 농민들의 유기적인 집단 생활의 중심지인 것이다.

과거의 농촌은 한 농호 단위로 주택과 경영 건물들이 무질서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산만하게 건설된 비조직적 농촌이였다면 앞으로의 농촌은 공동적인 대규모의 각종 생산 건물들과 문화—편의 시설들이 집결되고 로력적으로 호상 밀접히 련결된 조합원들의 주택들과 터발들이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자리 잡은 새 형의 조직적, 문화적 농촌이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 농호를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조합 농호란 그의 성년에 달한 성원들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공동 경리에 참가하여 거기서 기본적인 수입을 얻으며 극히 소규모의 터발 기타의 부업 경리로써 보충적인 수입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의 가족적이며 로력적인 결합체이다. 즉 조합 농호는 개인 농호와는 달리 의식주를 비롯한 그들의 일체 생활적 수요가 주로 조합 공동 경리에 참가한 로력의 대'가로서 분배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으로써 충당되며 자체로는 기본적인 생산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조합원들의 가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의 성격과 농호의 내용은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형식을 가진 우리의 농촌은 새 내용에 적응하게 개조되여야 하며 발전된 새 생산 방식과 향상된 물질, 문화적 수요에 적응되여야 한다. 더우기 전쟁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 우리의 농촌이 오늘 많이 복구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성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적응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여기에 농촌 건설의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 건설은 그것이 단순히 내용에 적응하는 형식을 갖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회주의적 농촌 건설은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공고히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거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협동 경리의 우월성이 이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며 형식은 내용에 반작용한다고 가르친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는 바로 농촌 건설에서도 그 리론적 근거로 되는 것이다.

옳바르게 건설된 농촌은 조합원들의 모든 작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제고시키며 생산비와 로력을 저하시키고 전체 조합원들이 공동 경리 운영에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직접 조합 생산에 큰 영향을 주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정치, 문화 교양 사업과 자녀들의 교육 교양 사업을 급속히 향상시켜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전체 농민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시켜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와 문화 혁명을 완수하게 한다. 더욱 조직된 문화—편의 시설과 복리 시설들은 조합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그들의 로동과 생활 및 휴식을 유쾌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해야 할 문화적인 조합 주민 부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지구, 부문 및 그루빠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농촌은 주택 및 생산의 두개 지구로 구분하고 주택 지구는 이것을 다시 공공 중심지와 주택 및 터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공 중심지라는 것은 보통 생산 지구, 포전 및 주택 구역으로 련결되는 도로의 기'점으로 되는 소광장을 중심으로 관리—행정 기관 사무실, 구락부, 상점, 리발소, 목욕탕 등등 시설들이 집결된 농촌의 중심부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생산 조직과 지도에 유리하고 시설들의 리용에 편리한 조합의 심장부를 말한다. 그러나 문화—편의 시설들은 모두가 한 장소에 집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지구의 적당한 장소에 산재하여 그가 가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점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문화—편의 시설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 그루빠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교육 및 양육 시설 그루빠——학교, 유치원, 탁아소.

2) 문화, 교양 시설 그루빠——구락부, 민주 선전실, 도서실, 유선 방송실, 운동장, 문화 휴식 공원 및 기타.

3) 편의 시설 및 급양 시설 그루빠——소비 협동 조합 상점, 식당, 리발소, 세탁소, 목욕탕, 외래객 숙박소.

4) 보건 시설 그루빠——진료소, 소독소 등이다.

생산 지구 (생산 중심지라고도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부문들과 그루빠들이 속한다.

1) 농산 부문——역축사, 농기구 창고, 수송 기자재 거치장, 탈곡장, 온실, 온상 및 기타.

2) 축산 부문——우사 (역축 아닌 소), 돈사, 양사 및 가금사 등 축사, 사료 조리실, 사료 저장고, 씰로쓰 저장고, 구비사 및 기타 목장 시설들.

3) 농산물 가공 부문——정미소, 고공품 제조소, 제유소.

4) 양잠 부문——잠실, 잠구 저장고.

5) 수리 그루빠——야장간, 목공소.

6) 창고 그루빠——량곡 창고, 종자 창고, 비료 창고, 경영 재료 창고, 과실 저장고 및 기타.

7) 기타 생산 시설들——벽돌 및 기와 공장과 해당 조합의 특수성에 따라 있는 기타 생산 시설들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농촌 건설에 있어서는 부락 내부의 도로, 급수 및 배수 (우물, 하수도 및 기타), 하천 범람 방지 언제, 전기 가설, 록화 및 기타의 각종 복리 시설들도 포함된다.

그러면 이러한 성격과 시설들을 가진 새로운 사회주의적 농촌을 건설하자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동 조합의 기본 중심 부락 지'점을 선정하고 분산된 농가들과 소규모 부락들을 적당히 정리하는 문제와 지역적 조건, 기존 부락의 규모, 그 건물들의 존속 수명과 크기 및 기타 조건들을 타산하여 잔존시켜야 할 보조 부락을 조직할 데 대한 문제.

해당 조합에서 건설해야 할 생산 건물과 구조물들의 종류를 결정하고 조합 생산 중심지를 선정하여 이를 옳게 배치 건설하는 문제.

협동 조합의 관리—행정 기관, 문화—편의 시설들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것을 배치할 장소를 선정하며 이것을 건설하는 문제.

조합원들의 주택과 터밭들을 규모 있게 문화적으로 배치 건설하는 문제.

부락 내 도로, 급수 및 배수, 록화, 배전, 방송 및 체신 등 복리 시설들의 조직과 건설.

농촌 건설에 대한 년차별 건설 순서와 건설 방법을 제시하는 전망 계획을 작성하며 거기에 맞추어 조합 건설 작업반을 조직적 및 기술적으로 양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농촌 건설을 계획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문제들이다.

농촌 건설은 개별적인 하나의 조합에 대한 내부 건설 문제이면서도 해당 지방 건설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인만치 지방 당 및 정권 기관들은 이에 조직적으로 물질적 및 기술적 방조를 줄 것이며 전반적 지방 건설 계획과도 유기적 련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건설 사업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그가 가지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망각하고 단순한 건축, 기술적 문제로나 개별적 인물들의 욕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일이 많으며 원대한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진행할 대신에 다른 생산 작업과 건설 사업들과의 련계를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 자체의 로력적, 재정적 및 기술적 력량을 타산하지 않고 주먹치기로 집행하며 조건과 환경을 옳게 타산하여 실정에 알맞는 다양한 건설을 조직 집행할 대신에 틀에 박은 듯이 도식주의를 적용할려는 경향들까지 산생되고 있다.

더욱 농촌 건설은 많은 기본 투자와 로력을 요구하며 일단 건설된 농촌은 그것을 간단히 개선하고 재조직하기 곤난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건설의 결과는 장기간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막대한 손실과 불편을 주는만치 이 사업에 대한 신중성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촌 건설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해당 협동 조합에서 기본 중심 부락을 어데다가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많은 건설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위치 여하가 모든 생산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위치 선정에 신중성이 없는 데로부터 조합 농토의 배치 정형, 지방 중심지와의 련계, 앞으로의 조합 발전의 전망, 집단 부락 형성을 위한 건설의 여지 등등 조건과 지반의 견고성, 침수 상태, 음료수와 경영 용수의 유무, 건설 재료 수득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 위원회 사무실로와 기타 몇몇 창고로 리용할만 한 건물이 있다든가 조합 농토의 한쪽 끝에 있으나 조합 내에서는 큰 부락이거나 혹은 풍치가 좋다든가 등등 단순한 하나의 측면만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는 조합 농촌은 하나의 집단 부락이 리상적이라 하여 덮어놓고 모든 부락을 이전시켜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더우기 농촌 건설을 도시나 로동자 지구의 사택 건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광범한 전야 작업과의 유기적 련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 문화 농촌을 건설한다 하여 비옥한 농토를 함부로 축소시켜 대지나 기타 불경지로 전환시키려는 경향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농촌의 주민 부락은 어디까지나 생산에 유리하며 조합원들의 문화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건설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때문에 분산 부락을 기본적으로 청산하면서도 생산에 유리하고 문화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보조 부락의 존속도 허용되여야 하며 비록 전체 조합 리용지의 중심이 못되고 한편에 기우러져 생산 조직에서와 작업 수행에 약간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 부락이 있고 건축, 기술적 면에서나 문화 생활적 면에 유리하다면 그 부락을 중심 부락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자연, 경제적 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가장 합목적적인 장소를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 건물 및 문화—편의 시설들을 조직함에 있어서도 매개 협동 조합들은 이와 같이 성격이 각이한 건물들을 분리시켜 건설함으로써 자체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고 보건 위생 및 수의 방역적 면을 보장하게 할 대신에 축사, 야장간 등 오물과 소음이 많은 건물들을 주택 지구 내부나 구락부, 병원 등 부근에 배치하는 현상이 있으며 또한 소규모 협동 조합들에서는 린접한 협동 조합들과 합동하여 문화—편의 시설들을 조직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제각기 이것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경향들도 있는 바 이런 것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다.

여기서 특히 언급하고저 하는 것은 소규모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앞으로 자체의 경제적, 조직적 지반이 공고화됨에 따라 더 큰 규모로 발전할 것도 타산하여 부락 배치와 공동 건물들을 건설함에 있어서 장래에도 사용 가치가 없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 장소 선정을 옳게 하거나 또는 린접 조합들과 예견성 있게 합동으로 공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전망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을 문화적으로 건설하며 또한 전망성 있게 한다고 하여 현재의 조건과 기술을 타산함이 없이 분에 넘치는 구락부나 도서관, 운동장, 문화 휴식 공원, 축사, 창고 등을 화려하게 건설하고 꾸밀려는 경향도 옳지 않으며 또한 아직 쓸모 있는 기존 건물들과 시설 및 부락들을 함부로 허물어서 이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로력상, 자금상 랑비를 하는 편향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 발전 전망이 미지수라하여 농촌 건설 문제를 추후로 미루는 경향도 부당한 것이다.

때문에 농촌 건설 계획은 기본적으로 5개년 전망 계획을 토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부 지도 일'군들 가운데는 또 농촌 건설을 생산 및 문화—편의 시설들의 건설에만 중심을 두고 조합원들의 주택 문제 해결과 개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는 그와 반대로 주택 건설에만 주력하고 공동 생산 및 문화—편의 시설 건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모두 옳지 않음은 물론이다. 생산 건설과 주택 건설을 옳게 결합시켜야 하되 우선 조합원 개인들의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주택 건설에 선차적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주택 건설에 있어서 특히 선후차를 세심하게 결정하여 로력, 경제적으로 토대가 빈약한 애국 렬사 유가족, 후방 가족, 제대 군인 등으로서 자기의 주택이 없는 조합 농호, 시급히 개조해야만 할 농가 및 분산된 농가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되 전반적인 농촌 건설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 배치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비위생적이며 쓸모 없이 건평만 많이 차지하는 개인 농가들의 주택 양식을 일소하고 일조, 통풍, 음료수, 습도 등 조건을 적당히 리용할 수 있으면서 공동 로동과 생활에 편리하며 모든 문화—편의 시설들을 리용하는 데도 전 부락적으로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더욱 주택 주위에 반드시 정원과 터밭을 가질 수 있는 조건과 도로 리용에 편리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 농촌에서는 터밭이 주택 주변에 있는 수도 있었으나 주택 건축이 무계획적이며 무질서하게 진행되였고 일제시 근로 농민들이 그가 거주할 주택인 초가 삼간조차 지을 대지를 구할 수 없었던 조건들이 모두 터밭을 주변에 가진 농가를 건축하지 못하게 한만치 새로 조직하는 주택 지구는 반드시 조합 규약에 예견된 평균 터밭 면적 정도는 반드시 주택 주변에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왕왕이 터발 배당을 념두에 두지 않고 주택을 건설한 결과 새로 건설한 농촌에서 여전히 린접 가옥과 련속되여 통풍, 일조, 방화 등 조건을 보장할 수 없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 농호가 터발 경리 운영을 위하여 공동 경리에 지장을 주게 하는 경우까지 산생시키게 된다. 먼거리에 있는 터

발 경리는 공동 경리에서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는 경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주택 배치에서는 터밭과 소규모 정원 및 돈사 등 부업 축사 건설을 반드시 예견하는 것이 좋다.

농촌 건설에서 존재하는 엄중한 결함 가운데는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뢰하는 경향과 로력 및 자금 투하에서 조합 자체의 력량과 조합원의 축적 정도 여하를 고려함이 없이 조직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일체 건설 자재와 사업 조직을 국가가 보장해 줄 것만 믿고 조합 자체로 지방 재료를 최대한도로 리용하여 자체의 력량으로 창의 창발성을 내여 해결할려고 하는 경향이 적은가 하면 매개 조합원들은 주택 건설에서 자체의 부담이 아니고 다만 조합 공동 축적 폰드로 해결해 줄 것만 기다리고 있는 옳지 않은 경향들도 없지 않다. 조합의 공동 건물들은 조합 자체의 재산이며 조합 자체의 생산을 제고시키는 물질적 기초로 되는 것이며 조합원들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신의 개인 재산인 것이다.

농촌 건설은 반드시 조합 내 일체 생산 작업과 유기적 련관 속에서 조직 진행해야 한다. 조합에서는 기본적인 농산 작업 이외에 토지 건설 사업, 토지 보호 복구 및 관개 하천 공사, 식수 조림 사업, 과수원, 상전 조성 사업 등 수다한 기본 건설 사업들이 있는만치 농촌 건설이 필요하다 하여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전체 조합원들의 로력과 자금 투하 발란스를 정확히 작성하여 능히 보장할 수 있는 범위의 건설 사업을 년차별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건설 때문에 영농 사업에 지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 내에서 건설 작업반을 조직하며 그를 질적 및 량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는 농촌 건설에서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농촌 건설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은 이러저러한 력사 발전 단계에 있어서 사회적 생산 양식, 생산력의 발전 정도, 사회 생활의 내용과 형식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 정도에도 의존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작업반을 조직하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건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 방법중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설 작업반의 조직과 그의 질적 및 량적 강화에 무관심한 조합들이 많이 있다. 농촌 건설이 단시일 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구히 존속할 것인만치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설 작업반의 기술 성원들을 인내성 있게 육성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현재 기능공들이 없다고 조직을 포기하거나 건설 작업반을 단순히 목공들의 집단만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유이다. 소규모 협동 조합들은 린접한 협동 조합들과 합동으로 하나의 고정 건설 작업반을 기술 성원들로써 조직하고 림시 보조 로력은 해당 조합의 건설 작업시에만 해당 조합에서 보장하도록 하며 소질 있는 조합원들을 이에 망라시켜 꾸준히 육성해야 한다. 특히 초 고중을 졸업하고 조합에 들어 온 젊은 청년들을 기능공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며 지방 정권 기관들에서는 이를 위하여 단기 강습, 견학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주며 조합 자체로서는 린근 국가 농목장이나 건설 직장 및 우수한 기능공들이 있는 주변 협동 조합들에 일시 파견하여 조직적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농촌에 파견되는 건설 대학, 건설 전문학교 학생 그루빠의 방조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농촌 건설에서는 또 전반적 설계에 있어서나 개별적 건물들을 배치하며 그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와 재료를 리용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경제적이고도 문화적인 표준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다고 하여 지방적 조건이나 기후 조건과 조합의 규모와 요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설계를 적용하는 현상들이 있는바 례를 들어 랭한 지방과 온화한 지방의 주택이 동일하다든가 이 조합의 설계 도면을 저 조합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구락부나 관리 위원회 사무실을 꼭 같이 짓는다든가 하는 일은 없애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로부터 하달될 농촌 건설에 대한 지도서 및 건설 규정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시기에 있어서 농촌 건설이 가지는 정치적 의의와 생산적 및 문화적 의의를 옳게 파악하지 못한 데로부터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산생될 수 있는만치 이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일'군들은 각별한 신중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촌 건설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이미 많이 언급하였지만은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확대 재생산을 위한 조합 공동 경리의 생산 조직과 로동 수행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둘째, 조합원들의 가정 생활과 정치—교육, 문화 교양 생활을 일상적으로 유리하게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세째,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네째, 농촌 건설 및 건축에서 요구되는 기술 지표들(건축—기술 지표, 방화 지표, 위생 방역 지표 및 기타)을 준수하는 것 등이다.

그러면 이러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하면서 당면한 우리 나라 농촌 건설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고려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농촌 건설에 대한 전망 계획이 수립되여야 할 것이다. 행정 구역으로서의 도, 시, 군들에서는 생산 계획과 함께 도, 시, 군'적으로 되는 전면적인 농촌 건설 전망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로부터 받을 건재와 지방 자재의 광범한 활용을 고려하면서 적어도 5개년 계획 기간 내 매개 조합들의 발전 전망에 근거하여 매개 조합에서 자체의 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은 장성하는 매개 조합들의 경제적 토대에 의거하여 조합들의 여유 경제력을 더욱 풍요한 농촌 건설을 위한 확대 재생산에 집중하면서 교육 문화 부문 공공 시설들과 주택 건설들을 합리적으로 배합시키는 방향에서 작성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보다 급속한 발전을 위한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토지 건설 계획 특히 경리간 토지 건설 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자연 재해에도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지방적, 조합적 규모의 관개 하천 공사에 신중한 주의를 돌리며 농민들의 로력을 경감시키며 다수확을 보장할 수 있는 선진 농기계와 농기구 등을 구입할 데 대한 문제도 고려되여야 한다.

또한 농촌 건설은 농민들의 주택, 토지 건설 뿐만 아니라 후대 교육을 위한 학교 건설에 있어서도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초중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초중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전 인민적 과업의 수행에서 농촌은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때문에 농촌에서의 학교 건설은 가장 선차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조합 단독으로나 몇 개 조합이 합동적으로 학교 기금을 축적하여 학교 건설을 계획하는 사업들이 일정에 오르고 있다.

토지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특히 류의할 것은 경리간 토지 건설 계획은 물론 조합과 조합 호상간의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는 문제이다.

현재 협동 조합들의 토지는 분산되고 호상 교차되여 련속된 하나의 집단지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이 보통이며 소규모의 협동 조합들 중에는 지역적 조건이나 경영상 형편으로 보아 멀지 않은 장래에 필연적으로 통합되여야 할 것들이 있는만치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마지막에 가서 경리간 토지 건설의 결과 대체로 조합 리용지의 집단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타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군내 매개 협동 조합별로 리용지가 어떻게 집단화되고 그 토지가 논, 밭, 과수원, 상전, 방목지 및 기타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조합별 농지의 조직과 배치 계획이 수립되여야만 합리적인 농촌 건설을 착수할 수 있다.

이것은 조합의 농토 리용에 유리한 부락의 위치와 건물의 배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앞으로 일정한 시기에 가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조합들은 농촌 건설을 이에 맞추어 미리 예견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경리의 중심지인 조합의 기본 부락은 어떤 곳에 건설하며 보조 부락의 존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협동 조합의 주민 부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집단 부락으로 하되 조합의 전반적 생산 부문들 특히 기본 포전들에 대하여 중앙이 되는 지점이라야 좋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 조직과 작업 수행상 가장 유리하며 조합원들의 모든 집단 생활에 일률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능한 한 조합 농촌의 중앙부에 기존 농촌이 있다면 그것을 기본으로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 다른 조건에 큰 지장이 없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농호를 포괄할만한 면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집단 부락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먼 곳에 농토의 일부 집단이 있고 기존 부락이 이미 형성되였거나

또는 통합하는 것이 생산적 면에서는 좋다 하더라도 그 부락의 규모가 크고 기존 건물의 수명이 긴 것이라면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현 조건에서 중심 부락을 중심으로 반경 2 키로메터 이내에 기본적으로 농호가 있다면 하나의 집단 부락으로 충분하며 그 이상 지점에 집단된 하나의 농호가 있다면 보조 부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분산된 개개 농가들은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의 집단 부락은 공공 중심지로부터 500 메터 이내의 반경 구역 내에 기본적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여야 좋고 규모가 큰 부락이라도 반경 1 키로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조 부락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도 아동들의 통학이 보장되고 유치원, 탁아소, 민주 선전실 등을 조직할만한 정도의 규모로 되여 그 부락 조합원들의 문화 교양 생활 수준이 기본 중심 부락에 비하여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2) 주민 부락은 조합 내외로 통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서도 보건 위생상 교통량이 많은 대통로로부터는 100 메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야 좋다.

조합의 모든 생산물들과 인원들은 이 주민 부락(특히 기본 부락)을 중심으로 집산된다. 때문에 생산 중심지인 주민 부락의 생산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농지에로 포전 도로들이 련결되고 부락 공공 중심지를 기'점으로 포전에로는 물론이고 린근 부락들과 리, 군 소재지, 가까운 철도역, 부두, 대통로로 통하는 도로가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에서는 특히 수송비가 생산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3) 용수가 보장되고 건축 용지로서와 터밭 용지로서 토질 조건이 좋아야 한다.

주민 부락에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여야 할 조건 중 하나로서 음료수와 경영 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는바 지하수가 너무 깊지도 너무 높지도 말고 1.5—2 메터 정도의 깊이가 적당하며 하천이나 저수지 부근에 있는것이 좋다. 지하수가 너무 높으면 건축적 면으로 보아 지하실 건축에 지장이 있으며 장마철에는 부엌에 물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질 조건은 건물의 기초로서 굳은 땅이 요구되는 동시에 소채나 과수 재배에 적당한 것이라야 터밭 리용상에 있어서도 좋다. 그러나 주되는 것은 건축상 토대로 적응한 토질로서 배수가 잘되며 건조하면서도 견고한 토질이 좋다.

4) 부락 장소의 기복 상태와 경사 방향이 요구에 적응하여야 한다.

즉 건축 용지의 정지와 도로 기타 시설 사업의 조직상 건설 토공 작업량을 저하시키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부락 장소는 평탄하면서도 지대가 높으며 약간 동남향으로 경사진 곳이 좋다. 이러한 경사는 채광 조건과 배수 조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락은 우리 나라 기후 조건에서 서북의 찬바람을 막으며 안온한 장소라야 좋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들이 서북편에 산을 등지고 동남향의 경사지에 배치된 경우가 많은만치 이러한 유리성을 옳게 살려야 한다.

5) 생산 중심지를 조직하는 데 유리한 지역이 있어야 좋다.

즉 하나의 농촌을 형성하지만은 주택 지구는 깨끗하고 문화적이며 보건 위생적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구비되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 지구와 너무 가까우면 좋지 않다. 생산 지구는 오물과 진애 및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 지구와는 멀리 떨어 질 수록 좋다.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격리되면 그의 관리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량 지구는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주택 지구가 생산 지구로부터 비위생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생산 지구는 방목지와 포전으로 가는 도로가 주택 지구를 통하지 않아야 하며 량 지구는 소 구릉이나 록지들로서 격리되여 있고 생산 지구의 지표면은 주택 지구보다 낮으며 바람도 주택 지구를 거쳐서 생산 지구에 가도록 하는 장소라야 좋다.

만약 주택 지구로서는 합당하지만 생산 지구를 조직하기에는 곤난한 조건이라면 목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시설들은 딴 곳에 격리시켜 배치함으로써 독립적인 생산 중심지를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지구 가까이는 적어도 농산 부문과 창고 그루빠에 속하는 생산 건물들 만은 건설할 필요가 있다.

6) 농촌 건설을 조직 집행하는데 로력과 자금이 최소한도로 소비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지 토공 작업량이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 건설 재료——모래,자갈, 돌, 진흙, 석회, 갈대, 목재 및 기타——가 가까운 곳에 많이 있으며 인공적인 식수 조림 없이도 자연 록지가 있으면 더욱 좋다. 특히 건설비를 적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과 시설들을 최대한도로 리용하는 방향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그것을 리용할 방도를 강구하여 비생산적 투자를 축소시키는데 가장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상이 주민 부락 선정의 기본적 요구이나 이 모든 것이 모두 충족되는 장소는 흔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술한 농촌 건설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이러저러한 와리안트를 호상 대비 분석하여 가장 합목적적인 곳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생산 건물들의 배치에 있어서는 주택 지구와 가까운 쪽에 각종 창고들(사료 창고는 제외하고)을 건설하되 복판에 탈곡장을 중심으로 이 창고들과 정미소, 농기구 창고, 야장'간, 역축사, 실내 작업장 (고공품 제조소로 겸용할 수 있다) 등 건물들이 주위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게 하며 이 구역을 지나 산을 등진 한 구역에 사료 창고, 조리실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축 유보장을 규정대로 보장하면서 축종별로 축사를 배치한다. 가축 두수가 많은 데서는 축군별로 축사를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 축사 배치는 지역이 허용하는한 간격이 멀수록 좋으며 구비 퇴적장은 축사로부터 50 메터 이상 떨어진 곳이 수의 위생상 좋다. 이와 같이 하여 주택 지구나 대통로로부터 축사까지는 적어도 200 메터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

온실과 온상은 소채전과 가까운 생산 중심지의 한 모퉁이에 퇴비장 가까히 배치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며 잠실은 생산 지구와는 떨어져 상전 가까운 남향 경사지에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 지구에서는 생산 지구와 가까히 련결되는 간선 도로 주변의 지구 중앙부에 공공 중심지를 설정하고 행정 관리 기관들을 비롯하여 문화—편의 시설의 많은 부분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구락부 (보통 민주 선전실을 겸하는 것이 좋다), 도서실 등은 공공 중심지에서 가깝고 경치가 좋은 록지나 공원 속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부근에 운동장까지 있으면 더욱 리상적이다.

학교, 유치원 등은 주택 지구의 중앙이면서도 수송 도로, 생산 건물 등으로부터 50 메터 이상, 보통 통로로부터는 15 메터 이상 들어간 조용한 장소라야 하며 탁아소는 주택으로부터 많은 인원들이 일상적으로 작업에 나가는 도로 부근의 보건—위생 조건이 보장되는 장소를 선택할 것이고 진료소는 다른 건물들로부터 좀 떨어진 록지 가운데 배치하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만약 보조 부락들을 가진 협동 조합들에서는 전 조합적으로 리용되는 관리, 행정 기관 사무실과 문화—편의 시설들을 배치함에 있어서 기본 중심 부락 가운데 그 장소를 선정하되 그 위치가 다른 보조 부락 주민들의 리용에도 편리하게끔 그 부락과 련결되는 도로 주변의 거리가 가까운 지점에 건설해야 한다.

요컨대 개별적 건물과 구조물들은 그가 가진 사명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전체 조합원들의 리용에 편리한 장소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농촌 부문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오늘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경리가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된 변경된 새 환경과 조건하에서 어느 때보다도 그 지도 수준을 일층 제고하여 농촌 건설을 문화적으로 조직하며 협동 경리를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은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특히 장성하는 조합원들의 여유 경제력을 다만 고급 직물이나 기타 소비품에만 치중하려는 현상들을 제거하고 그를 생산과 관련된 문화적인 농촌을 건설하는데 특히 주택 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 건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여유 경제력으로써 따로 주택 건설 폰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 건설을 조합 공동 폰드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없애야 할 것이다.

농촌 건설에 대한 도, 시, 군 지도 기관들에서는 건재와 건설에 필요한 기구, 공구들을 알선 보장하여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각 도 및 시 군들에 우선 시범 건설들을 시급히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별적 당원들에 대한 당 단체의 지도

허 일 훈

당원들과 당 단체와의 호상 관계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당원은 자기의 일체 활동에서 항상 당 조직 앞에 책임을 지며 당 규약에 제정된 당 생활 규범과 당 결정 지시들을 충실히 실천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당 단체들에게는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을 정확히 지도 통제하며 방조할 임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의 주목의 초점은 항상 자기의 성원들인 매개 당원들의 당 생활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구체적으로 조직 지도할 데 대한 당적 요구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당이 처한 주객관적 환경. 조건들에 의하여 더욱 강조된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앙양기에 들어 서고 있다. 이것은 광범한 소상품 경리였던 농업 분야에서의 협동화 운동이 기본적인 승리를 달성한 것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농업을 비롯한 모든 소상품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인 전환은 각 나라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계급 투쟁을 일정한 범위에서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조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한 조건에서 적들과 직접 대치된 환경에서 이러한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만큼 계급 투쟁은 더욱 날카로운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우리는 혁명과 반혁명간의 투쟁에서 《누가 누구를》 이기는가 하는 극히 첨예화한 정세하에 처하고 있는바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그를 정확히 령도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승리를 보장할 위대한 력사적 사명이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인 조선 로동당과 전체 당원들에게 부여되였다.

그러므로 매개 당원들을 당성이 강한 혁명 투사로, 인민들의 신임이 두터운 정치 활동가로 육성 단련시키는 사업은 각급 당 단체들의 제1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나 당적 원칙성을 고수하며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간하며 자기의 정치 사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면 할 수록 그만큼 우리 당의 기본 조직인 초급 당 단체들이 강화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 당이 강화될 것이다.

당원들에 대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옳은 결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 가운데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선진적 투사들이 망라되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당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말한 것이지 매개의 개별적 당원들이 어떻다는 해답으로 되지는 않는다. 당원들은 그들의 계급적 각성 정도, 정치 사상적 수준, 사업에서의 정치 실무적 능력, 사회 정치 생활의 경위, 개인적 품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각이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당 단체들의 임무는 매개 당원들의 특성을 잘 연구 료해하여 당적 견지로 보아 반드시 조장 발전시켜야 할 긍정적 측면과 혁명 사업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부정적 측면을 정확히 분간하여 그 당원으로 하여금 결함을 시정하고 혁명 위업에 더 잘 기여하도록 지도 방조하는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평북도 당 대표 회의 석상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은 당원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부모가 아이들을 자래우자면 그의 성격 및 우점과 결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하나하나 육친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당 조직 사업도 이렇게 해야 하며 당원들이 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당원들에 대한 당 단체의 지도는 항상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능숙한 결합의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매개 당원들에게 일정한 특성이 있다 하여 그들에 대한 일반적 지도를 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당원들에 대한 일반적 지도——다시 말하면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 생활 규범에 대한 해석 침투 사업, 당 결정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 사업, 당 생활 규범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전 당적인 조치 (례하면; 전 당적인 당성 검토, 당증 교환 사업 등),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에 대한 전 당적인 유일적 지도 및 기타 등 이러한 일반적 호소와 지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업은 목적 지향성을 잃게 되며 그에 대한 당의 통일적 지도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당 사업은 수공업주의에 빠질 것이다.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은 전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단결에 있는바 당원들에 대한 일반적, 통일적 지도가 없이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100만 당원의 일치한 견해가 확립될 수 없으며 당 정책과 당 규률에 의한 행동의 유일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원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 정도와 그들이 처한 환경 조건상 특성들을 고려함이 없이 일반적으로만 지도한다면 당의 의도가 정확히 관철될 수 없으며 심지어 당 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리해 정도조차 료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증 교환 사업 기간에 료해된 바에 의하면 자강도 전천군 당 산하 부분적인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3차 당 대회 결정을 위시하여 당 중앙 위원회 8월 및 12월 전원 회의 결정과 같은 거대한 전 당적 의의를 가지는 결정들에 대하여 그 실행 대책을 당원 총회에서 토의조치 하지 않았으며 평남도 순안군 당 산하의 부분적인 당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토의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극히 부분적인 실례에 불과하지만) 결국 일반적 호소에 그치고 개별적인 구체적 지도가 뒤따르지 못한 데서 발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지도는 반드시 세밀한 개별적 지도와 긴밀히 그리고 능숙하게 결합되여야 한다.

당원들에 대한 정확한 개별적 지도의 기초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옳은 료해이다. 그들의 당성과 정치 사상 수준, 그리고 당 결정 실행과 당 생활 규범 준수에서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이며 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며 그들에게 어떤 창발적 의견이 있으며 무엇을 시급히 고쳐주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지도할 수 없으며 모르고 《지도》한다면 반드시 주관주의적 착오를 범하게 되며 당적 지도의 권위를 훼손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원들을 료해하며 그에 적응한 구체적 지도를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당 일'군들의 침착성과 노숙한 사업 작풍이 필요하며 높은 정치적 판단력이 요구된다. 당원들을 료해하는데 있어서 초급 당 단체 일'군이나 상급 당 기관의 일'군이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상적 관점은 동지적인 지도와 방조의 정신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의 사상상 또는 행동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동지적 교양을 주는 것——이는 당원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태도이다》라고 교시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부분적 경우에 있어서는 지도하는 일'군들과 지도를 받는 당원들 간에 견고한 동지적 관계가 견지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바 지도하는 일'군들이 자기를 《높은 당원》이나 어떤 《특권》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면서 겸손치 못한 태도를 취할 때에는 그의 지도가 강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며 당원들의 진심으로 되는 공감과 충격을 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혹 경우에 있어서는 불만을 환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을 높은 혁명적 우애심으로서 대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유익한 방조를 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기를 결심하지 않고서는 당원들 속에 깊이 들어 갈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심정을 정확히 료해 판단할 수 없다.

일부 초급 당 단체 일'군들이 당원들과 리탈되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당원들에 대한 그의 사상 관점상, 태도상 결함에 있다. 함남도 신창군 양천서리 전리 당 위원장은 당원들을 교만하게 대하였으며 당원들의 사상 동태를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방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 결산—선거에서 락선되였다.

당원들을 료해하는데 있어서 사상 관점상 문제와 동시에 방법 문제도 또한 홀시할 수 없다. 정탐식 방법으로 당원들의 뒤를 파는 것으로써는 결코 당

원들을 료해할 수 없으며 또 그런 《방법》을 혁명 동지들에게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왜냐 하면 당 단체와 당 기관들이 당원들을 료해하는 기본 목적이 그들을 교양하며 필요한 동지적 방조를 주려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원들의 사상 행동상 동태는 그들의 당 생활 과정에서, 혁명 임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내탐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당원들을 더 잘 알며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매개 당원들의 준비 정도와 개인적 품성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들을 당 사업에 적극 인입시켜야 한다. 이러함으로써 당적 위임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당적 문제 토의 과정에서, 당내 사상 투쟁 행정에서 그가 얼마나 당 조직 앞에서 성실하며 책임성이 높으며 당적 원칙성을 위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자체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생동한 지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당증 교환 사업 기간에 료해한 바에 의하면 평남도 증산군 당 단체에 소속된 약 20%에 해당한 당원들은 입당 이후 당 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당적 위임을 받아 본 일이 없었는바 이것은 군당 산하 일부 초급 당 단체들이 당원들과의 사업을 세밀히 조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당적 분공을 명확히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당원들에게 당적 위임을 주고 그의 실행 정형을 검열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방조를 주며 당적 위임 실행을 비판적으로 총화하는 등 이러한 행정이 없이는 당원들을 료해하거나 그들의 당성을 평가하지 못할 것이며 또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다수 경우에 피상적인 것으로 밖에 될 수 없다.

개별적 당원들과의 사업에서 핵심 당원들은 초급 당 단체의 기둥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이다.

당이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실천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초급 당 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그 핵심 구성의 질적 수준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당의 핵심 진지를 공고히 하는 사업은 우리 당 건설에서 계속 중요한 중심적 과업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조선 로동 계급이 자기의 혁명적 당을 가지지 못한채 8. 15 해방과 같은 위대한 대사변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당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자기 대렬을 급속히 확대 강화하지 않고서는 조선 혁명 앞에 제기된 모든 중하를 능히 감당해 나아 갈 수 없었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창건된 때로부터 불과 2—3년 동안에 벌써 수십만의 당원을 가진 대중적 정당으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적지 않은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10여 만의 당원을 자기 대렬 내에 망라하고 있다.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조직 로선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 내에는 당이 제기한 당면한 혁명 과업들에 대해서는 그를 능히 리해하고 지지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도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과 리론에 대한 의식적인 파악이 약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굴함 없이 계속 투쟁해 나아갈 사상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그러한 당원들이 부분적으로 망라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로동당 창건 당시에 《비록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현실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과업에 애국적 열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선봉적으로 참가하는 자들이라면 다 로동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이러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당 생활을 통하여,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맑스—레닌주의를 체득케 하며 당원의 사명이 다만 민주 건설을 완수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혁명 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데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교양 훈련하는 과업이 당 단체들에게 부과되여 있다.

당의 발전 행정은 바로 이렇게 되여 왔다. 민주 건설 시기에 입당한 일부 당원들이 그때에는 비록 사회주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다만 당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것 뿐이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이미 훌륭한 사회주의의 건설자로 장성 발전하였다. 이에 있어서 핵심 당원들은 항상 당원들의 선두에 서 있었으며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상적 및 실천적 모범으로 되였다. 핵심

당원이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해함에 있어서 또 그를 실천하는 투쟁에서의 적극성에 있어서 당원들의 일반 수준보다 높이 서 있는 그러한 당원을 의미하며 어떤 곤난한 환경 조건하에서도 항상 당을 신뢰하며 당 중앙 위원회에 충실하며 당적 원칙성을 고수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바치기에 준비된 그러한 당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핵심 당원에 대하여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 준비 정도 즉 당성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당 단체들이 핵심 당원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인 그들의 정치적 자질을 과소 평가하고 실무적 면에 치우침으로써 초급 당 단체 사업을 침체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한 경우에는 황남도 은률군 문성리 대지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에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불순한 자들과 아첨 분자, 관료주의 자들이 《핵심 당원》으로 자처하면서 당원들의 정당한 비판적 의견을 묵살하며 당성이 강한 당원들을 은근히 박해하는 사실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증 교환 사업 기간에 적지 않게 료해 시정되였는바 함남도 당 단체에서는 이 기간에 핵심이라고 의지했던 당원들 중에서 사상적으로 견실치 못 하거나 대중의 신망이 약한 자들을 핵심 구성에서 제외한 반면에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견실한 핵심 당원들을 새로 료해 장악하였다.

그러면 핵심 당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그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 및 비당원 대중 속에서 꾸준히 해석 침투시키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을 사랑하며 당 중앙 위원회를 적극 지지하며 당 정책을 옹호하며 그를 선전하며 집행하는 선진 투사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교양 훈련함에 있어서 당 단체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가 되여야 한다. 그들은 당 정책에 대하여 배후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며 말로써만 지지하고 실지 행동에서는 그를 외곡하며 당 결정 집행을 태공하는 등 당성 없는 현상들과 추호도 주저하거나 타협함이 없이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다음의 중요한 임무는 당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이는데 있다. 빈말은 없고 실천이 앞서는 것——이런 믿음직한 사업 작풍이 핵심 당원들의 당 생활에 일관되여야 한다. 당적 위임에 대한 성실한 태도, 그의 집행에서의 고도의 책임성, 당의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에 대한 자각적 준수, 당적 원칙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비타협성,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겸손한 사업 작풍을 항상 견지하는 당원은 누구나 다 핵심 당원이다.

당 단체의 임무는 이러한 핵심 당원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 공고화함으로써 당원들의 전반적 수준을 당 앞에 제기된 새로운 혁명적 과업의 요구에까지 이끌어 올리는데 있다. 이것이 자연 생장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은 명백하다.

이 사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다음의 두개 측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한 바 그것은 우선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당 위원회, 집행 위원회 등)들을 당성이 높은 가장 우수한 당원들로 구성함으로써 그의 활동에서 정치적 수준을 제고하며 개별적 당원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는 왕왕 이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적게 돌리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 금년 초에 진행된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 결산—선거 이후 평양 시당 위원회가 적지 않은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 구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부 당 단체에서는 엄중한 결함들이 발로되였다. 그것은 적지 않은 사무 기관 내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 구성에서 당원들의 직위, 그들이 사업하는 부서 등을 고려한다 하여 당 생활을 태공하며 정치 생활에서 결함이 많으며 국가 재산을 탐오 랑비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을 선거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당원들이 초급 당 단체 지도 기관 성원의 다수 또는 전부를 차지한 부분적 사실까지 있었다. 이러한 지도 기관들에서는 자기 활동에서 당성이 강한 핵심 당원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지 않으며 당원들과의 산 련계를 보전하지 못하며 당원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옳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단체 내부에 조성된 온갖 결함들을 묵과하며 비판을 억압하며 당 규률을 약화시키는 등 당 단체 사업 전반을 그릇되게 이끌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 기관 선거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발양되지 못하고 당원 대중의 신망이 높지 못한 자들의 부정확한 《복안》에 의하여 잘못 선거되는 현상을 결정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당 핵심 진지를 공고화하는 사업에서 다음의 중요한 고리는 초급 당 단체에 대한 시, 군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핵심 당원들에게 당 정책상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해설 침투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 관철시킴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능히 수행하도록 지도 방조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핵심 당원 강습을 어느 일정한 시기에 깜빠니야적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정상화해야 하며 체계화해야 한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핵심 당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초급 당 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도와 긴밀히 결부시켜 생동한 실제적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이 커다란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

때문에 시, 군 당 위원회의 지도를 초급 당 단체에 더욱 접근시키며 그 지도 사업에 핵심 당원들을 광범히 인입하여야 하며 당 사업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과 그들의 수준에 적응한 리론적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에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의 당성 단련의 기본 방법의 하나로서의 비판과 자기 비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급속히 장성됨에 반하여 자기의 마지막 지반을 상실하여 가는 자본주의와의 첨예한 대립 투쟁은 그것이 사회의 한 부분인 우리 당 내에 이런 또는 저런 형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으로 전 당이 통일 단결되였으나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 경제 생활 령역에서 소상품 경리가 최근까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화국 남반부에 반동이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 당의 력사가 아직 청소하고 당 대렬이 급속하게 장성된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당 내에는 비프로레타리아적 사상 요소들이 남아 있으며 우리 당을 내부로부터 약화 파괴하기 위한 적들의 비렬한 책동에 의하여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 영향이 당 내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비프로레타리아적 사상 요소들은 당 내에서 종파 행위, 지방주의적 관념, 개인 영웅주의, 개인 리기주의, 자유주의적 무규률성, 아첨, 맹종 등 일련의 비당적이며 불건실한 행동들을 발생케 하는 사상적 온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당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계속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소부르죠아 사상 요소와 부르죠아 사상 잔재들을 극복 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당내 사상 투쟁——이것은 혁명적 당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며 필연적인 합법칙적 현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상 투쟁의 기본 방법은 당원들 속에서의 솔직하고 량심적인 비판과 자기 비판이다.

당내 사상 투쟁, 즉 비판과 자기 비판은 당원들의 당성이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된다. 구체적 사실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비판과 자기 비판이 침체 상태에 처하여 있고 밑으로부터의 비판이 억제되는 그러한 부분적인 당 단체들에서 종파분자들이 일부 락후한 당원들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여 당 정책을 비방 외곡하면서 그의 실행을 방해하는 책동을 감행하였거나 기타 많은 결함들이 오래' 동안 폭로 비판되지 않고 엄폐되여 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 바와 같이 비판과 자기 비판이 활기 있게 전개되는 그러한 당 단체에서는 결코 사상상에 있어서 부화한 현상들이 조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당 내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사상 투쟁에 대한 옳은 지도를 보장하는데 있다.

사상 투쟁에 대한 지도——이것은 결코 비판과 자기 비판에 대한 어떤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상 투쟁에 대한 옳은 령도의 필요성은 이것이 당을 공고화하며 혁명 사업을 발전시키며 동지들과의 원칙적인 단결을 강화하는 건설적이며 혁명적인 정신으로써 일관되도록 옳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데 있다.

우리는 아직 당적 립장으로 보아 분명히 엄중한 결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 간부의 《위신》이나 그들의 《기분》, 그리고 한 직장, 한 조합에서 같이 일하는 《체면》 등에 구애되여 그 결함을 따끔하게 비판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겨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바 특히 일부 성, 중앙 기관, 교육 문화 기관들과 기타 지도적 기관 내 당 단체들과 농업 협동 조합 내 당 단체들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혁명적 당의 영예로운 당원으로서 항상 견지하여야 할 것은 오직 당적 원칙성이다.

기타의 모든 것은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개인의 《위신》 이나 《기분》, 《체면》들을 당의 리익의 우에다 놓을 수가 있겠는가! 간부들의 위신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의 위신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를 방임하여 그로하여금 더 큰 과오를 범하게 하는 것은 위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능히 구할 수 있는 동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요, 혁명 사업에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비판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일부 당원들은 비판에 대한 복쑤를 두려워서 하고 싶은 발언도 못 하는 사실들도 있다. 우선 당적 비판에 대한 복쑤적 태도를 취하는 당원의 비당적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이 두려워서 당적 량심을 굽히는 그러한 경향도 역시 정당치 않다. 당 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을 제때에 감촉하여 사상 투쟁에서 주저하는 당원들로 하여금 당적 리익을 위하여 더욱 대담하게 투쟁하도록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당내 사상 투쟁이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당적 원칙성을 고수하며 혁명 사업을 발전시키는 견지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기초하여 동지들을 중상하며 비방하는 극히 유해한 편향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동지들 간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당 사업 발전을 저애하기 때문에 엄격한 타격을 주어 제때에 시정하여야 한다.

일부 견실치 못한 당원들은 자기의 결함을 엄폐하며 자신을 당성이 강한 당원으로 보이기 위하여 충분한 리유와 근거도 없이 다른 당원의 사소한 결함을 과장하여 공격하며 한바탕 떠들어 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현상이 비록 많은 것은 아니라 할찌라도 당 단체들은 응당 주목을 돌려 제때에 그를 퇴치하여야 한다.

당내 사상 투쟁은 동지들의 결함을 진심으로 고쳐 주는 혁명적 우애심으로 충만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욕설이 아니라 당적 원칙에 립각하여 사리를 구명하며 당적 량심에 호소하여 그를 자극하며 비판 받는 동지로 하여금 자기를 깊히 반성하며 범한 과오를 절실히 뉘우치도록 참을성 있게 방조하는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종파 분자들과 일부 그의 추종자들은 당적 비판에 대한 바로 이러한 혁명적 정신을 거부하면서 《비판의 자유》라는 구실 밑에 당 정책을 비방하며 동지들을 중상하는 등 무원칙한 행동을 감행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의 리익, 당의 사상을 떠난 《비판의 자유》란 바로 소부르죠아 자유주의의 사상적 표현으로서 혁명적 정신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의 활발한 전개——이것은 중앙 집권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으며 비판과 자기 비판은 당 내에서 혁명적 규률을 강화하며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공고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

당 단체들과 당 기관들은 이러한 혁명적 정신을 조장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당내 사상 투쟁을 능숙하게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들의 정치 교양 사업 지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당원들의 당성 단련은 그들의 일정한 문화적 수준, 정치 리론적 준비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당에 대한 당원들의 충실성, 당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의 그들의 적극성——이것은 당원들의 정치적 자질을 론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 문제이다.

그러나 당원들의 이러한 정치적 자각성은 사회 발전 법칙, 계급 투쟁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지식으로 어느 정도 무장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보다 더 확고하고 목적 의식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업의 하나는 우리 당원들의 일반적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배움의 길을 박탈 당하였기 때문에 해방 전 그 때에는 절대 다수가 문맹 상태에 있었다. 해방 후 10여 년 동안에 그들에 대한 우리 당의 거대한 교양적 대책의 결과에 벌써 오래 전에 문맹은 기본적으로 퇴치되였고 근로자들 속에서 많은 간부들과 지식인들이 배출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 당원들을 사회 발전에 관한 선진 리론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부족하다. 아직 우리의 일부 당원들은 신문이나 기타 쉬운 출판물들을 원만히 읽고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 단체들은 이러한 당원들의 지식 정도를 높이도록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잘 조직하지 않고 있다.

당증 교환 사업 기간에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문

맹에 가까운 개별적 당원들에게 매일 일정한 량의 글을 읽고 쓰도록 과업을 주고 그들에 대한 개별 지도를 조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결과에 그들이 《정치 지식》이나 《농민 신문》같은 출판물들을 원만히 읽을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당 단체들이 문화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당원들에 대한 개별 지도 사업을 잘 조직만 한다면 그들을 짧은 기간 내에 자립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 하면 당원들의 학습에 있어서 기본 방법은 자립적인 독서이기 때문이다.

지금 적지 않은 당원들은 매주 1회씩 조직되는 당 학습회에 참가하는데 그치고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그를 더욱 확대 심화시키기 위한 진지한 자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지 않은 당원들 속에서는 학습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당 교양망 운영에 대한 옳은 지도를 보장하는 사업과 동시에 개별적 당원들의 자립적 학습 문제에 큰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이 어떤 서적을 선택하며 그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며 배운 지식을 실지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하여 항상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개별적 담화와 집체적인 토론 및 기타 방법으로 학습에 대한 당원들의 열성을 부단히 고무하여야 한다.

일부 지도적 지위에 있는 당원들은 사업이 바쁘다 하여 신문조차 제때에 읽지 않고 서적과는 오래'동안 인연을 끊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평범하게 간주하고 있는바 당 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을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학습에 대한 안일한 태도——이것은 비단 당원들의 리론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기 발발한 기풍 대신에 안일하고 라태한 정서 생활에 잠기게 하며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암둔한 실무주의자로 전락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간부들과 전체 당원들의 학습 문제를 당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심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을 항상 깊이 연구하도록 책임적으로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당 결정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만으로서는 아직 부족하다. 그들은 당 결정들이 옳게 집행되도록 대중 속에 해석 침투시키며 그의 실행을 조직하며 자신이 그 선두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당 정책에 대하여 형식적 태도를 취하면서 그를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으며 당 결정의 기본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를 외곡하는 등 현상들이 발로되지 않도록 당 정책 연구 사업을 가장 심중하게 조직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당원들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다시 보충적 대책을 강구하며 당 결정 실행 과정을 검열하고 실천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아 주는 등 방법으로서 교양 사업을 실천적 투쟁과 결부시키기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농업 협동 조합 내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사회주의적 의식 제고에 대하여 말로는 많이 강조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에 배치되는 일련의 편향과의 투쟁을 약하게 하고 있다. 례하면 비록 부분적이지만 로력일 평가에서 평균주의적 경향, 조합 관리 운영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의 위반, 조합 재산 관리에서 무책임성, 그에 대한 탐오 랑비 현상, 또는 조합의 로동을 기피하고 간상 행위, 밀주, 고리대 행위 등으로 착취 계급의 사상 잔재와 건달 습성 등이 발현되는데 대하여 강력한 투쟁이 부족한 그것이다. 당원들의 교양 사업은 반드시 그들의 실지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 정치 교양 사업이 매개 당원들을 당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하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당의 호소에 항상 민첩하게 호응하며 당 정책 실행을 위한 어떤 어려운 투쟁에 있어서도 동요할 줄 모르는 불굴의 혁명 투사로 육성 단련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3차 당 대회가 당 건설 분야에 제기한 기본적 과업들의 실행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각 분야에서 로동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며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원천

안 광 습

조국의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전망을 열어 주는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 문제가 지금 우리 혁명 실천의 일정에 오르고 있다.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공업 분야에서 《현대적 공장들을 더욱 많이 신설하며 기존 공장들을 개건함으로써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을 촉진》시킬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의 실천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창설하며 생산과 인민 복리의 부단한 장성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축성한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며 우리 나라를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선진 공업 국가에로 전변시키게 될 것이다.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에 있어서 자금 원천의 문제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공업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정 폰드의 급속한 갱신 확대를 위하여 공업에 대한 거액의 기본 건설 투자를 요구하며 따라서 인민 경제 축적의 규모는 공업화의 템포를 규정하는 제1차적 요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규모에서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며 기존 기업소들을 개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선 인민 경제에 있어서의 축적 발전의 템포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통제 수'자 예비안 토의에 있어서 축적 원천 확대를 위한 온갖 예비를 적발 리용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광범한 근로 대중들은 자기의 무궁무진한 창발적 제의들로써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 ❋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공업 복구 건설은 비록 장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단계에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공업 시설의 파괴가 혹심하여 복구 건설의 규모가 방대하였기 때문에 자금 확보의 분야에 있어서는 극히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전쟁 기간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야수적 만행으로 인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생산 시설들이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사회 문화 시설들과 주택들이 여지 없이 파괴되여 페허로 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인민 경제에서의 공업에 대한 피해는 더욱 혹심하였는바 그중에서도 복구에 더욱 많은 투자를 요하는 중공업이 특히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1953년에는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 전력 공업은 20%로, 연료 공업은 11%로, 야금 공업은 10%로, 화학 공업은 22%로 각각 감소되였으며 선철, 강철, 화학 비료, 세멘트 등을 비롯한 일련의 중요 제품들의 생산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였다.

이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 일방으로는 복구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의 자금 수요가 막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타방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 수입의 원천이 여지 없이 파괴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는 전쟁 전에 비하여 수배나 더 많이 요구되였는데 (1954년에 벌써 기본 건설 투자액은 1949년에 비하여 373%에 달하였다) 국민 소득은 1953년에 1949년에 비하여 69.3%에로 감소되였으며 국가 수입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공업 부문에서 그는 58.3%에로 감소되였다.

정전 직후에 소집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는 전후 공업 복구 건설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에 중요한 인민 경제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전

원 회의는 복구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지만 우리에게는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이 가능성을 현실적 축적에로 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면 방대한 규모의 복구 건설을 보장할 수 있는 자금 원천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 원천을 동원 리용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이였는가?

이 문제의 해명은 앞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원천과 그의 동원 방도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공업화에 있어서는 통례로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의 강화, 식민지 략탈, 침략적 전쟁 배상금, 노예적 차관 등의 자금 원천을 리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금 원천들은 모두 우리 나라 인민 정권의 성격과 우리 나라에서 작용하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우리의 자금 원천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공업 복구 건설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제 원칙에 부합되는 원천과 방법에 의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였는데 우리 나라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들을 가지게 되였다.

해방 전 조선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착취와 략탈로써 우리 나라 국민 소득의 대부분을 탈취하였다.

일제하 조선 내 총자본의 90% 이상을 장악하였던 일본인 소유 회사들에서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에게 기아 임금을 지불하고 략탈적 방법으로 자원을 리용함으로써 리윤률이 보통 30—40%로부터 때로는 100%를 초과하는 막대한 리윤을 차지하였으며 공업 부문에서 조성된 국민 소득의 압도적 부분을 탈취하였다. 일제는 매년 농민 소득의 많은 부분도 강탈하여 갔는바 1938년에 략탈적 헐값으로 일본에로 강탈하여 간 미곡만 하여도 1천만 석 이상에 달한다.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공화국에 있어서 그들이 매년 략탈하여 가던 막대한 재부는 이제 와서는 우리 나라의 산업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리용된다. 이것이 우선 우리가 자체의 내부 축적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첫째 조건으로 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내부 축적의 급속한 발전을 조건지어 주는 것은 국유화된 공업과 산림, 운수 및 대내외 상업 등이 우리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국유화된 공장, 제조소들은 비록 전쟁으로 인하여 심대한 피해를 당하였지만 사회주의적 경리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급속히 복구 발전하면서 그것이 우리 나라 내부 축적의 가장 강력한 기본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완전히 리용되는 이 기관들에서의 화폐 축적은 이미 매년 수 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토지 개혁의 결과에 일제와 지주의 이중적 착취로부터 해방된 농민 경리도 우리 나라 내부 축적의 급속한 발전을 조건지어 주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농민들은 일제 시대에 전 수확고의 50—90%의 현물 소작료와 략탈적 공출제 및 가렴잡세로써 착취 당하였다. 축소하여 발표된 일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4년에 북조선에서 수확된 총수확고 216만 톤 중에서 농민들은 130만 톤 이상을 강탈 당하였다. 이와 같은 착취로부터 해방되여 자기들의 소득이 부단히 장성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 대하여 혈연적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 국가적 축적 조성에 협력할 수 있다.

내부 축적의 강력한 발전을 보장하는 이상의 조건들과 아울러 전후 복구 건설에 있어서는 자금 문제 해결에서 또 하나의 아주 유리한 조건이 지어졌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받은 조선 인민의 생활이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번영하는 것을 념원하며 우리 나라 경제의 전면적 앙양을 달성시키려는 요망에 기초한 형제적 우방 국가들로부터의 막대한 무상 원조를 받게 된 것이 그것이다.

위대한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는 전후 복구 건설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방 국가들로부터의 진정한 원조의 특성은 그것이 비단 금액상으로 거액에 달한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생산력 발전에 적극적 기여를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내부 축적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력량으로 전화한다는 점에 있다.

이상의 제 조건에 상응하여 우리는 전후 공업 복구 건설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금 원천들을 리용할 수 있었다.

(1) 국영 공업 자체의 화폐 축적.
(2) 가격 기구를 통한 농업 및 기타 부문의 소득의 일부 리용.
(3) 조세에 의하여 국가 예산에 동원되는 자금.
(4)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자금 원천들을 동원 리용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 조건들을 정확하게 타산하면서 사회주의 축적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책들을 취하였다.

우리 당은 우선 모든 기업소들에서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당적, 전 인민적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전후에 소집된 일련의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에서 이 문제가 거듭 강조되였으며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가격, 재정, 신용 등 각 방면으로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 조치들이 취하여졌으며 반탐오, 반랑비 투쟁이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였다.

다음으로 축적된 자금을 리용하는 면에 있어서 높은 템포의 확대 재생산과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지출을 부단히 증가시키는 조건하에서 축적된 자금의 생산적 리용을 확보하는 방향이 견지되였다. 이는 부단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과 앞으로의 가일층의 륭성 발전을 위한 생산적 및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였다. 이 요구는 매년 축적 폰드와 소비 폰드간의 균형을 설정함에 있어서와 기본 건설 투자의 부문간 분배를 규정함에 있어서 심중하게 타산되였다.

비생산적 건설에 비하여 생산적 건설을 선행시키며 생산적 건설에서는 공업 부문, 특히는 중공업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투자의 분배가 실시되였다.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1949년의 69.9%로부터 3개년 계획 기간에는 73.1%에로 제고되였으며 이 기간에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의 67.8%는 공업 건설에 돌려졌으며 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의 81.2%가 중공업 부문에 집중되였다. 자금의 지출을 축적 원천의 확대와 밀접히 결부시키는 이와 같은 투자의 분배만이 축적 발전의 길을 개척하여 나아가며 앞으로 점차 자체의 내부 축적으로써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였다.

또한 우리 당은 전후 공업 복구 건설을 위한 자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공업과 경공업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중공업 건설에 요구되는 막대한 자금을 경공업 부문에서 얻도록 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는 공업 복구 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에 있어서 경공업의 중대한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킨 당의 로선은 전후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당의 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전후의 긴장된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의 실행 총화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이 취한 이 방책들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복구 건설을 위하여 국가는 계획에 예견되였던 것보다 18억 원을 초과하여 80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동시에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로임 인상, 물가 인하, 농산물 수매 가격 인상, 세금 감하 등의 시책에 수백억 원의 국가 자금을 지출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복구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자금 수요가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가 예산의 수입은 지출을 초과하였으며 화폐 류통은 강화되고 원의 구매력은 제고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생산의 장성, 로동 생산능률의 제고, 원가 저하에 기초하여 축적 원천은 급속하게 확대되였으며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 와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축적 원천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구축되였다.

❊ ❊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 서면서 자금 문제의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것은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가일층 전진시키기 위한, 특히는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를 계속 장성시키면서 지난 기간에 실시한 인민 생활 향상 시책의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출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더욱 축적 원천을 확대하며 그의 완전한 동원과 절약적 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선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욱 증대되는 투자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고 우리 나라를 선진 공업 국가에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업소들의 복구 개건과 많은 기업소들의 신설에 거액의 자금을 투하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연료, 동력 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에서 더욱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제 시책을 실시한 결과에 소비 폰드에 대한 년간 지출의 규모는 현저하게 증대되였으며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배급제의 페지 및 초중 의무 교육제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 수요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부단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수요도 계속 장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금 수요가 증대되는 한편 자금 원천의 면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 우리는 매개 자금 원천의 동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자금 원천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떠한 자금 원천들을 동원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고찰하기로 하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기간에 있어서 공업 복구 건설에 복무한 자금 원천은 국영 공업 자체의 화페 축적, 가격 기구를 통한 농업 및 기타 부문의 소득의 리용, 조세에 의하여 국가 예산에 동원되는 자금, 형제적 우방 국가들의 무상 원조 등이였다.

국영 공업 부문은 사회주의적 경리가 가장 철저하게 실시되며 그의 우월성이 가장 뚜렷하게 발현될 수 있는 부문으로서 이 부문에서의 화페 축적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가 저하에 기초하여 매년 현저하게 장성하고 있다.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주요 공업 제품들의 원가는 현저하게 저하되였는데 례를 들어 전력은 37%, 아연 정광은 20%, 벽돌은 26%, 면직물은 41%로 각각 그의 원가가 저하되였다. 그리하여 공업 부문 자체의 화페 축적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또한 가장 강력하게 발전하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가격 기구를 통한 자금의 리용에 관하여 말한다면 공업 제품 가격의 체계적 인하와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에 의하여 전후 년간에 공업 제품의 가격과 농산물 가격간의 호상 관계는 농민측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이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 소매 물가 지'수는 1953년을 100으로 하여 1956년에는 54.8에로 저하된 반면에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 가격이 현저하게 인상되였으며 비료와 량곡간의 교역 비률도 농민측에 유리하게 개정되였다. 이는 가격 기구를 통한 농민들의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 나라에서 소위 협상 가격차는 공업화 자금 원천으로서의 의의를 점차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주민들로부터의 조세 수입은 국가 재정 수입 원천 중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는 특히 전후 년간에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 국가 예산에 있어서 조세 수입은 매년 감소되였다. 근년에 실시된 농업 현물세률의 감하와 고정 현물세제의 실시, 소득세 및 지방 자치세 세률의 감하로 인하여 광범한 계층들의 주민의 조세 부담이 경감되였다. 이리하여 국가 예산에 있어서 농업 현물세를 포함한 주민들로부터의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4년에 13.4%(실적)를 차지하였는데 1957년에는 6.1%로 예견되였으며 절대액에 있어서도 그는 120억 8천 4백만 원으로부터 59억 3천만 원에로 감소되고 있다.

형제적 우방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는 전쟁 피해로 인한 상처를 급속히 회복하며 복구의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정전 후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나라에 제공되고 있다. 쏘련으로부터의 10억 루블리, 중국으로부터의 구 인민페 8만억 원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이 약속한 무상 원조는 벌써 3개년 계획 기간에 그의 대부분이 제공되였다. 그리하여 대외 원조 수입은 앞으로 현저하게 감소된다.

다음에 표시하는 국가 예산 수입 구성에 관한 표는 전후 년간에 있어서의 국가 재정 수입 원천의 동태를 보여 준다.

	1954년 (실적)	1955년 (실적)	1956년 (예비적 결산)	1957년 (계획)
사회주의적 경리로부터의 수입	86.6*	69.1	75.0	79.5
대외 원조 수입		21.7	16.1	14.4
주민으로부터의 조세 수입	13.4	9.2	8.9	6.1
계	100.0	100.0	100.0	100.0

※ 1954년 국가 예산 수입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리로부터의 수입과 대외 원조 수입을 합하여 예산 수입 총액의 86.6%에 해당한다.

국가 예산 수입 구성의 변동에 관한 이 자료는 전후 년간에 있어서 우리 나라 재정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실시하는 공업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공업화에 있어서는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소비 폰드를 부단히 증가시키며 로농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민측의 부담을 계속 경감시키면서 자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요구인 동시에 공업화의 강력한 발전을 위한 시장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업화는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위한 소비 폰드의 부단한 장성을 수반하면서 수행되는 사회주의 축적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한다. 이 합법칙성을 반영하는 우리 당의 재정 경제 정책의 실시는 앞으로도 계속 국가 축적 조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가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리용하여 온 자금 원천 중에서 오직 국영 생산 부문에서의 화페 축적만이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적극적 자금 원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이상에서 우리는 국영 생산 부문의 기업소 기관들에서 화페 축적을 부단히 증가시킴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을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면 국영 생산 부문에서 화페 축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 생산물의 원가를 저하시켜야 하며 또한 건설 원가를 저하시켜야 한다. 여기로부터 《투자의 원천을 원가 저하에서》라는 우리의 구호가 흘러 나오며 현 시기에 있어서 원가 저하를 위한 예비의 적발과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이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물의 원가 저하는 사회주의적 기업소의 내부 축적 형성의 원천이며 상품 가격 인하의 기초이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계통적으로 제고함에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부문에서 원가 저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의 기초 우에서 근로 대중의 의식적 투쟁의 결과에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생산과 건설의 규모가 방대하니만큼 매 단위 생산물 생산에서 달성되는 사소한 절약도 방대한 건설을 보장할 수 있는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원가 1%의 저하는 약 32억 원의 리득을 주게 될 것이며 건설 원가의 1%의 저하는 약 10억 원의 리득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면 5개년 계획 기간에 실시할 투자액의 많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원가 저하의 요점은 결국 생산과 건설에 있어서 산 로동과 체화 로동의 지출을 절약하는데 있지만 원가 저하의 구체적 방도는 아주 다종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경제적 제 조건에 따라 각이하다. 그러므로 원가 저하를 위한 예비를 탐색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소의 구체적 사업 조건들과 원가 구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선진 기업소들의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현 시기에 있어서 공업 생산물 원가 저하의 기본 방도는 생산에 있어서 로력 조직을 일층 개선하며 선진 기술 및 창의 고안을 광범히 도입 적용하며 작업 과정의 가능한 기계화를 실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켜야 하며 단위당 제품에 대한 원료, 자재, 연료, 전력의 소비를 저하시키며 현존 생산 면적 및 현존 생산 설비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건설 원가 저하의 기본 방도는 우선 설계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설계에서 허식을 제거하고 유효 면

적과 공간의 합리적 리용을 보장하며 설계 문건을 건설 현장에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설계에서 건설 원가 저하를 위한 온갖 예비를 적발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오작 시공과 반복 시공을 퇴치하여 로력과 자재의 랑비를 방지하며 건설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 지출 기준을 적극 축감시키고 특히 지방 자재를 광범히 동원 리용하며 건설 자재의 공급 및 준비 사업을 개선하여 공정 진행을 원만하게 보장하며 조립식 건설을 적극 도입하고 건설의 공업화를 촉진시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지금 5개년 계획 예비안 토의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애국적 근로자들은 공업 및 건설 원가 저하를 위한 예비를 적발 리용할 데 대한 수 많은 창발적 제의들을 내 놓고 있다.

우선 기술 공정을 개선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킬 데 대한 창의 고안들이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흥남 비료 공장 종업원들은 류안 생산 부문에서 현존 배소로를 비등식 배소로로 개조함으로써 이에서 절약된 자금과 로력으로 암모니야 계통 시설의 복구 공사를 촉진시켜 질안 비료는 1959년에 예비안보다 1만 6천 톤을, 류안 비료는 1959년에 3만 톤, 1961년에는 5만 톤을 각각 증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김 책 제철소 종업원들은 주로 용광로의 사고 방지와 로 조작의 기술적 개선에 의하여 5개년간에 예비안보다 5만 5천 톤의 선철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원자재, 연료, 보조 자재 등의 지출에서도 막대한 절약 예비들이 적발되고 있는바 원가 구성에서 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포 유리 공장에서는 종전에 수입탄을 로에 쓰던 것을 래년 3.4 분기부터는 전'적으로 국내 무연탄으로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예비안보다 5억 4천 9백 60만 원의 생산비를 더 절약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룡문 탄광과 룡등 탄광 종업원들은 석탄 생산비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갱목을 절약하기 위하여 콩크리트 아취와 대용 지주를 광범히 도입할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룡문 탄광에서는 예비안보다 9백만 원의 생산비를 더 절약할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룡등 탄광에서는 4천 3백 여 만 원의 생산비를 더 절약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평양 방직 공장에서는 현존 생산 면적과 설비 리용률 제고에 큰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바 방직 공장 종업원들은 현존 생산 면적에 예비안보다 1만 추의 면방추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제기하고 있으며 직포 공장 종업원들은 1961년에 가서 설비 리용률을 1957년 계획보다 10.1% 높이며 직포공들의 담당 대수를 현재의 11 대로부터 18.3 대로 높이므로써 예비안에 예견된 것보다 386만 9천 메터의 면직물을 더 생산할 것이며 평양 방직 공장 전체로서 5개년간에 총생산물의 원가는 예비안에 예견된 것보다 약 2억 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건설 부문의 모든 기업소들에서도 조립식 시공과 작업의 기계화를 확대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건설 자재를 절약하며 대용 자재 및 지방 자재를 적극 리용하며 설계에서 예비를 적발하여 건설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창발적 제의들이 광범히 제기되고 있다. 독로강 발전소 건설 트레스트에서는 종업원들의 창발적 제의들을 종합 검토하고 5개년 계획 기간에 건설비를 6억 2천 329만 원 절약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5개년 계획 예비안 토의를 진행하면서 생산 및 건설 원가 저하를 위한 예비 적발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는 거대하다. 그러나 원가 저하의 방도가 다양하며 근로자들의 창발성은 무궁무진하니만큼 성과에 자만하지 말며 대중의 지혜를 적극 동원하여 증산과 절약 예비를 계속 더 많이 찾아 내야 한다.

우리가 일단 원가 저하 예비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 리용하여 현실적 축적에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모든 기업소들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수립하고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기업소의 기술 생산 재정 계획의 체계를 확고하게 수립하고 쩨흐 독립 채산제를 광범히 도입하며 기업소 사업의 량적 및 질적 지표 수행에 대한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 운동을 더욱 활발히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원가의 계통적 저하를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은 사회주의 경제의 거대한 우월성에 대한 명백한 표현이다. 원가 저하를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도상에서 우리의 전진 속도를 촉진시켜야 한다.

※ ※

3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우리 인민 경제에는 새로운 조건들이 조성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업화를 위한 새로운 자금 원천들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전후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제 시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화폐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되였으며 물가는 현저하게 인하되여 주민들의 구매 능력 있는 수요가 급속히 장성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은 1956년 12월에 1953년 동기에 비하여 2.1 배로 장성하였으며 농민들에 대한 수매 자금 방출의 증가도 거액에 달하고 있다. 1957년에 로임 인상, 종업원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국가 및 협동 단체 기업소 기관에서 지출하게 될 로임은 1956년에 비하여 약 100억 원이 더 증가될 것이며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 식량 배급 기준의 증가, 식료품 공업의 장성 등과 관련하여 농민들에 대한 수매 자금의 지출은 80 여 억 원이 더 증가될 것이다. 한편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물가는 1956년에 1953년에 비하여 45.2% 저하되였다.

주민의 화폐 수입이 현저하게 장성된 조건하에서 물가와 화폐 류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국가 재정의 견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공업 생산과 상품 류통을 급속히 발전시켜 상품 공급을 구매 능력 있는 수요에 적응시켜야 한다.

이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조건인 동시에 사회주의 축적에 유리하게 국가 수중에 자금을 동원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조건으로 된다.

자체의 내부 축적의 급속한 장성에 의거하여 계통적인 가격 인하를 통하여 시장 용량을 부단히 확대하면서 강력하게 발전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업 발전의 기본 특징의 하나이다. 지금 확대된 시장 용량은 우리 공업의 가일층의 새로운 앙양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재정과 경제와의 새로운 균형을 보장하는 객관적 요구로 되고 있다.

경공업은 일반적으로 투자가 적게 요구되며 건설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자금의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축적의 조성이 비교적 용이한데 지금 우리의 경공업은 특히 적은 투자로써 생산을 현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 면적과 설비 리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지방적 원료 원천을 더 많이 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사장되여 온 수공업적 설비, 기계, 기구 등을 리용하여 상품 생산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매개 공업 기업소들에서 부산물 직장을 조직하고 각종 일용 소비품을 추가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필수품을 더 많이 공급하는 동시에 국가 축적을 증대시켜야 한다.

물질적 생산의 령역에서 조성된 화폐 축적은 류통 부문에서 상품 판매 수입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에서의 상품 류통의 조직 여하는 우리의 경공업과 나아가서는 중공업에서의 화폐 축적의 실현 및 국가 예산 수입의 속도와 크기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업 부문 일'군들 앞에는 주민들의 상품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조직하고 상업망의 분포를 소비자에게 접근시키며 상품 배정을 개선하며 간상배, 투기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 수입을 원만하게 보장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축적의 실현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품 류통 속도를 제고하며 류통비를 계속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주민의 모든 계층들에서 소득이 현저하게 장성함에 따라 주민들의 저축 사업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1957년 5월 말 현재 각종 저금 기관들의 개인 저금 잔고는 1956년 말에 비하여 133.6%로 장성하였는데 이는 현 시기에 있어서 주민들의 저축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최근에 당과 정부는 주민들의 저축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 저금 기관의 망과 저금의 종류가 확대되였으며 저금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도모하게 되였다.

주민의 저축 사업은 개인의 리익과 국가의 리익을 결합시키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가장 대중적 사업의 하나인만큼 주민의 모든 계층들 속에서 저축 운동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 공업화 자금의 새로운 원천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외화 획득 및 그의 철저한 절약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외국의 무상 원조가 현저히 감소되는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의 외화 발란스는 상당한 정도의 긴장성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형으로 보아 이 긴장성의 완화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써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외 수출에 의한 외화를 더 많이 획득하며 그를 철저히 절약함으로써 외화 수지 균형을 유지하며 그의 발란스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현 시기에 있어서 외화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는바 그것은 국내에서 도달된 기술 수준보다 앞서서 선진 기계 기술을 생산에 도입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아직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난하거나 또는 국내 수요가 비교적 적은 생산물 생산을 위한 거액의 투자 부담을 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여 온 외화의 감소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외화 원천을 적극 탐구 개발하여 외화를 백방으로 증대시키며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여 외화 절약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이미 외화 증대와 외화 절약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례를 들어 곡물, 천, 화학 비료, 석탄 등의 국내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이 물품들의 수입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고 있으며 각종 광물, 쎄멘트, 카바이드, 인삼, 담배, 과실, 수산물 등 수출 자원들의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외화 원천을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 계획의 작성과 무역 사업의 조직을 가일층 개선하여 모든 가능한 외화 원천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촉진시킬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축적의 온갖 예비를 적발하고 축적 원천을 부단히 확대하며 축적된 자금을 가장 절약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축적된 자금을 절약적으로 리용함에 있어서 현존 생산 면적과 현존 생산 설비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투자의 분산성을 방지하고 기술 건설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가 수행하는 공업화 방법의 우월성이 공업화를 위한 축적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준다.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 원천을 부단히 확대하여 나가는데 사회주의 축적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 내포되여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축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증산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 확대 재생산의 템포를 높여야 한다.

당의 호소에 고무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궐기한 근로 대중의 창발적 로력은 지난 기간에 복구 건설의 자금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다. 1957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대한 상반년 총화에서 각 부문 근로자들은 자기의 생산 과제와 축적 과제를 넘쳐 실행하였는데 이는 5개년 계획을 완수하며 초과 완수할데 대한 첫 시위로 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정확한 결산 분배 사업

원 광 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결산 분배 사업은 조합의 년간 사업에 대한 결산 총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공동 로동에서 이룩한 현물과 현금의 정확한 분배의 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농업 협동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퇴치 시정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전진하기 위한 협동 경리 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옳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농업 협동 조합들의 년간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결산 총화하는 동시에 수입 분배의 정확성을 기하며 그를 옳게 지도 보장하는 문제는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한 중요 조건의 하나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수입 분배는 조합원들이 지출한 로동의 질과 량에 기초한 로력일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공동 로동으로 실현된 생산물을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리해 관계를 규정하며 조합원들의 개별적 리해 관계를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고 조합의 생산 발전을 자극한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농업 협동 경리의 조직 경제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각급 당 단체들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동과 분배에 대한 사회주의적 원칙을 확립하며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갖 평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적 경리에 속하는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등급별 작업 정량에 의하여 로동을 실시하며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하여 로력일을 계산 통제하며 로력일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제도를 확립하며, 평균주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조합원들 속에서의 공동 로동에 대한 기피와 무책임성 및 생산 의욕의 저하 등 온갖 부정적 현상을 퇴치 시정하는 방향에서 정확한 결산 분배 사업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은 당의 정확한 지도 원칙에 립각하여 로동과 분배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바 이 분야에서 거대한 진전을 보고 있다. 적지 않은 협동 조합들은 사회주의적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그 길에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당의 지도하에 지난해 결산 분배 사업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정확히 실천 보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의 경험은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이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의 공동 경리를 조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조합들에서는 수입 분배에서 평균주의적 방법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로동에서 무규률적이고 무질서한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면 어째서 일부 조합들이 수입 분배에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현하지 못하였는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의 실현은 대체로 조합원들이 지출한 로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로동의 척도이며 수입 분배의 도구로 되는 로력일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크게 달려 있다.

로력일——이는 집체적 경리, 집체적, 공동적 소유 형태에 의하여 산생된 경제적 범주이다.

그런데 로력일은 조합의 수입을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로동 지출을 동일한 단위로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로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해 로동 지불을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러므로 이 척도를 정확히 리용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확한 로동의 평가에 의한 로력일 계산은 조합

원들의 리해 관계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의 실현은 농업 협동 경리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그러나 이 무기(로력일)를 옳게 리용하지 못하는 조합들에서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력일을 옳게 리용하는 문제는 지도 및 관리 일'군들에 의하여 이것이 정확하게 인식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부문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로력일이 협동 조합 수입 분배의 도구로서 공동 경리에서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며 공동 경리 발전 및 수입의 장성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리 형태인 농업 협동 경리를 지도하고 있다.

그러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정확한 수입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로력일을 계획화하여야 하며, 둘째로 도급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며, 세째로 비생산 로력일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로력일을 계획화하는 조건하에서만 조합원들의 로동을 로력일로서 통제할 수 있다. 로력일의 계획화, 그의 정확한 실현은 로동 지불을 통제하며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로력의 예비 원천을 탐구하여 경리를 확장하며 나아가서는 전체 공동 경리 발전을 촉진시킨다.

여기에는 작업 계획, 로력일 투하 계획들이 포함되여야 하며 매개 생산 단위인 작업반의 생산 과제에 해당한 로력일 투하 계획을 규정하여야 한다.

로력일 투하 계획의 실현은 도급제를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보장된다.

도급제는 공동 로동에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해 로력일을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지어 준다. 도급제는 그 적용 여하에 따라서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정확한 로력일 계산을 보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개인 도급제는 정확하며 그루빠 도급제도 비교적 정확하다.

제정된 작업 정량에 근거하여 도급제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는 데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작업반 간에 로력일 지출이 불균등하게 되여 같은 작업을 같은 량으로 수행하고도 작업반에 따라 조합원들의 로력일 수득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정확한 결산 분배 사업의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에 참가한 로동을 정확히 평가 계산하는 문제와 아울러 비생산 로력일을 최소 한도까지 축소하는 문제이다.

당은 이미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관리 기구를 축소하고 조합 생산과 관련이 없는 비생산 로력일을 지출하지 않을 데 대하여 루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 조합들에서는 조합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생산 로력일을 계속 지출하고 있으며 일부 농촌 당 단체들은 이에 대하여 강한 통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비생산 로력일이 수입 분배와 조합 발전에 주는 영향은 심대하다. 지난해 수입 분배의 경험에 의하면 비생산 로력일 지출은 각 도별로 심한 차이를 가져 왔는바 도'적으로 평균하여 그 최저가 총투하 로력일의 5%이고 최고가 10.4%에 달하였다. 이 사실은 비생산 로력일을 현저한 정도로 축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바로 평남도가 지난해 10.4%의 비생산 로력일을 지출하였는바 그중 관리 일'군들의 보수는 4% 내외이다. 그외 5—6%는 지출할 수 없는 로력일을 지출한 것으로 되는바 우리는 여기에서 5—6%의 로력일은 수입 분배시에 조합원들의 분배 폰드 중에서 떼여 내였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비생산 로력일 지출을 축소하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시 군당 단체들의 통제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 평남도 강남군, 중화군을 비롯한 도 내의 많은 군들에서는 아직도 써클 연습을 비롯한 비생산 부문에 계속 막대한 로력일을 지출하고 있는바 이는 군당 단체들이 비생산 로력일 지출에 대한 통제를 불만족하게 진행하는 데서 발로된 현상들이다.

지난해 강원도 내 일부 조합들의 경험에 의하면 회양군 내 신흥 금천 협동 조합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협동 조합 내 초급 당 단체 위원장들은 150 로력일 이상을 수득하면서 당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였는데 철원군 내 부흥, 봉대, 용서 협동 조합을 비롯한 군내 대부분의 조합 초급 당 단체 위원장들은 당 사업을 불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조합 로동에는 하루도 참가하지 않고 비생산 로력일을 받았다. 이것은 조합 내 당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비생산 로력일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면 비생산 로력일 지출을 최소 한도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분배에 대한 사회주의적 원칙의 위반은 조합 발전과 수입 분배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로력 평가면에서의 부정확성과 비생산 로력일 지출은 수입 분배면에서 직접적으로 조합원들 호상간의 수입의 부정확성을 야기시키며,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마비시켜 생산 수입을 저하시킴으로써 수입 분배에서 로력일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로력일당 분배량을 적게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수입 분배 문제는 직접 조합원들의 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며 로동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분배가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조합들에서의 수입 분배 사업은 조합원들의 년간 로동 과정을 분석하고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

금년도 농업 협동 조합들의 수입 분배 사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동 축적 폰드와 분배 폰드의 구성 비률이 례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 예견되는 점이다.

1955년과 1956년도 농업 협동 조합들의 수입 분배 구성 비률은 다음과 같다.

	1955년 (%)	1956년 (%)	1955년 대비(%)
알곡 총수확고	100	100	
국가의 수납분	31.7	25.0	78.1
생산용 폰드	7.0	8.3	118.5
기타 지출	3.5	0.9	66.0
공동 축적, 사회 문화 폰드	3.9	4.0	102.0
분배 폰드	53.9	61.8	114.6

이상의 통계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난해 수입 분배에서 특징적인 것은 분배 폰드가 총수확을 100으로 할 때 1955년에 비하여 높아진 점이다. 이것은 고정 현물세제의 실시와 생산 수확고의 증대로 협동 조합들의 수입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과 관련되여 있다. 금년도에도 역시 분배 폰드의 비률은 여전히 높아 질 것이 예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공동 축적 폰드가 거대한 비률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는 점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공동 축적의 점차적 증가의 필요성은 조합 경제 발전의 요구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5년 12월 전원 회의는 조합 공동 재산 장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공동 재산은 협동적 사회주의적 소유로서 조합의 물질적 토대이며 조합의 부단한 확대 재생산과 조합원들의 생활을 보다 급속하게 향상시키는 경제적 원천이다. … 그러므로 매개 조합원들은 공동 재산의 부단한 증가를 위하여 로력하여야 하며 공동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가 부여되여 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지난 기간에 공동 재산을 적지 않게 축적하였다. 지난해 수입 분배 결산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조합 공동 재산으로서 총재산이 298억 3,798만 원인데 그중 고정 기금(공동 축적 폰드)이 93억 2,919만 원이고 사회 문화 폰드가 15억 3,247만 원, 류동 기금(종자, 사료 등을 비롯한 생산비) 111억 1,184만 원으로 되여 있다. 이는 매 조합원 호당 39,600 원에 해당되는 재산이다.

그런데 이 재산은 1955년도 농업 협동 조합 총수입의 3.9%와 1956년도의 4.0%를 축적한 재산이다. 이 축적은 농업 협동 조합 기준 규약(조합 <제3형태>는 순 수입 중에서 10—15%의 공동 축적 폰드와 2—3%의 사회 문화 폰드를 조성한다)에 의한다면 극히 적은 축적이다. 이와 같이 지난 기간에 공동 재산을 적게 축적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생활 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분배 폰드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금년의 사정은 다르게 예견된다. 우선 조합들에서 공동 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농업 협동 조합들의 5개년 발전 전망 계획과 관련하여 방대한 농촌 건설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15,000 여 개의 조합 중 고정 유치원을 가진 조합은 387 개소, 고정 탁아소를 가진 조합은 675 개소에 불과하며 또 대부분의 조합들은 생산용 시설들과 문화 시설들을 시급히 건설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금년도 수입 분배 사업에서 공동 축적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함에 있어서 정확한 지도가 요구되는바 우선 5개년 발전 전망 계획에 예견된 조합 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년도 별로 잘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공동 축적 및 사회 문화 폰드와

분배 폰드가 정확하게 규정되도록 지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정확한 결산 총화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복잡한 실무적 과업이 동반하게 된다. 물론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수차에 걸친 결산 총화 사업의 집중적 지도는 많은 농촌 지도 일'군 및 관리 일'군들을 정치 및 실무적으로 교양 훈련하였다. 그러나 새로 조직된 조합들이 많고 아직 조직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한 조합들이 많은 조건들은 금년도 결산 총화 사업에서도 여전히 철저한 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확한 결산 총화 사업을 위하여서는 충분한 준비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총화는 정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결산 총화 준비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합원들의 공동 로동으로 이루어 진 생산물 총량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문제이다.

수입을 확정하는 사업은 추수, 탈곡 사업을 조직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지난 시기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추수 사업을 적기에 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여 막대한 수확의 감소를 초래하였는바 추수 사업은 우선 적기를 옳게 타산하고 작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특히 벼추수와 같이 작업량이 많고 단시일 내에 그를 수행하여야 할 작물들에서는 그 손해가 더욱 크게 된다. 탈곡 사업도 추수 사업에 못지 않게 시기성을 요구하며 결산 분배 사업과 관련되여 있다. 지난 해에 적지 않은 조합들은 탈곡을 제때에 끝내지 못하여 년내로 수입 분배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새해의 계획 작성과 영농 준비 사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였던 것이다.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는 탈곡의 시기를 보장한다 하여 되는 대로 탈곡함으로써 결산 총화 후 재탈곡을 한 사실까지 있었다. 탈곡 작업과 병행하여 특히 류의하여야 할 문제는 매일 탈곡된 곡물을 당일로 계량하여 입고시키든가 혹은 작업반장에게 정확히 보관시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철저한 확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데로부터 지난 해에 일부 조합들에서 적지 않게 곡물을 도난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 소재조차 규명하기 곤난한바 있었다. 탈곡 작업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물질적 우대 및 보상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조합 작업반 별로 탈곡 사업을 조직하며 수확량도 반 별로 정확히 확인하는 그것이다.

현물 수입의 확정 사업과 관련하여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국가 표창 사업을 위한 생산의 정확한 확인 사업이다. 이 사업에 있어서 일부 도,시,군들에서 극히 무책임하게 사업을 조직한 관계로 지난 해 국가 표창 사업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켰다. 수훈자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표창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작물의 면적과 그의 생산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방 정권 기관들이 수훈 대상으로 예견되는 조합들로부터 추수, 탈곡을 진행하기 전에 신고를 받고 심사 기관의 립회하에 추수,탈곡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추수,탈곡 사업은 생산된 곡물을 정확히 수획함과 아울러 물질적 우대 및 보상제,국가 표창 수훈 사업,모범 농업 협동 조합 칭호 수여 사업 등을 정확하게 보장하는 것과도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결산 총화 준비 사업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조합 공동 재산과 생산물 및 현금에 대한 일부 불순 분자들의 략취 탐오 랑비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를 근절시키는 문제이다.

농업 협동 조합 기준 규약에는 《조합 및 국가 재산에 대한 략취 또는 랑비와 국가 농기계에 대한 해독 행위는 조합 공동 사업에 대한 반역이며 인민의 적들에게 방조를 준 것으로써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조합들에서 탐오 랑비 략취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합 재산의 탐오 랑비 절취 현상의 그 대부분이 락후한 조합원들과 일부 관리 일'군들에 의하여 발로되고 있다.

례컨대 안악군 대추리 광성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과 부기원은 지난 결산기를 전후로 하여 44만 6천 여 원의 조합 재산을 절취 랑비하였다.

공동 재산의 절취 랑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행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는 문건이나 증빈 서류의 위조와 장부 기장의 루락,모리 간상배와의 결탁 등으로 현금을 략취하며 현물에 있어서는 곡물을 탈곡하여 입고 당시 수량 계산을 위조하든가 분배 폰드를 다 분배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략취하는 등등으로 감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입 분배 사업 지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합 검사 위원회로 하여금 이상과 같은 점들을 정확히 검열하여 조합 재산 침해 현상을 철저히 적발 폭로케 하는 문제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 분배에서 로력일이 노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결산 총화 준비 사업에서는 지출된 로력일을 정확히 확정하여 정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관리 위원회는 우선 작업 수행 및 로력일 계산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매 작업반 별로 년간 총투하 로력일 계획 대 실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로력일 투하 계획이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한 조합들에서는 계획을 초과하여 로력일을 투하한 작업반에 대하여는 작업 과정에서 자연 조건을 비롯한 변동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토대 우에서 로력일 삭감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로력일 확정과 관련하여 당 단체들이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비생산 부문 로력일 지출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조합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비생산 부문 로력일 지출에 대하여서는 리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당이 제시한 방향에서 (당 결정 지시,국가 규정) 한 걸음의 양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지방들에서는 지출된 비생산 로력일을 조합원들 간에 호상 상쇄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규정, 지시에 어긋나며 조합원들의 리해 관계에 저촉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점은 시정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 및 사회적 로력 동원에 한해서 지출된 로력일을 호상 상쇄하는 것은 수입 분배에서 조합원들 호상간의 리해 관계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생산에 투하된 로력일을 곡종별,경영 부문별로 산출함으로써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게 하며 조합 경영 활동을 정확히 분석케 함으로써 새로운 예비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로력일을 확정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점은 관리 일'군 및 작업반장들의 로력 보수를 정확히 지불하는 문제이다. 관리 일'군들의 보수는 규정에 립각하여 정확하게 지불되여야 하되 직접 생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 로력일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로력일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 일'군 및 작업반장들의 로력 보수는 그가 열성껏 일하지 않았을 때에는 총회에서 토의하고 규정된 보수를 다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개 조합원들에 대한 로력일 확정은 관리 위원회에서 계산 정리된 매개인별 로력 일수를 각 작업반에 넘겨 반원들의 토의에 부친 다음 그 정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의 경험에 의하면 일부 불순한 작업반장이나 통계원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 혹은 안면 관계로 로력일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적지 않게 발로되였으며 또한 로력일의 계산 착오로 부당하게 지불된 사실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리 위원회나 검사 위원회만으로서는 적발하기 곤난하다. 그것은 작업반 내 성원들의 대중적 토의에 부침으로써만 적발 폭로될 수 있다.

결산 총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전체 조합원들에게 국가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의 사회주의적 호상 관계를 철저히 인식시키는 문제이다. 지난 기간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거대한 방조와 혜택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무원칙하게 국가의 배려에만 의존하면서 자체 로력을 게을리 하는 그릇된 경향들이 발로되였다. 이와 같은 경향들로부터 출발하여 일부 조합들은 국가를 기만하거나 국가 의무를 충실히 집행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례를 들어 지난 해에 함남도 내 일부 조합들은 국가 현물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수확고를 기만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질이 좋지 못한 현물을 국가에 납부하려는 불충실성을 발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합원들의 계급 의식이 제고되지 못하고 조합 내 당 단체들이 이와 같은 경향들과의 투쟁을 미약하게 전개한 데로부터 산생된 부정적 현상들이다. 금년도의 결산 총화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국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데 대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옳은 교양을 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여야 할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결산 총화 사업은 조합들의 1 년간 경제 활동을 분석하고 조합원들의 공동 로동으로 이룩한 생산 수입을 총화하여 그를 분배할 뿐만 아니라 새 경제 년도의 생산 활동 방향을 규정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실무적 과정이 요구되는바 그것은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하는 문제이다. 결산서에는 지난해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가 전부 반영되여야 하는바 그것은 군 인민 위원회의 비준이 있음으로써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총

회에서 결산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군 인민 위원회가 결산서를 정확히 검토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 결산의 정확성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군 인민 위원회는 결산서를 비준함에 있어서 우선 이 사업을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한 결산 총화 사업 지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군내 조합들의 결산 총화 회의 진행 계획표를 군적으로 작성한 다음 이 계획에 근거하여 조합들의 총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비준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서 검토에서 특히 다음의 문제들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생산 계획 수행 대 실적을 검토하고 오는 해 생산 예비를 조합별, 또는 군'적으로 예견할 자료를 얻어 내는 동시에 생산 분야에서 매개 조합들의 결함을 적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로력일 투하 계획 대 실적을 검토하고 특히 비생산 로력일 지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로력일 지출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군 내의 대표적인 우수한 조합의 부문별 단위당 로력일 투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조합들의 로력일 투하 정형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째, 국가 의무 납부가 충실히 수행되였으며 공동 축적 폰드와 사회 문화 폰드 및 종자, 사료 폰드 등이 조합 5개년 발전 전망 계획에 부합되게 공제되였으며 또한 지난해 공동 축적 폰드 및 사회 문화 폰드가 정확하게 리용되였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네째로, 조합원들의 현물 및 현금 분배 폰드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결산 총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계급적 각성을 고도로 제고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 농업 협동화 운동은 국 내외의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강화 발전되고 있다. 원쑤들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달성한 성과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음모와 책동을 다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중요한 생산물들은 결산 총화시에 조합 창고, 탈곡장 등에 집중된다.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원쑤들은 지난해에 일부 협동 조합들의 탈곡장, 창고, 축사, 연초 건조실 기타 공동 시설물들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며 또는 수확물을 절취하는 등으로써 결산 총화 사업을 혼란 시키려고 하였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합원들이 고도로 경각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기를 앞두고 전체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쑤들의 조량으로부터 량곡, 가축, 공동 시설 및 기타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방의 보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결산 총화는 단순히 수입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합 생산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결산 총화 회의를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조직 진행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기에 적지 않은 조합들이 총화 회의에서 다만 분배 몫만 따지고 조합 사업의 우결점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은 극히 형식적으로 토의하는데 그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총화 회의에서는 이러한 결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회는 관리 위원회의 년간 결산 보고와 검사 위원회 사업 보고를 청취한 기초 우에서 광범한 조합원들이 조합 발전의 중심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되여야 한다.

총회에서 토의되여야 할 중심 방향은 생산 활동, 재정 운영, 관리 위원회 사업 및 앞으로의 과업들인 바 우선 지난해 생산 조직 분야에 있어서 어떤 우단점이 있었는가 즉 작물 배치, 기술 도입 기타에서 무엇이 결함이였던가, 축산, 양잠을 비롯한 다각 경리 조직에서 존재하였던 결함은 무엇인가,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로동 능률을 높이지 못하고 여유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못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등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또한 분석적으로 토의함으로써 새 해의 생산 조직에서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조건들을 밝혀 내여야 한다.

총회는 또한 재정 운영면에서 공동 축적 폰드, 사회 문화 폰드, 생산비, 행정 관리비 기타 재정들이 년초 수입 지출 예산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리용되였는가를 검토하고 랑비 현상, 과목 류용 기타 일체 부정 지출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해당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총회는 반드시 관리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검열 받는 무대로 되여야 하며 그들의 사업에서 우점은 정당하게 찬양되여야 하며 결함은 예리하게 비판되여야 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금후에 시정되여야 할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바 지난해 일부 조합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몇 사람들의 개인 감정이나 개별적 복쑤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판이 리용되여서는 안 된다.

총회는 또한 매개 조합원들이 조합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조합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적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가에 대하여서도 검토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조합 결산 총화 회의는 자기들의 공동 로동에서 거둔 성과들을 총화하면서 결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생산의 앙양에로 전진하기 위한 기세로 들끓도록 고무하는 회의로 되여야 한다. 일년간 사업을 결산하는 총회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의 개변, 조합 내 새로운 생활의 창조, 고상한 사회주의적 도덕의 내용으로 그들을 교양하는 계기로 되게 하는 그것이다.

분배 받는 마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오늘의 보람찬 삶을 가져다 준 당과 정부의 정확한 정책과 배려에 대하여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자아 내도록 교양할 것이며,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높이는 동시에 애국 렬사 가족들에 대한 존경과 뜨거운 애정으로서 그들의 생활을 방조하여 주는 감격의 마당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적지 않은 농업 협동 조합들은 아직 수입 분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조합들은 자립적으로 년간 경리 활동을 총화할 능력이 미약하며 분배를 정확히 실시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이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도 방조 사업을 조직 전개할 것인바 이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정치 실무적으로 유능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지도 사업을 담당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해 수입 분배 지도 사업(집중 지도 사업) 경험에 의하면 지도 성원들의 선발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무책임한 일'군들을 파견한 시, 군들에서는 결산 총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함남도 광천군에서는 지도 성원 34명 중 수입 분배 사업에 대한 지도 경험을 소유하지 못한 리인민 위원회 생산 지도원을 29명이나 망라시켰으며 신포군을 비롯한 일부 시, 군들에서도 지도 성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도 수준이 어린 일'군들로서 구성하였던 것이다. 수입 분배 사업 지도가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결과에 이 시, 군 내 일부 조합들은 년간 생산 계획을 제때에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기 부업 조직과 영농 준비 사업이 지연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 인원 수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무 수준이 높은 일'군들을 지도에 참가시키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지도 그루빠들에 대한 당 단체들의 강한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도 성원들을 유능한 일'군들로 구성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이 공작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며 지도에 고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 주는 문제도 중요하다. 지난해 평남도, 함남도 내의 많은 시, 군들에서는 지도 성원들의 류동이 심하여 지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황해남도 내 일부 시, 군들을 비롯하여 일부 도내 시, 군들에서는 당 단체들이 지도 그루빠들의 지도 사업 정형을 검열 통제하는 사업을 극히 미약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다. 함남도 오로군 당 단체는 지난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수입 분배 사업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군내 조합들의 결산 총화 사업 지도를 검열 통제하지 않은 결과 지도 사업에 겨우 13명의 일'군들이 동원되였는데 중간 시기에 가서는 9명의 성원들이 지도에서 유리되고 겨우 4명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세째로, 지도 사업은 어디까지나 조합 관리 일'군들의 실무 수준을 제고시키며 관리 일'군들로 하여금 지난해 경영 활동에서 나타난 우단점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향에서 지도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일'군들의 지도에는 두 가지 편향들이 발로되였는바 그 하나는 내부 계산 사업을 가로 맡아 가지고 정리한 후 관리 일'군들에게 잘 알려 주지 않음으로써 관리 일'군들이 결산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결산 방향에 의거하여 새 해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관리 일'군들 자신들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구실하에 지도 성원들은 계산 사업에 전혀 방조를 주지 않고 수수방관한 사실이다. 이 두 가지 편향은 다 그릇된 것이다. 지도는 반드시 관리 일'군들이 구체적으로 납득할 때까지 도와 주고 납득한 문제는 그들과 더불어 정확히 정리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네째로, 결산 총화 사업 지도는 농업 협동 조합들

의 동기 부업과 병행되여야 한다. 많은 경우에 지도 성원들이 조합 관리 일'군들을 붙들고 결산 준비에만 급급한 나머지 조합원들을 동기 부업 생산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조직 지도 사업에 관심을 적게 돌렸던 것이다. 더욱 엄중한 것은 연회를 통한 랑비 현상과 결산 총화 기간을 조합원들이 휴식 기간으로 인정하는 옳지 않은 경향이 발로되였었다. 그러므로 금년도 결산 사업 지도는 반드시 동기 부업 생산 조직과 랑비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병행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　　　*

특히 금년도의 결산 분배 사업은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전변되고 있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조합원들이 분배 받은 현물과 현금을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사상적으로 동원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협동 경리의 강화 발전에 따라 조합원들의 생활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으며 생산의 장성과 더불어 그들의 문화적 요구도 장성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농촌 건설, 문화 혁명, 기술 개조 등 성숙된 문제들이 일정에 오르고 있다.

농민들의 문화적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농촌 건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앞에 긴급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쓸모 있고 아담한 농촌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학교, 구락부, 민주 선전실,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등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생활 내용에 알맞는 건설을 진행하여야 하며 또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생산 시설들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설 사업을 위하여서는 많은 자료, 자재, 로력이 필요하다. 생산의 장성과 더불어 농민들의 수입은 현저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번 결산 분배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수입은 현저히 증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번 결산 분배를 통하여 증대되는 농민들의 수입이 랑비되지 않도록 절약 투쟁을 강화할 것이며 농민들의 수중에 보유되고 있는 유휴 자금을 동원하여 조합 발전의 전망의 견지에서 문화적인 농촌을 건설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지방 원료 원천과 자재를 백방으로 동원 리용하여 품과 돈을 덜 들이고 쓸모가 많은 주택들과 문화 시설들을 더 많이 계획적으로 건설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결산 분배 사업이 진행됨으로써만 협동 경리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오늘 완성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이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미 조직된 조합을 조직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하는데 있는바 이는 금년도 농업 협동 조합의 결산 총화에서 수입 분배를 정확히 보장하는 데서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면한 농업 협동 조합들의 년간 결산 총화를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도 사업을 옳게 조직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정　진　석

조선 철학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 당이 진행하는 사상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 당원들의 지식을 풍부히 하며 그들의 교양과 사상적 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적대적 사상들과의 투쟁을 위하여 중요한 무기로 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철학사를 유물론이 관념론을 반대하는, 변증법이 형이상학을 반대하는 투쟁의 력사로 보았다. 그러므로 조선 철학사는 우리 나라에서의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맑스—레닌주의적 변증법과 유물론이 낡은 형이상학과 관념론을 반대하여 투쟁한 력사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허다한 낡은 철학적 견해들이 남아 있으며 특히 공화국 남반부에 있어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허다한 반동적 철학 체계가 재생 리용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조선 철학사의 과학적 연구는 우리의 사상 투쟁을 위하여 더욱 요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조선 철학사의 과학적 연구에 의하여서만 오랜 력사를 가진 빛나는 우리의 철학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의 옳은 계승 발전에 기초하여서만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할 수 있는 새로운 맑스—레닌주의 철학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찌기 웨. 이. 레닌은 제3차 전로 로씨아 공산 청년 동맹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 문화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안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소리는 모두 순전한 잠꼬대이다. 프로레타리아 문화는 인류가 자본주의 사회, 지주의 사회, 관리의 사회의 압박하에서 이룩한 지식 축적의 합법칙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웨. 이. 레닌 〈청년에 관하여〉 293 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6년)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 당의 사상 정책 가운데에는 조선 인민이 보존 발전시킨 철학도 포함한 모든 문화의 진귀한 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이 표현되여 있으며 이것들을 심오히 연구 발전시킬 과업이 제시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3차 대회 총결 보고에서 《과학 일'군, 특히 사회 과학 부문 일'군들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의 하나는 선진 과학의 연구 사업과 아울러 과거의 우리 나라 과학 문화의 우수한 유산을 계승하며 일체 과학 연구 자료들을 수집 정리함으로써 장래의 찬란하고 건전한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 조선 철학사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방법론적 원칙은 어떤 것인가?

레닌은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식론 문제에 있어서 어떤 철학 학파가 속하는 진영(유물론이냐, 관념론이냐)을 확정할 것, 둘째, 그 철학 학파가 동 시대의 기타의 철학 학파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확정할 것, 세째, 그 철학 학파가 그 시대의 자연 과학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반드시 확정할 것, 네째, 그 철학 학파의 계급성을 폭로할 것 등등이다.

이것은 조선 철학사 연구에 있어서도 방법론적 지침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적 원칙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 존재가 철학사도 포함한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철학사의 생산 관계 발전에의 의존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력사적 유물론의 이 기본 원리에 립각하여 조선

철학사를 연구함으로써만 조선 철학사는 과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철학사의 맑스—레닌주의적 연구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발전에 따르는 계급 투쟁이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들의 발전의 기초를 이루며 철학도 포함한 모든 이데올로기 현상들은 이 투쟁의 사상적 표현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철학 및 철학사의 계급성에 대한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개 철학은 구체적으로, 력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모든 력사적 요소의 총체를 정확히 타산하고 심각히 분석하여야 한다. 즉 철학의 사회적 및 계급적 의존성 뿐만 아니라 그 철학 학파들과 조류들의 인식론적 근원, 리론적 제 원천들도 정당히 해명하여야 한다.

당시의 계급 투쟁과 함께 과학, 문학, 종교 기타 사회적 의식 형태들의 발전과의 련계를 경시하여서는 안된다.

속류 유물론과는 달리 맑스—레닌주의는 철학도 포함한 이데올로기가 그 발전에 있어서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하며 이 측면을 정확히 타산하면서 철학사를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철학 발전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개 새로운 철학 발전의 단계를 선행한 단계와의 긴밀한 련관 속에서 고찰하여야 하며 새로운 철학이 발생 발전하는 조건들의 총체인 경제적 조건, 정치적 투쟁, 과학적 상태 기타 그 시기의 지배적인 자연 과학, 법률, 도덕들과의 제 관계들을 세밀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조선 철학사를 연구함으로써만 철학적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철학 유산의 계승이라는 것은 과거 철학 중에서 선진적, 과학적, 유물론적 요소를 찾아 내며 그것을 비판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오늘 우리 혁명 승리를 위한 사상 투쟁에 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우리 나라의 철학 유산을 옳게 계승하여 오늘날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 맑스—레닌주의적 과학적 방법론적 원리들을 정확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 *

조선 철학사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조선 철학사 연구 방법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두 가지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하나는 우리의 과거 철학 유산에 대한 과소 평가에서 오는 허무주의적 편향이요, 다른 하나는 과대 평가에서 오는 복고주의적, 민족주의적 편향이다. 이 론문에서는 주로 조선 봉건 사회의 철학을 연구하는 데서 나타나는 편향들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이러한 편향들을 가져 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조선 철학 연구자들이 철학과 철학사 제 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연구 성과를 불충분하게 료해하고 있는데 있다.

과거 우리의 철학 유산을 과소 평가하는 허무주의적 태도는 8. 15 해방 이후 오늘까지 우리 당이 끊임 없이 진행한 력사에서의 꼬쓰모뽈리찌즘을 반대하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정당히 배척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일부 학자들 중에는 세계 철학 발전에 있어서 조선 철학사가 가지는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그 높은 창조적 성격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과거에 있어서 중국 기타 강대국들에 비하여 경제적 발전이 락후하였었던 만큼 과거의 조선 철학자들은 그들이 선진적이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상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중국 기타 선진 국가 철학자들의 견해를 반복하는데 그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위반되는 것이며 민족 문화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명제와도 위반되는 것이다.

일찌기 이. 웨. 쓰딸린은 말하기를 매개 민족마다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수성은 매개 민족이 세계 문화의 공동 보고에 기여하여 그것을 풍부히 하는 기여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민족은 대소를 막론하고 동일한 지위에 처해 있으며 매개 민족은 다른 어느 민족과도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웨. 쓰딸린 <1948년 4월 7일 분란 정부 대표단 환영 오찬회에서의 연설>, 잡지 <볼쉐비크> 1948년 제2호, 2 페지).

매개 나라들의 철학사가들의 과업은 그 나라 철학사에 있어서 우수한 철학자들이 철학 사상 발전에 기여한 그 고귀한 리론적 유산을 연구 천명하는데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세계 철학사 발전에 기여한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 나라 철학사상의 진보적 업적을 평가할 때에 현대적 안광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들이 그들의 선배에 비하여 제출한 새로운 것을 찾아 보아야 한다.

이것이 과거의 철학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확한 과학적 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철학사상에 있어서 당시 력사적 조건에서 선진적 유물론적 철학을 연구하고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은 관념론 철학에 대하여도 그 발전 단계에서 진보적인 것을 옳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관념론 중에서도 어떤 측면에서 유물론에 접근한 진보적 부분을 찾아 내며 관념론적 문'구 속에 엄폐된 유물론적 견해들도 들추어 내야 한다.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를 동요하고 있는 철학들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변증법적 방법을 발전시킨 철학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그 사회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반동적인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철학적 견해에 있어서 진보적인 것이 있다면 또한 있는 그대로 구별하여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철학사는 인류사상 발전의 복잡한 과정이니 만치 과거 철학자들의 원저들을 세심히 과학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에서의 일면성과 주관주의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우리 나라 철학 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 견해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계속 과거 우리 나라 철학이 가지는 창조적 성격을 부인하며 세계 철학 발전에 기여한 역할들을 과소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 우리 나라의 철학들이 그 빛나는 독창적 성격을 가지고 우리 나라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세계 철학 발전의 보물고에 기여한 뚜렷한 실례들을 보여 주고 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고구려 시대에 처음으로 도교(道教) 철학 사상이 중국으로부터 류입될 때 연 개소문(淵蓋素文)이 당시 국왕에게 진술한 문'구 중에는 주목할만한 사상이 포함되여 있다. 《 3교는 솥발과 같다. 그러므로 그 하나가 빠지더라도 옳지 아니하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왕성하나 도교는 성하지 아니하니 천하의 학문은 완비한 것으로 되지 못하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三國史記高句麗本紀>).

이는 곧 우리가 선진 국가의 어떠한 한 개의 학문만을 그대로 옮겨 올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진적인 학문을 섭취하여 우리의 독특하고 완전한 학문을 창조하여야 하겠다는 사상이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래 철학에 대한 비판적, 창조적 태도는 우리 나라 진보적 철학 조류를 일관한 특징의 하나로서 신라 시대의 화랑 사상도, 고려 시대 농민 폭동의 리론인 묘 청의 사상도, 리조 시기 갑오 농민 전쟁의 리론인 동학 사상도 다 유교, 불교, 도교의 내용을 아울러 참작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장점을 취한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물론 유교 주자학을 가지고 혹심한 통제를 가하였던 리조 시대 철학계에 있어서 이러한 이단적(異端的) 사상이 로골적으로 관철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떠한 외피를 썼거나 자기가 어떠한 학파라고 표방하거나를 불구하고 이러한 독창적 철학 사상들이 착취 계급의 정통적 철학을 반대하여 출현하였다.

우리 나라 철학의 성격은 이러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자만 보고 사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 문'자조차도 똑똑히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용어가 남의 것과 같다 하여 빛나는 과거의 우리 철학들을 외국 철학의 아류로 규정 지으려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

또 한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리조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치렬한 론쟁은 사단칠정 리발 기발(四端七情 理發氣發)의 론쟁이다.

이 론쟁은 리조 철학계에 있어서 3백년 미해결의 대론쟁이였으며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유물론적 조류와 유심론적 조류와의 근기 있는 철학 투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허무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의미한 스콜라적 론쟁이라고 하면서 그가 진보적 조류라할지라도 아무런 계승 발전시킬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리조 봉건 사회에 있어서 유교가 지배적인 학문이였으며 유교 철학의 일파인 주자학에 의하여 모든 학문이 통제되고 있던 조건하에서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주자학파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주자학파의 교조를 인용하여 자기 철학의 진리성을 증명하는 론거로 삼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봉건 제도의 태내에서 계급 투쟁의 반영으로서의 철학 투쟁이 지배적 종교 철학의 각종 류파와의 충돌로서 반영되는 것은 조선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유교 주자학적 외피를 쓰고 진행된 주기론(主氣論)과 주리론(主理論)의 투쟁에는 철학에 있어서의 두 기본 방향, 즉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맹아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후의 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그 유물론적 조류들이 개화되지 못하였고 크게 발전되지는 못하였으나 주기론 계렬의 철학들에는 허다한 진보적 유물론적 견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자학의 옳은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주자학에 대한 은밀한 반대와 련결된 많은 주기론자들은 경험적 지식과 일정한 자유 사상에 끌리고 있는 진보적 농민층의 이데올로기의 특이한 반영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리론을 반대하는 주기론자들의 투쟁 행정에는 허다한 독창적인 견해들을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철학 가운데에는 그들이 계승한 선배들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허다한 선진적 견해들이 있는 것이다.

리 률곡은 주리론자 리 퇴계의 리기 호발설(理氣互發說)을 반대하면서 《만일 주자가 참으로 리와 기가 서로 작용을 하야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하면은 주자도 또한 틀린 것이다》(답성호원서 <答成浩原書>)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주기론자들은 주자의 충실한 계승자로 자처하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판적, 창조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리조 주기론자들이 말한 기(氣)의 개념은 오늘 일부 도식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물질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기론자들은 당시 철학 투쟁에 있어서 유물론 진영에 속한다.

기(氣)의 개념이 학자에 따라 모호한 것은 일찌기 주기론자 권 수암(權遂庵)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심(人心)이 형기(形氣)의 사(私)에서 발생한다고 할 때의 이 기라는 글'자는 이목구비(耳目口鼻)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칠정(七情)은 기에서 나온다고 할 때에 이 기'자는 심(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한수재집 권21, 잡저<寒水齋集卷二十一雜著>).

이는 동일한 기라는 글'자가 물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경우와 정신적인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류사한 견해는 주기론자 김 농암(金農岩)에게서도 볼 수 있다. 《퇴계(退溪)가 말하는 리기(理氣)는 심중(心中)에 있는 리와 기를 말하는 것이다. …… 기와 형기는 전혀 같지 아니하니 소위 형기는 이목구비 사지 백체(耳目口鼻四肢百体) 등속을 가르치는 것이다》(농암 선생 어록 <農岩先生語錄>). 즉 리기로 대치할 때의 기는 정신적인 것이요, 형기로 말할 때의 기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같이 동일한 기'자도 철학자들에 따라서 유물론적으로도 관념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철학자에 있어서도 그 저서의 다름에 따라 또는 그 저작 년대의 다름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떠한 주기론자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원저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단히 유물론자로 또는 관념론자로 론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당시의 력사적 조건에서 많은 주기론자들은 유물론에 접근하였고 주리론자들은 관념론 진영을 고수하였다. 주기론자들은 흔히 많은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관념론과 종교적인 것을 승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봉건 제도의 제 조건하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놀았다. 거기에는 풍부한 유물론적 경향이며 경험, 관찰 및 론리적 증명에 기초한 지식 체계를 신앙에 대치시키려는 지향이며 자연을 지배하는 합법칙성을 인정할려는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보귀한 주기론과 주리론의 투쟁을 무의미한 스콜라적 론쟁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주기론의 많은 진보적, 창조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맑스—레닌주의의 달성된 절정에서 보면 과거 우리 나라 철학자들의 미약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에 고유한 제한성은 그때에 도달한 과학적 성과와 사회적 실천과 계급적 상태에서 볼 때 불가피한 것이였다.

*　　　*

다음 우리 나라 철학 유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나친 찬양으로부터 오는 복고주의적, 민족주의적 편향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을 비속화하면서 자기의 복고주의적, 민족주의적 태도를 애국주의라는 찬란한 문'구로 엄폐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의 해독은 크며 과학의 파산을 가져 오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 우리 나라 철학들에 대한 부당한 평가는 어떠한 철학적 사유가 선행하는 철학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신비화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조선 철학가들을 과대히 평가하는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체 조선 철학가들을 과소 평가하며 중국을 위시한 외국 철학가들의 아류로서 묘사하는 다른 유해로운 경향과도 투쟁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나라 철학사 연구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에 적대되는 모든 경향을 끝까지 폭로하여야 할 것이며 무원칙한 말공부를 배격하여야 한다.

일부 조선 철학사가들의 복고주의적, 민족주의적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데서 표현되고 있다. 즉 그들은 자기가 아는 사료 중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에 알맞는 문'구를 인용하고 그 다음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과학적 진술들을 골라 내여 뜯어 맞추어 인용한 다음 그들을 철저한 유물론자로서 또는 혁명적 사회 사상가로서 론단을 내리는 것이다. 자기가 인용한 명제와 모순되는 명제들은 전혀 집어 치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략하게 언급하여 버리고 모든 철학자들의 력사적 제한성은 묵과하여 버리고 만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적 연구 방법은 철학사가들에게 엄밀한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철학의 강한 측면과 마찬가지로 약한 측면도 동일한 정확성과 공정성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과학 연구에 있어서 주관주의와 일면성을 배격하며 그 시기의 력사적 제한성들을 무시하고 과거 철학자들의 활동을 현대적 안목으로만 평가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그릇된 연구 방법들은 과거 철학가들에 대하여 그릇된 결론을 내리기 쉬우며 특히 그들의 사회 정치적 견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떠난 비과학적 결론을 내리기 쉬운 것이다. 실례를 들면 어떤 철학사가는 주기론자 리 률곡(李栗谷)을 유물론자로 묘사하면서 리 퇴계의 관념론과 대립시킨다. 그러나 사실은 리 퇴계나 리 률곡이나 다같이 세계의 근원을 리(理)로 보는 관념론자인 점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들은 리해하기를 모든 정신계와 물질계가 다같이 리와 기의 결합으로써 성립되였으며 그 본질적인 것은 리라는 데에 차이는 없다.

다만 리 률곡은 리 퇴계와 같이 시간적으로 리가 먼저 성립하고 그 뒤에 기가 성립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즉 리만 존재하는 시기, 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리만 출현한 시기를 즉 기를 떠난 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리 률곡의 유물론적 측면과 리 퇴계의 관념론적 측면이 대립되는 것은 인식론 부분인 사단 칠정, 리발 기발의 리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식론에 있어서도 그는 기를 다시 본연지기(本然之氣)와 소변지기(所變之氣)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변지기를 말할 때에만 그것이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리 률곡의 유물론적 요소는 국한되여 있다. 그렇다고 그의 철학이 갖는 진보적 의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리 률곡의 철학에서 약하기는 하지만 그의 선배들이 발견하지 못한 허다한 진보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높이 평가하며 계승 발전시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과대한 평가도, 사실에 어긋나는 유물론자로의 찬양도 그에게 있어서나 그의 철학을 계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편향들, 방법론적 오유를 교조주의, 도식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식주의적 경향은, 특히 관념론 철학 가운데서 진보적인 것을 정확히 판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유물론과 진보를 간단히 결부시키며 관념론과 반동을 결부시킬 수 있으나 매개의 철학 사상을 심오히 분석하여 소여의 철학가가 자기들의 선배들에 비하여 무엇을 풍부히하였는가는 찾아 내지 못한다. 연구 사업에서 이러한 비속한 태도의 결과는 매개 철학가들의 다방면적 활동을 정당히 평가할 수 없게 한다.

실례를 하나 들어 보자.

주자학은 리조 봉건 사회에 있어서 지배적인 학파이기는 하였으나 유일한 학파는 아니였다. 이 정통적인 착취 계급의 철학을 반대하는 허다한 철

학 학파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봉건 사회의 조건에서 흔히 색다른 관념론 철학으로서 나타났다. 왕 양명(王陽明) 학파와 같은 것이 그것이요, 도교 또는 예언적인 것과 결부된 신비주의적 색채를 띤 사상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철학이 가진 신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진보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인식을 인간 정신과 신적 원리의 직접적 융합에 귀착시키고 있는 이 신비주의 사상들은 경험과 론리를 배격하는 명백히 유해로운 반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봉건 사회의 특이한 력사적 조건에서 신비주의자들의 어떤 사회적 견해는——례컨대 유교 주자학적 정치 제도와 도덕적 원리에 대한 반항은——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파적 역할을 일시적으로 놀 수 있었다.

엥겔스도 일찌기 신비주의 사상을 봉건 제도를 반대하는 한 형태로 간주하였다. 우리는 우리 력사상에 많은 농민 폭동들과 관련된 이 신비주의 사상들을 정당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음 사회 정치적 견해를 과대 평가하는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견해의 하나로서 서 화담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일부 학자는 그를 평가하여 출세와 지배 계급에 대한 복무를 포기하고 빈곤한 상태를 참아가면서 진리를 탐구하였으며 지배 계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전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정릉(靖陵)이 도라감에 우리 나라 제도에 유사(儒士)에게 복이 없으며 다만 백색 의관을 3년 입을 뿐이였다. 선생이 가로대 군부의 상에 어찌 복이 없어서 되겠는가 하고 제최(齊衰) 3월을 입었다》(화담집 화담 선생 신도비명《花潭集 花潭先生神道碑銘》). 즉 당시까지 국가 제도상 왕이 도라갔을 때에 유생들은 오직 흰빛 의관을 3년 입을 수 있을 뿐이였다. 그러나 서 화담은 각종 례론(禮論)을 징거하면서 3개월 복을 입은 당시 봉건 군주에 대한 이러한 지극한 충성을 그냥 슬적 도외시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의 저서에는 어느 정도 당시의 봉건 사회의 모순을 폭로 비판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강한, 반대되는 측면도 공정하게 타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공정한 평가가 결코 서 화담의 철학이 가지는 유물론적, 진보적 성격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사회 정치적 견해의 보수적 측면이 그의 유물론적 요소의 풍부한 철학 체계와 량립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철학의 진보성과 아울러 제한성도 보아야 하며 그가 어떠한 계급에 속하고 있었다는 문제와 그의 철학이 어떠한 계급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서 화담의 철학이 일부 학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19 세기 로씨야 혁명적 민주주의자의 철학, 이전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것보다도 우월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 평가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황당한 과대 평가는 근일 일부 학자들이 실학파의 철학을 평가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다산의 려전제(閭田制)를 그 당시로 보아서는 동서나 고금에 그 류례가 없는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전제론(田制論)》으로 규정 짓는 것은 같은 리유로써 긍정할 수 없으며 분명히 한 개의 편향이다.

❊　　❊

오늘 조선 철학사를 연구하는 과학 간부들 앞에는 이상과 같은 결함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긴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허다한 과업들이 나서고 있다.

그 첫째는 조선 철학사 사료에 대한 정확한 료해를 위한 대책이며 둘째는 과학적 조선 철학사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연구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우선 사료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하여 보자.

오늘 조선 철학사가들 앞에는 그 연구를 위하여 저서들과 사료들에 대한 료해가 부족하다. 또 적지 않은 철학사의 문헌과 자료들이 아직도 철학사가들의 활동 무대 밖에 방치되여 있다. 이들 문헌들은 각 도서관들에 산재되여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제 저서와 사료들의 심오하고 전면적인 연구 없이는 완전한 조선 철학사는 창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 철학사 령역에서 수행하여야 할 첫 과업의 하나는 사료의 정리이며 특히 한문 사료들의 정리 해석이다. 방대하고 난해한 이 한문 서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서적들이 번역본(飜譯本), 주해본(註解本) 선집, 자료집들로서 출판되여야 하겠다. 그러나 번역에는 여러가지 애로가 많은 것이다. 철학사 연구를 위한 한문 서적들에는 허다한 구두(句讀)상 문제와 문'자학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료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번역본은 그 원저에 대한 열정한 번역자의 해석을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원저자의 사상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며 리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원저 중 문제되는 부분에 몇 개의 간이한 주해를 렬거한 주해본이 도리여 연구자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과 주해는 적당히 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문 서적은 그 수량이 방대하니 만큼 철학사 사료로 되는 부분을 뽑아 내여 편찬한 자료집이나 선집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에서 엄밀한 과학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연구자가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한문 공부를 충분히 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 철학사 연구의 요구로부터 대학에 있어서의 한문 교수의 질을 각 방면으로 개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문 서적을 독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전류의 편찬 저서 색인(索引) 서목(書目)의 작성, 서지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여야겠다.

한문 서적의 정확한 료해는 결코 한권의 사천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다한 보조 서적과 보충 도서들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력사적 조건에서 매개 학자들이 이러한 완비된 학습 조건을 개별적으로 구비하기는 곤난하다. 그러므로 집체적 연구 기관으로서 완비된 도서관과 연구실을 건설하는 일이 시급하다. 첫째 과학원에 이러한 자료들이 구비된 조선 철학사 연구실이 설치되여야 할 것이며 김 일성 종합 대학을 위시한 큰 대학들에 조선 철학사 전문 강좌가 창설되여야 하겠다.

또한 조선 철학사 사료의 정리를 위하여 허트러진 력량을 집결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한문 실력을 가진 민간 학자들을 장악하고 리용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현재 개성 지구같은 데는 한문을 읽고 작문할 수 있는 사람이 수 십명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력량을 깜빠니야적인 한시회(漢詩會) 등에만 망라할 것이 아니라 조선 철학사 연구에 인입하는 문제는 중요하고도 유익하다.

이상과 같은 자료의 정리 문제와 아울러 조선 철학사 연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맑스—레닌주의적 철학사 연구 방법의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조선 철학사에 관한 로작들에서 오유와 결함들은 사료 취급의 부정확성과 아울러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의 미약성으로 설명된다.

근일 조선 철학사를 연구하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편향이 발로되고 있다. 즉 우리는 조선 철학사만을 연구할 것이요, 기타의 세계 철학사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들에서 또는 선진 국가들에서 할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우리는 그 연구 결과만을 도입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조선 철학자는 응당 우리의 철학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세계 철학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에 또는 철학사 일반에 대한 방법론적 리해가 부족할 때에 우리는 과학으로서의 조선 철학사를 옳게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외국 사람들이 세계 철학사를 연구하는 것은 그들의 수요에서 하느니만치 그 연구하는 측면과 각도가 우리의 수요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례로서 외국 학자들과 달리 우리 철학사가들의 시급한 과업의 하나는 조선 철학사의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시기 구분 문제이다. 이것은 조선 력사 일반적인 연구와 아울러 또한 세계 철학사의 전반적인 깊은 료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실례로서 우리의 과거 철학 유산은 그것이 봉건 사회에서 배태 발생 발전한 것이 많으며 그 옳은 해명을 위해서는 봉건 사회 철학 발전의 일반적 법칙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선진 국가의 철학사 연구는 중점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 국가 철학사가들의 연구 성과를 중요히 섭취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수요에 맞는 방향에서 세계 철학사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조선 철학사를 발전시키는 길이요, 우리가 조선 철학사의 연구를 통하여 세계 철학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연구가 있어야만 우리 철학사 연구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철학사의 연구는 우리 철학사가들에게 현실적인 요구로서 제기되고 있다. 즉 오늘날 우리 당 정책의 승리적 성과들을 철학적으로 개괄하고 반동적 철학 조류들과의 성과적 투쟁을 위하여 이것은 시급하다.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모든 썩어빠진 낡은 철학 체계를 재생 변모하여 가지고 자기의 반동 통치를 위하여 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 철학가들 앞에는 이것들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고 리론적으로 분쇄할 임무가 있다.

이것을 위하여는 오늘날 세계 반동에 복무하는 철학들에 대한 좀 더 심오하고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면의 사업은 현재 만족할만한 정형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 조선 철학사가들에게는 자기의 당면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세계 철학사의 연구, 우리 나라 맑스 전 철학사와 아울러 맑스—레닌주의 철학사의 연구 특히 맑스—레닌주의적 철학사의 방법론적 연구들이 심각히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의 결함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문가—조선 철학사가들의 양성과 교육이다. 우리는 과학원 력사 연구소 철학 관계 과학 연구 사업 10개년 전망 계획에서 더 세심하고 더 주밀한 학문적 내용과 아울러 인재 양성의 계획적 견지에서 작성될 것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경험 있는 학자들의 지도 아래 집단적 저작들에 많은 젊은 학자들을 참가시키는 것은 간부 양성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와 아울러 낡은 인테리들, 한문 학자들을 조선 철학사 연구에 인입하고 그들을 개조하여 리용하는 문제도 신중히 고려되여야겠다.

다음 조선 철학사 연구 분야에서 과학적, 리론적 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의 하나는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 자유로운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하는 문제이다. 아직 미해결의 문제 또는 론쟁 중의 문제들에 대하여 공개적인 의견 투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여야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상 제반 대책들과 아울러 집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 조선 철학사 교과서 저작 사업에 시급히 착수하여야 할 것이며 과거의 탁월한 철학자들과 철학 학파들에 대한 일련의 전문 연구 사업이 병행되여야겠다.

최근에 조선 학계에서는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적지 않은 저작과 론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이 우리 선조들의 경제학적, 미학적, 교육학적 제 견해들의 연구이며 철학적 견해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극히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형으로는 조선의 철학 유산을 과소 평가하는 허무주의적 경향과 그릇된 복고주의적, 민족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기는 곤난하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에서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을 옳게 섭취하며 그를 발전시키는 기초 우에서만이 타국의 선진 과학 문화들을 급히 또는 옳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 철학자들은 이 교시를 다시 한 번 명심하면서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 최단 기일 내에 획기적 전변을 가져 오도록 자기의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하겠다.

남조선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과 경제의 파탄

국민 소득은 소여 년도에 생산된 총생산물의 일부 즉 새로 창조된 가치이며 그 규모는 소비와 축적의 규모를 규정한다. 그것은 재생산을 특징짓는 가장 일반적 지표이다.

사회적 생산 방식의 특성은 국민 소득의 생산 분배(재분배) 및 리용의 특성을 규정한다.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국민 소득의 생산은 류례 없는 속도로서 장성하였다. 1954—1956년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기간에 있어서 국민 소득은 2.1 배로 장성하였다. 또한 국민 소득 생산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분인 공업의 비중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즉 국민 소득에서의 공업 비중은 가장 크다.

국민 소득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분배 및 재분배되며 축적 템포를 높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리용된다. 미제가 강요한 전쟁에 의하여 여지 없이 파괴되였던 공업의 생산고가 불과 3 년간 (1954—1956년)에 2.9 배로 장성하였으며 인민 생활이 급속히 향상되여 1956년 말에는 드디여 전전의 실질 임금 수준을 릉가하였다.

이와 같은 거대한 성과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 또한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로력에 의하여 생산되는 국민 소득의 생산 규모가 축감되고 있는바 그것은 미 제국주의자, 예속 자본가, 지주 등의 리익을 위하여 분배 및 재분배되며 비생산적, 우선 군사적으로 리용되며 민족 산업을 파괴하며 근로자들을 빈궁과 기아에 몰아 넣는데 리용되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로 전변하였으며 리 승만 괴뢰 정권이 매국적, 반인민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의 국민 소득 산출의 허위성

남조선에서는 국민 소득 산출의 허위성을 음폐하면서 산출된 국민 소득의 규모에 립각하여 재정 금융 정책 또는 주민 생활 형편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질 수 없다.

국민 소득의 대부분을 자기들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 이외에도 국민 소득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고의적으로 억제하며 그의 허위적인 산출을 강요하여 과장하고 있다. 남반부에서 관용 기관들이 산출하는 국민 소득은 비과학적이며 사태를 과장하며 세금 징수, 통화 발행 및 기타 인민에 대한 착취를 음폐하기 위한 리론적 무기로 리용되고 있다. 례컨대, 1955년 남조선 《경제 년감》에는 미제의 《원조》와 함께 국민 소득이 약 47% 가량 증가하면 1 년간에 107억 환 정도의 통화 발행이 무방하다고 써 있다. (《경제 년감》 I, 229, 1956년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의 국민 소득 산출에 대한 자료는 단편적이며 극히 초보적인 것 밖에 없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국민 소득의 생산의 특이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그들의 불충분한 자료라도 리용하기로 한다.

남조선 국민 소득에 대한 자료는 상기 년감 및 괴뢰 정부 《재정부》에서 추정한 두 가지가 있다. 《경제 년감》(한국 은행에서 작성)에서의 국민 소득 산출은 소위 《국민 총생산액》에 의한 것인바 이는 미국 상무성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즉 생산물 총생산액에서 체화 로동의 지출을 다 공제한 잔고가 아니며 여기에는 고정 자본의 감가 상각비 등이 포함되여 있고 《재정부》 작성의 국민 소득 추계표(推計)에는 그것이 공제되여 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속류 경제학에 리론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 소득을 과장하고 있다. 그들의 방법에 의하면 우선 물질 생산 부면과 비물질 생산 부면의 구별이 없으며 사회 생산물과 국민 소득이 이 두 부면에서 다 생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괴뢰 군인의 수입도, 관리의 수입도 국민 소득에 포함되며 종교인들의 수입도 《종교 써비스》의 대'가로서 소득에 계산된다. 실례로 1956년에 천주교도는 3억 환의

국민 소득을 《생산》하였다고 계산하고 있다.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7년, 6호, 32 페지).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국민 소득은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오직 물질 생산 부문에 있어서만 생산된다.

사실 화폐 소득이 수차 이전하였다 하여 그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증가되지 않는다.

비생산 부면에서의 《소득》을 국민 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 소득액은 이중으로 계산되며 그만큼 과장된다. 이 밖에 국민 소득을 과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의제화(擬制化)가 실시된다. 례하면,

상기 남조선 통계 자료에는 《귀속 임료》가 포함되여 있다. 이것은 주민이 자기 가옥을 소유하고 거기서 거주할 때 가옥에서 받은 《써비스》의 대'가라고 한다. 례컨대 1956년에는 《귀속 임료》 712억 환이 국민 소득 추계에 포함되여 있다.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7년, 6호, 22페지 및 30페지). 이 금액은 전체 공업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 생산과 거의 같은 액수이다.

또한 남조선 국민 소득 계산은 계급별로 국민 소득의 분배 및 재분배 과정을 음폐하고 있다. 례하면, 남조선 《재정부》에서 작성한 1956년도 산업 원천별 국민 소득 추계표 《근로 소득》에는 로임 이외에 회사 사장, 중역, 고급 관리 등의 급여가 포함되여 있으며 《개인업주 소득》에는 개인 자본가, 부농 등 이외에 수공업자, 행상 등의 《기업주》 소득이 포함되여 있다. 이것은 리윤, 불로 소득 등 착취 계급의 소득의 원천과 로임 기타 근로자들의 그것과를 혼동시킴으로써 각 계급들의 소득 원천의 해명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허위적인 방법은 반동 계급들의 리해 관계에 알맞는 것이다. 왜냐 하면 국민 소득이 예속 자본가, 지주, 부농 등의 수중에 집중되며 압도적 다수의 주민에게는 보잘것 없는 몫이 배당되는 것을 음폐하며 근로자들의 빈궁과 령락을 음폐하기 위하여 리용되기 때문이다.

남조선 국민 소득의 규모

우리는 이상의 방법론적 외곡을 가능한 한 극복하면서 남조선 국민 소득의 규모와 물질 생산 부문별 구성을 고찰하여 보자. (자료는 《재정부》 작성 《산업 원천별 추계표》를 택한다. 잡지 《재정》 1957년, 제2호, 100 페지)

이 표에 의하면 국민 소득을 생산하는 부문으로서 농업, 림업, 수산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판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운수, 통신 및 기타 공익 사업, 용역 봉사업 공무 기타 등이 렬거되여 있다. 이 중에서 명백히 비물질 생산 부면에 속하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용역 봉사업, 공무 등에서의 《국민 소득》은 제외되여야 한다. 이 부문들은 국민 소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판매업(상업)은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특히 남조선에서처럼 투기 모리가 성행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비물질 생산 부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에서의 국민 소득 《생산액》은 국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물질 생산 부문들에서 생산되였으나 그의 국민 소득에 계상되지 않은 새로운 가치 부분이 류통에서 비로소 실현되며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매업에서의 《국민 소득》은 계상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운수, 통신 및 기타 공익 사업》의 《국민 소득》은 국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과 공제하여야 할 부분으로 구분되여야 한다. 례컨대, 화물 수송, 생산에 복무하는 통신 전기업 등은 물질 생산 부분이며 그의 순 생산물은 국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시에 려객 수송, 생산에 복무하지 않는 통신 등의 소득은 국민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것은 비물질 생산 부분이며 국민 소득의 소비 부문이기 때문이다.

1954년 남조선에서의 철도 운임 수입 중 화물 수송에서의 수입의 몫은 약 15%에 불과하다. 기타 운임 수입은 려객 수송에서 입수된 것이다. 시초 계산 자료가 없는 조건하에서 《운수, 통신 및 기타 공익 사업》 소득의 50%를 조건적으로 국민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하여도 국민 소득의 규모를 결코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부문의 소득이 국민 소득의 불과 2.4%이며 이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 부문의 국민 소득에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것을 타산하여 국민 소득을 계산하면 1957년 《재정부》 추계 7,846억 1,900만 환 대신 5,225억 1,800만 환으로서 그들의 추계의 67% 미만이며 33% 이상이 과장된 것으로 된다.

특히 1957년도 국민 소득의 추계에 있어서 예측되였던 충주 제2 비료 공장 건설(건설비 95억 환)을 중지하였다는 것 및 기타 조건들이 변동되였다. (《산업 경제》 1957년, 4호, 6—8 페지), 그러므로 《재정부》 추계는 더욱 과장된 것으로 된다.

1956년도 추계도 허위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과장되여 있다. 그러나 우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작하여 본다면 《추계》는 31% 이상 과대 평가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조선 국민 소득 계산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그의 규모를 어느 정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계산을 일련의 보충적 자료에 의하여 일층 더 개작할 필요가 있다. 례하면 판매업 소득 중 임대료 23억 2,800만 환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우에서 지적한 거액의 《귀속 임료》가 농업 소득에 포함되여 있을 것이다. (시초 자료가 없음으로 이 항목을 얼마로 평가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그는 완전히 비생산 부문으로 간주되는 《기타》 부문 소득을 모두 국민 소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소득의 규모를 크게 과장할 것이다.

반면에 《금융 및 보험업》에서의 소득 중 물질 생산 부문에 대한 대부금 리자, 보험료 수입 등은 국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생산 부문에 대한 융자가 적으며 대부분의 대부 자금이 투기에 리용되는 남조선 형편에서 이러한 리자, 보험료는 무시할 수 있다. 또한 자연 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고정 자본 손실의 보상, 설비 기계 등의 소보수비 등도 국민 소득에 포함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지출들은 국민 소득에 의하여 보상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업 기관, 금융 체계의 사업비도 국민 소득에 넣어야 한다. 이 밖에 광산 지대, 생산 기업소의 지대, 상품 재고의 가격 변동 등도 국민 소득에 포함되여야 한다. 상기 비물질 생산 부문의 영업비적 성격의 지출은 사실상 국민 소득에서 지출되나 《재정부》의 《요소 비용》적 평가에서는 어느 단면에 있어서도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품 재고의 가격 변동은 생산물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명목상으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계산된 국민 소득액을 더 증가시켜야 할 요안들이나 상품 재고의 가격 변동을 제외한다면 남조선의 현 경제 형편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들이다. 상품 재고의 가격 변동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물을 현물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며 다만 화폐액으로서만 증대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 소득의 생산을 부문별로 고찰할 때 일단 무시될 수 있다.

끝으로 간접세액이 국민 소득에 포함되여야 한다. 간접세는 소득 원천에서 직접 징수되는 소득세와는 달리 상품 《원가》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품 구입자인 주민들의 부담으로 된다. 간접세는 결국 주민들의 소득의 삭감이며 실질 임금을 저하시킨다. 간접세는 류통 부면에서 실현되므로 판매업의 소득에 조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주민(압도적으로 근로자들)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는 물품세, 관세, 전매업 리익금 등의 합계로 볼 수 있는바(영업세도 간접세와 류사하다) 이 총액은 1956년에 있어서 435억 1,400만 환이며 1957년 예산에서는 747억 1,500만 환의 거액에 달한다 (《재정》 2호, 1957년, 100—101 페지).

만약 이 금액을 우에서 산출한 1957년도의 국민 소득에 가산한다면 5,972억 3,300만 환으로 된다. 그래도 《재정부》 통계에 비하여 약 25% 정도가 과대 평가되여 있다.

류의할 것은 이 수'자가 실지보다 과대 평가될 수는 있으나 과소 평가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 하면 우에서 본 바와 같이 《기타》 부문, 농가 《귀속 임료》 등의 애매한 항목들을 모두 국민 소득에 일단 계산하였는바 이 금액들이 큰 반면에 첨가하여야 할 항목들 (고정 자본 손실 보상, 소보수비, 비물질 생산 부문들의 일부 영업비) 등의 총계는 적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남조선의 국민 소득 계산이 허위적이며 그의 규모가 과장되여 있다는 것을 보았다. 리 승만 관용 기관의 국민 소득 추계 및 예측 추계 등은 세금 부담의 증가, 통화 증발, 국채 발행 증대 등의 구실을 조작하며 남조선 경제의 파탄을 음폐하려는 목적의 추구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남조선 국민 소득 생산의 변동

그러면 남조선에서의 국민 소득 생산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이 문제는 국민 소득 장성의 요인을 분석하는 편이 《재정부 추계》에 의거하는 것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국민 소득 장성의 요인은 첫째로 물질 생산 부문에 있어서 종업원 수의 증가, 둘째로 체화 로동 절약까지 포함하는 사회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이다.

국민 소득 생산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과 공업을 고찰하면 국민 소득 생산 규모의 일반적 변동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두 부문의 국민 소득 생산액은 전체 물질 생산 부문들의 국민 소득 총액의 92% 이상이나 되기 때문이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군사화 정책은 농민들의 생활을 여지 없이 파괴하였다. 이 정책의 수행은 류례 없는 조세 부담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였으며 지주, 부농, 고리대들의 농민 착취를 성행케 하였으며 미국 잉여 농산물 도입, 공업 및 농업 상품 가격간의 극심한 협상차 등을 초래하였고 농민들을 령락시켰다. 남조선에서는 매년 리농하는 농호 수가 증대되며 만성적 기아가 지배한다.

1954—1956년간에 1만 6천 여 농호가 축감되였다. (《경제 건설》 금년 8호, 8페지 제14행 참조) 로동 능력 있는 수십만의 청년 장년들이 군대에 강제 징발되였으며, 남조선 농촌에는 음폐된 상대적 과잉 인구가 더욱 증대되므로 실지에 있어서 상기 농호 수의 감소보다 실지 작업 인원 수의 감소는 퍽 클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경지 면적 감소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정부의 군용지 점유, 토지 보수 사업의 결핍은 경작지를 황무지로 화하고 말았다. 경지 면적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의 축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농업 로동 생산성을 고찰하면 그의 제고는 고사하고 저하되였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가혹한 착취를 받는 농민들은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하

어 필요한 자금은 고사하고 자기 생계의 유지비의 지출도 곤난한 형편이다. 미국 비료 도입과 강매는 결국 토지의 산화를 가져 왔으며 단위당 수확고를 1937년의 30%나 감소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농업 생산고는 경지 면적 감소와 단위당 수확고의 감소의 요인에 의하여 저하되고 있다. 《농업부》의 외곡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53년에 비하여 1956년에는 미곡이 135만 5천 석 감수되였으며 면화는 92% 이상이 감소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농업에서의 국민 소득 생산이 체계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결론 짓게 한다.

공업에 있어서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원조》 및 기타의 경제적 메하니즘을 리용하여 민족 산업을 송두리채 파괴하였다.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 군수 기업소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기업소들은 이미 파산되였거나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 있다. 남조선 산업의 주도적 부문인 방직 공업도 례외로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태는 실업 대군을 낳게 하였다.

1956년 말 남조선의 실업자, 반실업자 수는 드디어 360만의 놀라운 수'자에 도달하였다. 작업 시간의 연장이 어느 정도로 투하 로동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취업 로동력의 감소에 비하면 극히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업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은 자료 관계로 측정할 수 없으나 남조선 《제조업》 기업소 (가공 공업)의 99.2%를 점하는 중 소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졌으며 도저히 새 시설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 미제의 《원조》에 의한 기계 설비 도입이 대단히 적다는 것, 또 도입되는 기계 설비들 중에는 미국 잉여 상품이며 낡은 기술이 많다는 것, 기업소의 절대 다수 설비가 일제시의 낡은 것이며 그의 성능이 로휴로 인하여 해마다 저하된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로동 생산 능률면에서 최근 년간에 하등의 변동이 없었거나 오히려 저하되였을 것이다. 설사 예속 자본가들의 몇몇 공장에서 생산 능률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량적인 실업을 메꾸어 국민 소득을 장성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취업 로동자 수의 대폭적 감소 및 로동 생산성의 불변 또는 저하를 증명하여 주는 것은 공업 생산고이다. 1955년 현재 가공 공업 생산고는 일제 말기 1940년에 비하여 2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농업과 가공 공업의 비중이 일제하에 대략 3대 2 였으나 1955년에는 4대 1로 저하된 사실로써 투하 로동과 이 로동의 생산성이 1945년 이후 저하되며 국민 소득을 적게 생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대비되는 농업 생산고 자체도 감소되였는데 이에 비하여 공업 생산 비중이 4분의 1로서 심히 축감되였기 때문이다.

물론 가공 공업 이외로 채취 공업의 동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비중은 극히 적다. 1956년도 국민 소득 중 (《재정부》 작성 자료) 광업은 제조업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남조선 공업 구조가 더욱 식민지적 편파성을 띠게 되였으며 거의 모든 공업 원료를 미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로동 용량이 큰 중공업이 일제시보다 축소되였다는 사실 등은 총생산고가 비록 증대하였다 하더라도 국민 소득 생산은 증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여 준다. 왜냐 하면 소비되는 원료의 가치는 남조선의 물질 생산 부문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제의 도입에 의한 것이므로 남조선 국민 소득 총액에서 공제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의 고찰은 남조선 괴뢰 정부의 출판물이 선전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국민 소득 생산이 결코 증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에 의한 남조선 경제의 파탄, 인민 생활의 극도의 궁핍화를 음폐하며 미제의 《원조》를 선전 과장하기 위하여 《부흥부》 당국자는 1956년에 1949년에 비하여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네이산》 보고에 의하더라도 1949년 수준을 미달하고 있다.

1949년에 비한 《용역 봉사업》, 《공무》 부문 소득의 증가, 량곡 감수를 국민 소득 《추계》에서 공제하여도 그들의 선전의 허위성이 명백하다.

남조선 국민 소득 생산의 부문별 구성

다음으로 남조선에서의 국민 소득 생산의 부문별 구성을 간단히 보기로 하자. 《재무부》 통계에서 비물질 생산 부문을 제외하고 1956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업》을 계산상 물질 생산 부문에 조건적으로 간접세 없이 포함시킴).

부문별	농 업	공 업	건 설	운수 통신 및 기타 공익 사업	판매업
%	62.1	15.7	3.3	1.7	17.2

이 표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 생산에 있어서 농업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은 그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실질적 국민 소득이 감축되며 특히는 공업의 생산액 비중이 적은 사실은 미제에 의한 남조선의 공업 파탄을 한낱 표현하여 준다.

판매업에서의 국민 소득 《생산》 비중은 17.2%로서 공업과 운수, 통신에서의 그것에 필적된다. 이것은 남조선 경제가 국내 생산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여 있지 않으며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 판매 시장으로 전락한 사실의 반영이다. 판매업은 미제 상품의 도입과 판매에서 리익을 보며 따라서 경쟁자로 될 수 있는 민족 산업의 파괴에 광분하는 예속 자본가들의 온상으로 되여 있다. 삼양 재벌, 삼성 재벌 및 기타 재벌의 형성 및 강화가 이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민족 자본의 몰락과 예속 자본의 팽창 과정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재무부》 추계표에서 물질 생산 부문과 비물질 생산 부문의 구성 비률을 보면 56.7% 대 43.3%로 된다. 이는 국민 소득이 축적에 나갈 수 없는 정도로 비생산적으로 리용됨을 말하여 준다.

농업과 공업의 파탄은 이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수다히 구축하였다. 리 승만 테로 통치의 유지를 위하여 억압 기관들이 강화되였으며 미제 잉여 상품의 범람은 생산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남조선 인구의 직업별 구성비 (%)는 이 사정을 여실히 실증하여 준다.

	1940년	1952년
농 업	74.8	68.0
공 업	8.2	4.7
운 수	1.2	1.1
상 업	6.0	9.4
공무 자유업	1.9	*5.2

즉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 수는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그 비중이 감소되였다. 생산 부문 인구의 감소에 반하여 비생산 부문의 인구는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민 소득 생산을 축감시키며 기생주의(寄生主義)의 강화를 의미한다.

남조선 국민 소득 분배의 계급적 본질

생산된 국민 소득은 우선 물질 생산에 참가한 계급들간에 분배된다.

남조선 농업 생산에 있어서 국민 소득 분배에 참가하는 계급들에는 고용 농민, 빈농, 중농들 이외도 부농은 물론 지주도 구태의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농지 개혁》은 밭갈이 하는 자에게 토지를 줄 대신에 광범한 근로 농민들을 채무 노예적 처지에 빠지게 하였다. 이 《개혁》은 북반부의 토지 개혁에 고무되여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한낱 사기적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남반부의 군사화 정책은 각종 명목으로 농민들을 수탈하였는바 《농지 상환곡》, 《토지 수득세》에 의한 수탈만 하여도 대다수 농민인 빈농에 있어서는 년 수확고의 70%에 달하였다.

지주, 부농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에 의하여 농민을 착취하는 이외로 현금 및 현물 대부에 의한 고리대적 착취를 수행한다. 현재 남조선에서 특징적인 고리대적 착취 형태는 가장 광범한 보급을 보고 있다.

공업 건설 및 기타 물질 생산 부문에 있어서 생산에 참가하는 것은 로동 계급과 생산 수단 소유자인 자본가 계급이다. 산업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은 우선 로임과 리윤의 형태에 의하여 상기 두 계급간에 분배된다.

미제와 그의 괴뢰 정부는 중 소 기업가를 몰락시키며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들을 육성 옹호하였다. 이에 따르는 대량적 실업, 기아 임금은 로동 계급이 차지하는 분배의 몫을 저하시키며 자본가의 리윤을 증대시킨다.

남조선 로동자들은 빈번히 로임 체불 현상에 부닥친다. 일례로 《대한 석탄 공사》는 1956년 7월 현재로 5억 4,900만 환의 로임을 체불하였다. 인플레의 조건하에서 이러한 체불은 비록 후에 지불된다고 가정하여도 실질 임금의 저하를 가져 온다.

남조선 통계는 1차적 분배와 2차적 분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 소득의 계급별 분배를 알기 곤난케 한다. 그러므로 재분배 과정과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재분배는 이미 물질 생산 부문에서 계급별로 분배된 소득을 이러저러한 경제 기구 및 국가 기구에 의하여 재분배하는 것이며 각 계급의 종국적 소득 규모를 결정한다.

남조선에 있어서 재분배의 통로는 각양하다. 즉 세금, 국채, 인플레 조성, 가격 조작, 소위 귀속 재산 불하, 상품 우스루가 구입 및 기타 등이다. 근로자들의 시초 소득은 이러한 재분배망을 통하여 최소한도로 축감되며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정부, 예속 자본가, 지주 등등의 소득은 증대된다. 재분배 과정의 중요한 통로를 살피기로 하자.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조세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대규모적으로 략탈한다. 모든 형태의 세금은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된다. 왜냐 하면 가격 인상 및 기타 일련의 경제 메하니즘에 의하여 착취 계급들은 조세 부담을 근로자에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남조선에 있어서 조세 제도는 수차 개정되였는바 착취 계급에 부담이 적고 근로자들에 부담이 무겁게 제정되였다.

일례로 1957년부터 실시되는 조세 개정은 《기간 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년한과 여기서의 배당 리자에 대한 감면제를 실시하였다. 물품세를 비롯하여 간접세 비중을 현저히 제고하고 직접세 비중을 축감하여 근로 대중의 부담을 증대시켰다. 소득세에 있어서 면세점이 인상되였다 하나 물가가 등귀되였다는 것, 다액 소득자들의 세률이 대폭적으로 저하되였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착취 계급들에 유리하게 개정된 것이다. 《지'가 상환곡》, 《토지 수득세》의 현물세 제도는 세률이 고률일 뿐만 아니라 인플레 조건하에서 농민의 세금 부담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그 밖에도 각종 지방세와 소위 잡부금 등의 제 형태는 무려 수십 종을 초과한다.

국민 소득의 재분배에 있어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세금은 간접세이다.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하여 근로자들의 반항을 비교적 적게 한다. 그러므로 괴뢰 정부는 간접세 증가의 방법을 택하였으며 그의 규모를 전년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실로 2 배나 증가시켰다.

1957년 예산에서 조세 수입은 총액 1,100억 3,842만 환으로 계상되여 있다. 수득세 계통에서 토지 수득세가 약 200억 환인바 이는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예산 수입에서의 량곡 가격 평가가 시'가의 몇 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계산되여 있기 때문이다. 1956년 12월 시'가를 참고로 이를 평가하면 적어도 170억 환을 훨씬 넘는다. 그러므로 토지 수득세는 370억 환 이상이 된다.

또한 각종 잡부금은 1954년도에 있어서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농촌에 있어서 30억 환을 초과한다. (《재정》1호, 1957년, 79페지). 매년 수행하는 100—150만 석의 강제 미곡 매상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입》되므로 실지에 있어서 매상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은 세금에 해당된다. 괴뢰 정부와 지주의 수입으로 되는 지'가 환상미는 1953년, 1954년에 있어서 120만 석을 초과하였으며 1956년에는 71만 5,000 석에 달하였다. 가령 1957년에 있어서 강제 매상이 100만 석, (1956년 계획과 동일함) 지'가 상환미가 70만 석 (작년도 《미수》분만 하여도 45만 1,215 석임)이며 강제 매상 가격이 1956년 12월 현재 시'가의 3분의 2라고 가정하여도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합 360억 환이 넘는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총 부담은 괴뢰군의 현지 물자 조달을 제외하고도 토지 수득세, 강매, 지'가 상환미, 잡부금을 합하여 760억 환이나 된다.

1957년 예산의 수득세 중에서 법인세, 급여 소득세, 토지 수득세, 지'가 상환미, 강매, 잡부금 등을 합하면 825억 환을 초과한다. 그것은 수득세 계통의 총액의 2 배에 가까운 것이다.

소비세 계통은 605억 3,749만 환의 거액에 달하는바 그 대부분은 근로 대중의 부담으로 되는 간접세이다. 이에 전매 익금 162억 환을 합하면 767억 환에 달한다. 이 밖에 지방세가 161억 환으로 계산되여 있는바 그의 대부분은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부담이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이 부담한 조세 총액은 실로 2,358억 환에 달한다. 반면에 사업 소득세 및 기타 일체 소득세를 합하여도 (급여 소득세와 토지 수득세 제외) 약 210억 환이며 따라서 예속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 계급의 부담은 근로자들의 부담의 9%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세금과 함께 국채에 의하여 국민 소득의 재분배를 수행한다. 채권은 그것이 어느 계급에서 소비되든지 간에 결국은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장차의 세금과 같은 것으로 된다. 국채 발행이 남조선 군사비 념출의 한 방법인 이상 비생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생산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맑스는 국채를 《소멸된 자본에 대한 서면상 부본》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채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삭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민의 저축, 실존하는 자본에 의하여 소화되지 않은 이상 통화 발행의 증가를 동반하며 인플레를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도 삭감한다.

국채 발행은 1956년에 벌써 541억 환을 초과하였는바 1957년에는 국채 및 애국 복권 합계 162억 환을 예상하고 있다. 이 방대한 금액은 《한국》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이 소화하며 《원조》 물자 인수자와 주민들에게 《소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견 근로 대중들의 《소화》액이 적다하여 결코 그들의 부담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원조》 물자 인수자들은 부과된 국채액을 벌써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 은행은 통화 증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조세 및 국채에 의하여 근로 대중을 대규모로 략탈하는 동시에 예속 자본가, 지주를 주로 하는 착취 계급들에 대하여 수탈한 국민 소득 또는 국민부의 일부를 넘겨 준다. 례컨대 《귀속 재산》 불하, 《원조》에 의한 신설 기업소의 양도 및 기타를 들 수 있다. 조선 방직 부산 공장 및 기타 6개 기업소 불하에 있어서만 하여도 예속 자본가들은 144억 환이나 리득을 보았다. 일제가 소유하였던 거의 모든 기업소, 광산들이 불하된 사정으로 보아 예속 자본가들이 얻은 리득금은 막대한 금액에 달할 것이다. 전후 군사적 성격을 띤 소위 《기간 산업》도 그 건설됨에 따라 예속 자본가들에게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다.

지주들에 대하여서는 소위 《귀속 농지 상환금》을 토지 대'가로서 반환하여 주었다.

남조선에 있어서 가격을 통한 국민 소득 재분배도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미국 잉여 상품의 독점 가격의 설정은 부등가 교환을 의미하며 국민 소득의 략취, 실질 소득의 삭감을 의미한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원조》 물자를 자본주의 시장 가격보다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례컨대 1955년에는 톤당 15 딸라의 석탄을 36 딸라로 판매하였다.

리 승만 괴뢰 정부도 《원조》 물자를 수 배의 고'가로 판매하며 군사비 조달에 광분하고 있다. 례하면 500 대 1의 환률이 설정된 이후 수입 비료 가격을 인상하여 1 년간에 208억 환을 략취하였다.

가격의 변동에 있어서 눈에 띠우는 것은 공업 상품과 농산품간의 현저한 협상 가격차의 존재이다. 농업 생산에 중요한 비료의 가격 변동은 1954—1957년 1월까지의 기간에 7.4배로 되여 있으나 곡가는 4.2 배로 등귀하였다. 일반적인 공업 상품과 대비하여도 역시 곡물 가격의 변동이 공업 상품의 가격 변동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다음 표에서 명백하다.

(1947=1)

	1948년	1950년 (6월)	1952년	1954년	1955년 (12월)
곡 물…	1.5	7.7	73.1	60.8	139.5
곡물 이외…	1.7	8.7	81.2	86.2	145.7

(《재정》 1957년, 1호, 47페지)

1957년 초의 곡가 변동은 공업 상품 가격에 비하여 더 등귀하고 있는바 이는 파국적인 식량 위기의 표현이다. 곡가 변동이 공업 상품 가격 변동보다 앞서 있다 하여 농민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모리배들에 유리한 것이다. 왜냐 하면 태반의 농민들은 이미 절량 상태에 빠졌으며 판매할 량곡이 없기 때문이다.

협상 가격으로 인한 국민 소득 재분배의 크기는 직접 결정할 수 없으나 농민의 소득이 계통적으로 상인, 무역 자본가 등의 수중으로 인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조선의 가격 체계는 자본가 계급 내에 있어서도 예속 자본가, 미국 잉여 상품 수입업자들에 유리하게 설정되여 있다. 민족 산업 생산품은 미제의 상품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여 있다. 그것은 수입 또는 도입 소비 상품에 대한 관세률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정도가 아닌 데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외자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설정된 500 대 1 환률의 강압적 유지 정책은 민족 산업을 전멸시키면서 있다.

남조선의 국민 소득 재분배 과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고리대의 흡혈귀적 역할이다. 생산의 축소, 인플레, 미국 잉여 상품의 범람 등은 생산 자본을 고리대 자본화하고 있다. 고리대는 생산에로의 국민 소득 리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생산 자본 자체를 침식하여 파산시키며 인민 생활을 령락케 한다. 남조선에서 은행 자금 자체도 고리대화하고 있다.

농민의 고리 부채만 하여도 1957년 초에 700억—1,000억 환이라고 한다. 이를 복리 계산하면 월 1할로 하여(남조선에서 가장 저리이다!) 1,496억 6,000만 환에 달한다. 고리대는 비단 소여 년도에 새로 창조된 가치——국민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부까지 탕진케 한다. 이는 대중적 령락을 가져 오며 단순 재생산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중 소 기업가들에 대한 은행 대부도 융자 운동비, 수수료, 1 개월분 리자 선납하면 복리 계산하여 결국 년 7할 2분 3리이 된다고 한다(《재정》 1957년, 7호, 61 페지).

남조선에서 인플레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삭감하며 예속 자본가, 투기 분자들을 치부케 한다. 로동자들은 상품 가격 등귀를 기다려 유일한 상품인 로동력을 《퇴장》시킬 수 없으며 생활난으로써 가장 불리한 인플레의 조건하에서도 로동력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 물가의 등귀보다 로임 인상은 언제나 굼뜨다. 인플레의 파문이 농민에 도달할 때 도시에서는 벌써 새로운 물가 등귀가 있으며 협상 가격차는 더욱 커진다. 또한 상품 곡물은 고사하고 자기 식량도 부족한 대다수 농민들은 판매자로서 시장에 등장함이 드문 것이다. 국민 소득의 재분배를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정은 고려되여야 한다.

지주, 부농들의 일차적 분배의 몫을 표시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우선 남조선 총농호 223만 4천 여 호가 세금 및 고리대 부채의 부담을 공제하고 생활비, 축적을 위하여 얼마나 남는가를 규정하여 보기로 하자.

1957년에 농업에서 생산될 국민 소득은 3,337억 8,300만 환으로 되여 있다. 세금 부담과 고리대 부채는 총계 2,256억 6,000만 환의 거액에 달한다. 만약 이에 조건적으로 간접세 및 지방세의 40%인 371억 2,000만 환을 가산하면 2,627억 6,000만 환이 된다.

농업에서의 국민 소득 생산은 1957년 예측 추계에 있어서 3,337억 8,300만 환으로 평가되는바 우리가 우에서 본 토지 수득세, 강매, 지'가 상환미 등의 과소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그 부족 계산분 (잡부금 및 계산된 토지 수득세는 제외) 530억 환을 가산하면 3,867억 8,300만 환이 된다. 이리하여 농업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에서 총부담 2,627억 6,000만 환을 감한 잔고 1,240억 2,300만 환이 농업 주민들의 생계비와 농업의 확대 재생산에 리용할 수 있는 몫이다.

1954년 7월—1955년 6월 1 년간의 농가 생계비는 《한국 은행》 생계 조사에 의하면 19만 1,375 환이다. 물론 그간에 물가 등귀가 있었으며 피선택 농가들의 지출 구조에는 토지 매각, 차입금, 근친 방조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부유한 농가는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국민 소득 잔액은 다만 64만 8,000 여 호의 순 생계비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농호 158만 6,000 호는 하등의 생계 수단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가재, 토지를 판매하며 초근 목식으로 일시적으로 연명하다가 류랑민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조선에 있어서 1957년 2월 말 현재로 절량 농가가 98만 호이며 곡창 지대 충북에서 80% 농가가 절량하였다 (《자유 신문》 4월 말 현재)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립맥 선매, 립도 선매, 혹전 선매 등의 현상, 추수를 앞두고 고리대, 지주, 부농에 시달려 도주하는 현상이 과연 일반적 현상이 아닐 수 있겠는가! 남조선 농민들은 괴뢰 정부의 매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기아에서 신음하고 있다.

여기서는 확대 재생산 커녕 단순 재생산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

로동 계급의 상태도 비참하다. 로동자 수에 관한 자료와 로임 폰드 총액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남반부 잡지에서 공장 로동자 30만이라는 수'자와 광업, 건설업 및 제조업 부문의 근로 소득 총액이 (《재정부》의 1957년 국민 소득 추계표) 833억 환의 수'자에 의한다면 도시의 최소 생활비 72만 환의 3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 소득의 《근로 소득》 중에는 사무원들의 봉급이 포함되며 일용 로동자들의 로임도 계상되여 있는 반면에 상기 30 만명은 사무원 수도 일용 로동자 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용》 기업체 로동자 및 사무원들은 적자 예산을 메꾸기 위한 강제 저축을 강요 당하고 있다. 소득세, 간접세, 인플레가 이들을 중압한다.

이 모든 사정과 실업자가 360만에 달한다는 사실은 로동 계급 전체가 혹심한 빈궁 속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중 소 기업가들도 미국 잉여 상품의 범람, 고리대의 성행, 세금 부담 등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고 있다. 국민 소득 중에서 이들의 몫으로 돌아 오는 것은 크지 않으며 자금 융자도 빈 수형에 불과한 것이다. 《긴축 정책》, 《초긴축 정책》은 로동자와 농민을 더욱 빈궁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 소 기업가들을 자금난, 원료난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15 명의 예속 자본가만 하여도 무려 60억 환의 리득을 이 기간에 얻었다(《재정》 1957년, 6호, 64 페지).

남조선에서의 세금, 국채 부담은 놀랄만한 거액에 달하고 있다. 이미 우에서 계산된 자료들을 합한다면 실로 2,520억 환이며 국민 소득 (토지 수득세, 강매, 지'가 상환곡의 미계산 530억 가산)의 38.7%에 달한다. 이것은 림업, 수산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에서의 국민 소득의 2.6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이 막대한 예산은 전연 비생산적으로 리용된다. 우선 직접적 군사비만 하여도 1957년에 660억 환(대충 자금 전입분 제외)이며 군량비 180만 석 즉 540억 환을 합하여 1,200억 환이 된다. 만약 간접적 군사비까지 합한다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국민 소득에서의 대량적 략취는 재생산 과정을 더욱 심각히 파괴할 수 밖에 없다. 최저 생활비로도 되지 않는 국민 소득 잔액은 과거의 축적까지 침식하며 경제를 류례 없이 황폐케 할 것은 명백하다. 주민 1인당 4 메타 빠듯 되는 면직물 생산 수준을 가진 남조선 방직 공업이 파산에 빠지면서도 해외 판로를 떠벌리고 있다. 이 빈약한 생산보다 수요 능력은 더욱 빈약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남조선 국민 소득 계산의 허위성, 그의 생산 규모 및 부문별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민 소득의 분배 및 재분배의 계급적 본질을 구명하였다.

* *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남조선을 군사 정치적으로 예속시켜 완전히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민 소득의 대부분을 괴뢰 군대를 육성 강화하며 파쑈적인 테로 통치 제도를 강화하며 예속 자본가, 지주, 친미파 등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정치적 지주인 착취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리용되고 근로자들을 기아와 빈궁으로 몰아 넣고 있는 데서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국민 소득의 생산 규모를 허위적으로 과장함으로써 마치 남조선의 산업 경제가 발전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소득이 장성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남반부 경제의 자주적인 발전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쇠퇴와 파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전환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빈궁과 령락을 증대시켜 계급적 모순이 가일층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예속과 착취의 강화, 산업과 농업의 쇠퇴와 파탄, 빈궁과 령락의 증대——이것이 소위 남조선에서 국민 소득 장성을 떠벌리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이 비저낸 현실이다.

프란스 스와르지가 쓰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은 한 개의 기생 군대를 가진 인민들의 수용소처럼 되였다.》

우리 조국 남조선 땅에서의 이와 같은 고통과 불행의 근원은 바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있으며 미제의 침략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데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이 근절되고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의 테로 통치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남반부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도 달성될 수 없다. 남반부 인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통하여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남반부의 애국적 인민들은 북반부 인민들의 달성한 성과들에 고무되면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진출하고 있다. 우리 전체 조선 인민들은 통일되고 단결된 힘으로써 조국의 통일 독립의 위업을 달성할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김 일성 종합 대학 경제학부 통계학 강좌

군비 축소는 평화의 공고화와 국제 긴장 상태 완화의 중요 조건

리 중 희

군비 축소 문제의 옳은 해결은 현 시기 평화를 공고화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군비 경쟁과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축적이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 공고한 평화에 대한 확고한 담보는 있을 수 없다.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서부 렬강 침략 계층들이 국제 긴장 상태를 유지 격화시키며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이 때에 군비 축소 문제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특별한 관심사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레닌적 평화 애호 정책을 자기의 행동 지침으로 삼고 있는 쏘련은 이러한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대표하여 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 여 년에 걸쳐 군비 경쟁의 종식, 각국 병력과 군비의 축소, 핵 무기의 생산 및 사용 금지, 그리고 그의 실험 중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성의를 다 기울여 왔다.

쏘련 정부는 군비 축소 문제가 토의되던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와 그리고 각종 국제적 회합들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을 루차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비 축소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참작하여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군비 축소 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1백 84만 명의 병력과 그에 해당되는 군비를 축소하여 국방비를 삭감하는 등 실천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서부 렬강 침략 계층은 쏘련의 이러한 모범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비 축소 문제 해결을 백방으로 방해 파탄시켜 왔다. 그들은 군비 축소 문제에서 쏘련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난관이 해결되면 새로운 난관을 고의적으로 조성하며 지어 자기 자신들이 제기하였던 방안들까지도 쏘련이 이를 접수하면 그를 철회하고 뒤로 물러 서는 파렴치한 행동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군비 축소의 필요성에 관한 막연한 공담을 늘여 놓으면서 그 연막 뒤에 숨어 대대적인 군비 확장과 핵 무기의 축적에 광분하고 있으며 새 전쟁 준비를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특별 원자 기동 부대들을 타국 령토에 배치할 데 관한 미국 정부의 계획은 미국 지배층이 원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 모든 침략적 조치들은 미국 지배층의 《평화 애호심》에 관한 선언이나 군비 축소에 대한 그들의 공담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서부 렬강 지배층들이 실제에 있어서 군비 축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비 경쟁과 군비 확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서부 렬강 지배층들이 이와 같은 군비 확장을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그들이 첨예한 국제 긴장 상태의 유지 강화와 발광적 군비 경쟁의 격화를 무한정한 초과 리윤을 짜내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둘째로, 그들은 방대한 군수 물자 예비의 조성, 불건전한 신용 판매의 증대 등 인공적인 방법으로 경제 공황의 도래를 일시적이라도 연장하여 보려고 하고 있으며,

끝으로 군비 축소에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짐으로써 긴장 상태가 현저히 완화되며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기만적 구호 밑에 얽어 매 놓은 자기들의 침략적인 각종 군사 쁠럭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그들의 지배 체계가 허물어 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평화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실질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군비 축소 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 로선, 즉 군비를 근본적으로 축소하며 원자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쏘련의 로선과 군비 확장을 획책하는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서방측 로선이 대립되여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로선이 10 여 년간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는바 우선 각국의 병력 및 상용 군비를 얼마만한 수준으로 축소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기 동서간에 수다한 론쟁이 벌러졌으며 쏘련의 진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합의 달성이 거의 확실하게 되였다가는 서부 렬강의 방해로 그 때마다 파탄되고 말았다.

이 문제에 대한 쏘련의 근본적인 립장은 각국의 병력과 상용 군비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며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삭감하며 나아가서 국가들 간의 신임이 현저히 강화되는

시기에 가서는 각국의 병력을 자국의 국경을 경비하며 국내 치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로까지 축소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부 렬강은 병력과 상용 군비의 축소를 실제에 있어서는 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련뎐 군비 축소 위원회 4월 11일 회의에서 미국 대표 스타쎈이 《미국은 대폭적인 병력 삭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쏘련은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병력과 상용 군비를 가장 대폭적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부 렬강의 립장을 고려하여 호상 접수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55년 5월에 쏘련, 중국 및 미국의 병력 수준을 100—150만 명으로, 영국과 불란서의 병력 수준을 65만 명으로 설정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이전에 서부 렬강이 제기한 수준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서부 렬강은 이에 대하여 명백한 회답을 하지 않고 1956년 3월부터 5월 기간에 진행된 군비 축소 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쏘련, 중국 및 미국의 병력 수준을 250만 명으로, 영국과 불란서의 병력 수준을 75만 명으로 각각 높이 설정할 것을 제기하면서 그 이상 더 축소하기 위하여서는 기타 중요한 국제 문제들, 우선 독일 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병력과 상용 군비 축소에서의 합의 달성을 불가능케 하려고 시도하였다. 하나의 미해결 국제 문제를 다른 미해결 국제 문제에 련결시키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군비 축소 문제 해결에서 국제적 합의 달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투쟁하는 쏘련은 또 다시 1956년 7월에 제기한 자기의 방안에서 앞으로 더 군비를 축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우선 첫 조치로서 쏘련, 중국 및 미국의 병력 수준을 250만 명으로, 영국과 불란서의 병력 수준을 75만 명으로 설정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이번에도 병력과 상용 군비 축소 분야에서 의견 차이가 거의 소멸되였으나 서부 렬강은 핵 무기 금지와 함께 병력과 상용 군비 축소 문제를 미국의 《공중 개방안》의 해결에 종속시키면서 이에 반대하여 나섰다.

병력과 상용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쏘련은 광범한 령토, 긴 국경선, 국경 가까이에 포치되여 있는 쏘련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기지들이 존재한다는 자기의 특수한 전략적 위치를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쏘련은 반드시 장차 쏘련, 중국 및 미국의 병력을 100—150만 명으로 축소하며 영국과 불란서의 병력을 65만 명으로 축소한다는 확고한 약속이 없이 다만 쏘, 중, 미의 병력을 250만 명으로, 영 불의 병력을 75만 명으로 축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250만 명이란 수준은 미국의 일부 공식적 계층들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병력에서 오직 30만 명이라는 적은 수'자를 축소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바 핵 무기로 자기들의 군대를 무장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도의 병력 축소는 거의 아무런 유익성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 무기의 생산 및 사용 금지 문제는 현 시기에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거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론의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세를 고려하여 쏘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철저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 즉 쏘련은 각국이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며 이미 생산된 원자 및 수소 무기를 파괴하며 각국의 군비로부터 이를 제거하며 그리하여 그의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 렬강 특히 미국은 초기에 쏘련이 원자 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타산하에 자기들이 병력과 상용 군비에서 쏘련보다 《렬등》하기 때문에 원자 무기로써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는 황당 무계한 구실을 내놓았으며 원자 무기의 즉시적, 무조건적 금지에 관한 쏘련의 제안을 반대하면서 병력과 상용 군비의 축소에 관한 수준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 이후에 쏘련이 핵 무기 소유국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또한 병력 및 상용 군비에 관한 서부 렬강의 방안에 동의하게 되자 서부 렬강은 원자 및 수소 무기 금지에 관한 각국의 의무 리행 정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난하다는 구실 밑에 핵 무기 금지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 군비 축소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여 왔다. 미국은 심지어 《자위》라는 명목하에 핵 무기 사용을 합법화하려고까지 시도하고 있다.

서부 렬강은 실제에 있어서 핵 무기 생산의 금지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자기들의 부당한 립장을 세계 인민들 앞에서 기만하기 위하여 분렬성 물질의 생산만을 중지하자고 제기함으로써 이미 제조된 분렬성 물질을 가지고 핵 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미 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핵 무기 시험 중지 문제에 있어서도 서부 렬강은 이보다 못지 않게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핵 무기 시험의 림시적 중지에 관한 쏘련의 제의를 반대하고 있는 변명할 여지 없는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립장을 세계 여론 앞에 합리화하여 볼 발악적인 시도로써 최근에 아이젠하워는 소위 《깨끗한 수소탄》에 관한 신화를 조작해 내는 데까지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미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조소를 던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비 축소 문제에서 중요한 부문의 하나로 되는 군비 축소의 리행에 대한 엄격한 국제적 통제를 실시하며 불의 습격을 방지할 시찰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쏘련은 각국이 군비 축소의 의무를 여하히 리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관리 통제 기구를 설치할 것을 루차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쏘련은 미국이 처음부터 이 문제와 특히 《공중 개방안》을 가지고 전반적 군비 축소 문제 해결을 지연 파탄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비 축소 협정 참가국들의 령토에 지상 감시 초소를 설치함과 함께 나토와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의 주요 무력이 배치되여 있는 구라파 지역에 공중 시찰과 촬영을 실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를 적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국은 이 이상 더 통제 체계 문제를 가지고 군비 축소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없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촬영 대상 지역을 더 확장하여야 한다고 고집하여 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쏘련은 전 세계 인민의 절실한 념원인 평화를 위하여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군비 축소에 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항상 전쟁 모험과 군비 확장에 눈이 어두운 제국주의 렬강은 이 정당한 쏘련의 제안과 노력을 반대하여 발광적인 책동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군비 축소는 다시금 곤난한 지경에 빠지게 되였다. 때문에 금년 3월부터 련뎐에서 진행되여 온 쏘련, 미국, 영국, 불란서 및 카나다로 구성된 유엔 군비 축소 분과 위원회 회의는 전 세계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유엔 총회 제11차 회의에서 군비 축소 문제가 토의되였을 때에 쏘련과 기타 평화 애호 국가들은 총회에서 군비 축소 문제가 지체 없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축소를 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무서워하고 있는 서부 렬강은 총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전체 군비 축소 문제를 유엔 군비 축소 위원회와 동 분과 위원회로 넘기기에만 전력을 다하였다.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서부 렬강이 전체 군비 축소 문제를 유엔 군비 축소 위원회와 동 분과 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과 위원회 토의 과정이 잘 말하여 주었는바 분과 위원회에서의 토의 과정은 군비 축소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는 서부 렬강의 정체가 더욱 뚜렷이 폭로되였다.

쏘련 정부는 이번 분과 위원회 회의 초기에 유엔 총회 제11차 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내놓은 제의들과 의견들을 참작하여 작성된 합리적인 방안들을 분과 위원회 심의에 제출하였다.

쏘련 정부의 방안들에는 핵 무기의 생산 및 사용 금지, 병력 및 상용 군비의 축소, 군사비의 대폭적 삭감, 타국 령토상에 있는 군사 기지들의 철폐, 국제적 통제 기구의 창설 등에 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안들이 포함되여 있었다.

쏘련은 항상 군비 축소가 철저히 실시되며 원자 및 수소 무기가 완전히 금지됨으로써만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이 옳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 시기 서부 렬강이 이러한 광범하고 포괄적인 군비 축소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비 축소 분야에서 첫 단계의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철저한 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하기 위하여 군비 축소 문제에서 제한된 부분적인 조치들을 취하는데 대하여 국제적 합의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쏘련은 4월 30일에 《부분적 군비 축소와 관련한 제안》 및 《세계 평화와 안전을 강화할 조치에 관한 선언서》 초안을 분과 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방안들에는 군비 축소 분야에서 시급히 실현되여야 할 최소한도의 초보적인 조치들이 예견되여 있다.

첫째로 병력 및 상용 군비를 축소하는 분야에서 쏘련은 장차 쏘련, 중국 및 미국의 병력 수준을 150만 명으로, 영국 및 불란서의 병력 수준을 65만 명으로 축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우선 쏘련, 중국 및 미국의 병력 수준을 250만 명으로, 영국 및 불란서의 병력 수준을 75만 명으로 설정하며 이에 따라 우선 상용 군비와 군사 예산을 15% 삭감하며 장차 다시 합의되는 수준으로 이를 더 축감할 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둘째로 쏘련은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 테두리 안에 군비 축소 실행에 관한 국제적 통제 기구를 설치하며 불의 습격을 방지하며 군비 축소에 대한 각국의 의무 리행 정형을 감독하기 위하여 호상성에 기초한 지상 감시 초소가 쏘련의 서부 국경 지역 및 미국의 동부 지역, 그리고 나토와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의 령토상에 설치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세째로 미국이 공중 시찰 및 촬영 문제에 대하여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서의 의견 불일치가 부분적 군비 축소 협정의 달성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고 미국이 공중 감시 및 촬영 대상 지역을 더 확장할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사실을 참작하여 쏘련은 구라파 뿐만 아니라 동부 씨베리, 연해주, 캄챠카, 싸할린을 포함한 극동의 광범한 지역, 합계 712만 9천 평방킬로메터, 그리고 미국령의 알라스카와 미국 본토의 서부 지역, 합계 706만 3천 평방킬로메터를 공중 촬영에 개방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네째로 선언서 초안에서 쏘련은 전쟁 선전을 금지하며 핵 무기의 완전 금지에로의 제일보로서 원자 및 수소 무기 수소 탄두를 가지고 있는 장거리 로케트 원자포 등을 포함하는 각종 원자 병기를 군사적 목적에 리용하지 않을 데 대한 엄숙한 의무를 질 것을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핵 무기의 시험 중지는 현 시기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렬강이 이의 즉시적이며 무조건적 금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비추어 쏘련은 자기의 6월 14일 방안에서 호상 접수될 수 있는 합의 도달을 위하여 림시적으로 2—3년 동안이라도 핵 무기 시험을 중지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호상성에 기초하여 쏘련, 미국, 영국의 령토상과 태평양 지역에 시험 중지 협정의 리행을 감독할 감시 초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금번 제안에 있어서 이 핵 무기 시험 금지에 관한 문제를 군비 축소의 전반적 문제에서 떼여 별도로 이를 달성하고 이로써 다른 군비 축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의 사업으로서 제기한 것이 특징적이다.

상술한 부분적 군비 축소에 관한 쏘련 정부의 제의는 전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 제의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명백한 정당성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람》지까지도 쏘련의 이 방안은 《의견 차이를 없애기 위한 로씨야측의 용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썼으며 지어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까지도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쏘련의 이 제안은 《고무적이며 신중한 토의를 진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쏘련의 금번 제안은 서부 렬강이 또 다시 반대하여 나설 수 있는 구실을 완전히 막아 버린 것으로 된다. 이에 당황한 미국 대표 스타쎈은 본국 정부와 협의한다느니 나토 동맹국들과의 사전 토의를 한다느니하는 구실 밑에 회담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보낸 끝에 6월 말에 가서야 쏘련의 이 정당한 제의를 반대하는 막연히 서술된 소위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부분적 군비 축소 문제 해결까지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으며 특히 주목할만 한 것은 2—3년간 핵 무기 시험을 중지할 데 대한 제안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부 렬강은 고의적으로 군비 축소 문제의 해결을 지연 방해할 목적 밑에 핵 무기 시험의 림시적 중지에 관하여서는 회답을 회피하여 오다가 8월 말에 가서야 소위 《자기들의 안》을 내놓았는 바 그 안에 의하면 분렬성 물질의 생산의 중지에 관한 합의가 달성되는 조건하에서만 12개월간 시험을 중지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하였다. 핵 무기 시험의 림시적 중지 문제를 다른 미해결 문제인 분렬성 물질의 생산 중지 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시험 중지 문제의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으며 그나마도 12개월간만 중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12개월이라는 기간은 미국의 출판물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차례의 핵 무기 시험을 한 후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한 기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서부 렬강은 핵 무기 시험의 림시적 중지 문제의 해결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부분적 군비 축소에 대한 협정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라야만 핵 무기 시험 중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물론 미국의 성명에는 시험 중지 기간을 12개월 더 추가할 데 관하여 언급은 되고 있으나 이 기간에 관한 합의 도달의 가능성은 그에 첨부된 어려운 조건들로 말미암아 매우 의아스러운 것이다.

이는 핵 무기의 사용 금지 문제에 관한 협정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4월 16일에 있은 군비 축소 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 스타쎈은 《미국은 유엔 헌장의 취지에 따라 자위상 핵 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고 말함으로써 핵 무기 전쟁에 대한 자기들의 의도를 솔직히 고백하였다.

그후 다시 서부 렬강은 8월 29일에 분과 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제안에서도 이러한 립장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근 반년간이나 진행되던 런던 군비 축소 회담 사업도 아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10 년 이상의 군비 축소에 관한 토의는 누가 진실로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누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오늘 평화를 유지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군비 축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그의 사업이 중단되고 만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을 위수로 하는 서부 렬강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조성된 현 국제 정세는 군비 축소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침략 계층들의 세력보다 군비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는 쏘련을 선두로 하는 평화 력량이 비할 바 없이 강대하며 원자 및 수소 무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계 도처에서 날이 갈 수록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군비 축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여야 하며 해결될 수 있는 국제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 쏘련의 대륙간의 탄도탄 시험 성공은 국제 정세, 더우기 군비 축소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쏘련의 지도자들이 성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강력한 무기는 오직 침략자들과 전쟁 모험자들에게만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평화적 공존과 평화 사업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조선 인민은 군비 축소 분야에서 서부 렬강이 자기들의 부당한 립장을 버리고 쏘련과 같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의를 표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당 생활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

조선 로동당 함남도 위원회
부위원장 리 택 근

우리 당 제3차 대회는 다른 모든 인민 경제 분야와 함께 수산 분야 앞에 거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특히 제3차 당 대회는 최근 수년간에 어획고를 급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소극적 어로 방법으로부터 적극적 어로 방법에로 전환할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함남도 수산업이 우리 나라 수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당 수산 정책을 정확히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 신중한 당적 주의를 돌리였다.

그러나 금년 초까지만 하여도 당 수산 정책은 도내 전반적 수산 부문에서 정확히 관철되지 못하였다. 도 당 위원회를 비롯한 도내 각급 당 위원회 일부 지도 일'군들과 수산 부문 지도 일'군들은 당 수산 정책에 형식적으로 대하면서 적극적 어로 방법의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의 보급을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하여 도내 적지 않은 어로 일'군들은 적극적 어로 방법의 도입에 노력하지 않고 의연히 낡은 소극적 어로 방법만 고집하게 되였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내에서의 당 수산 정책 집행 정형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를 관철시키기 위한 당 정치 사업의 개선 강화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리 도내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함남도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몇 가지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 수산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당 정치 사업을 한층 개선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지난 기간에 도내 전반적 수산 부문에서 적극적 어로 방법을 적용케 하며 어로 일'군들을 위한 당 정치 사업을 생산 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어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험도 쌓았다.

우리 함남도 당 단체들이 지난날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은 앞으로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수 있는 일정한 토대로 될 뿐이며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적극적 어로 방법을 도입

제3차 당 대회와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가 강조한 바와 같이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어획고를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는 심해, 원해 어로 방법과 근해 어로 방법을, 대규모 어로 방법과 중 소 어로 방법을 기동성 있게 배합하여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어로 방법을 도입 적용하는데 있다.

그런데 소극적이며 투기적인 어로 방법에만 관습된 일부 지도 일'군들과 어로 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적극적 어로 방법의 도입을 한때 잘 접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 수산 정책의 근저에 놓여 있는 리론적 및 현실적 기초들을 깊이 리해 파악하려고 노력할 대신에 이러저러한 구실을 부쳐 당 수산 정책의 정확 신속한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 서려고 하였으며 그에 피동적으로 대하는 경향들을 발로시켰다.

일부 일'군들은 《심해에는 고기가 적다》, 《현재 선박 기술 장비로써는 심해 어업은 곤난하다》, 《심해 어업은 위험하다》 등등의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낡은 어로 방법을 의연히 고집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심해용 기선을 심해와 원해 어업에 동원할 대신에 기선 저예망선의 예비 선박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일부 일'군들은 앉아서 《대어군》이 올 것만을 투기적으로 기다리면서 중 소 어업을 홀시하였다. 그들은 《세소 어업으로써 어느 세월에 국가 계획을 달성하겠는가?》, 《국영 수산 사업소는 중 소 어로

에 종사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어로에 종사하여야 한다》 등등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대어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에 함남도 내 수산 부문 일'군들의 지난해 심해와 원해에의 출어 일수는 총출어 일수의 11.1%에 불과하며 도내 국영 수산 사업소의 지난해 2.4분기 1인 당 어획고는 도내 수산 협동 조합의 같은 기간의 1인 당 어획고에 비하여 50% 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 도 내의 수산 사업소들은 수산 협동 조합에 비할바 없이 선박의 기술적 장비가 우수하며 수산 협동 조합원들은 목선으로 중 소 어업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상술한 바와 같은 결함을 극복하고 당 수산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킴에 있어서 우선 수산 부문 당 및 행정 관리 일'군들 속에서 당 정책에 신중히 대하지 않으며 그의 실현에 사상적으로 적극 동원되지 않으며 당성이 미약한 표현들을 극복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행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일부 일'군들이 갖고 있던 당 수산 정책에 대한 그릇된 태도, 당성이 미약한 표현들이 시정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속에 당 수산 정책이 깊이 침투되여 갔다.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행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당 단체들과 어로 일'군들의 회의에서는 종전에 당 정책에 형식적으로 대한 결과에 발생한 결함들을 폭로 비판하는 동시에 당 수산 정책을 정확히 관철시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 강구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절대 다수의 수산 부문 지도 일'군들과 핵심 당원들은 자기들이 지난날 당 수산 정책에 소홀히 대하였다는 것을 반성 비판하였으며 당 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사상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함남도 당 단체들은 수산 부문 지도 일'군들을 사상적으로 동원함과 함께 그들을 산 현실 속에서 당 정책 관철 대책을 강구하도록 어로 현장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적지 않은 동안 선박에서 어로 로동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소극적인 어로 방법으로부터 적극적인 어로 방법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며 어떠한 어로 작업 조직이 필요한가를 연구 파악함으로써 당 수산 정책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지도적이며 선봉적 역할을 보다 원만히 놀 수 있게 되였다.

투기적이며 소극적 어로 방법에만 관습되였으며 새것에 민감치 못한 일부 수산 부문 지도 일'군들과 전체 어로 로동자들에게 적극적 어로 방법 도입의 정당성을 일반적이며 일률적인 당 정치 사업만으로써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그들에게 적극적 어로 방법의 유리성과 가능성을 인식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실지 생산 활동과 결부된 당 정치 사업, 그리고 적극적 어로 방법의 유리성의 산모범을 실지 어로 작업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것이였다. 그러므로 우리 함남도 당 단체들은 수산 부문 내 당 핵심과 생산 혁신자들과의 사업을 한층 강화하면서 그들을 심해와 원해 어업, 중소 어업의 선두에 내세웠으며 그들의 경험과 성과들을 체계화하며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였다. 적극적 어로 작업의 성과와 경험들을 직접 목격한 지도 일'군들과 어로 로동자들은 적극적 어로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의 유리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였다.

실례로 차호 수산 사업소 초급 당 단체 총회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두가지 의견이 대립되였다. 핵심 당원들과 생산 혁신자들은 목선 심해 어업과 세소 어업을 능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를 위한 구체적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정당한 제의는 일시 낡은 인습에 사로 잡힌 로동자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투기적이며 소극적인 어로에 관습된 일부 어로 로동자들은 《고래부터 수산업은 투기적이였다》느니 등으로 적극적 어로 방법의 도입을 지지하여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대어군》이 나타나지 않으면 놀고 또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대어군》을 만나지 못하면 빈손으로 돌아 오는 폐단을 없애며 바다를 사철 비우지 않기 위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의 립장을 고집하였다.

초급 당 단체는 심해와 세소 어업의 유리성을 인식한 핵심 당원들과 생산 혁신자들의 어로 활동과 성과를 통하여 실지로 다른 로동자들에게 심해와 세소 어업의 유리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 전개하였다. 초급 당 단체는 오랜 어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 진수, 김 익청 동무들을 중심으로 한 어로반을 처음에는 200 메터의 등심선까지, 다음에는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400 메터의 등심선의 심해에까지 출어케 하였다. 그들은 첫날에 심해에서 연승 작업으로 척당 600 키로그람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그 후에는 매일 척당 평균 1.5 톤 이상의 물'고기를 잡아 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근해에서의 척당 평균 어획고에 비하면 약 700%에 달하는 것이다.

초급 당 단체는 핵심 당원들의 심해 어로와 세소 어업에서의 성과들을 생산 협의회, 강연회, 직장 신문, 벽보 기타 직관물을 통하여 광범히 보급시키는 동시에 부문별 당 단체들의 공개 회의와 선박 단위 종업원 회의들에서 토의케 하였다. 당 단체들의 이상과 같은 사업 조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낡은 의견만을 고집하던 로동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로동자들이 당 수산 정책의 정당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였으며 그들은 당 정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곳 어로 로동자들은 3종—4종으로 어구를 갖추어 가지고 앞을 다투어 심해로 나아가서 높은 어로 성과를 올리였다. 이곳 수산 사업소 어로 로동자들은 지난 상반년 기간에 심해 연승 어업으로 2,000 톤, 계획 외의 2종 중소 어업으로 353 톤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함남도 당 단체들은 이상과 같이 당 수산 정책의 관철, 즉 적극적 어로 방법의 도입을 위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도내 전체 어로 일'군들로 하여금 소극적인 어로 방법으로부터 적극적 어로 방법에로 전환케 하였다. 그렇게 됨으로써 도내 수산 부문 일'군들은 지난 2.4분기 동안에 중요 어로 대상이던 고등어와 멸치의 회유 상태가 아주 불량한 조건하에서 심해와 원해 어업, 중소 어업의 적극적인 적용으로써 계획외 3,200 여 톤의 물'고기를 더 잡았다.

지금 함남도 내의 수산업은 적극적인 어로 방법에로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난날에 함남도 내 수산 일'군들이 거둔 성과는 당의 요구와 인민 경제적 수요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초보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어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투쟁

대해 속의 수산 자원을 성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산 자원과 해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일정한 경험을 소유하여야 한다. 원해 어업과 심해 어업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일부 일'군들은 어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에 등한함으로써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새 과업의 요구의 수준에로 제고시키지 못하였다.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어로 로동은 막로동이므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기 잡이는 수가 좋아야 한다》, 《고기 잡이에서는 경험이 제일이다》 등등의 부당한 구실로서 어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거의 방임하고 있었었다. 일부 수산 사업소들에서는 어로 일'군들을 위한 기술 학습과 기술 전습 체계가 혼란 상태에 놓여 있었거나 유명 무실한 현상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기술 수준이 낮은 적지 않은 어로 일'군들은 해양과 어족 서식, 해저질과 어족 서식, 개별적 어족들의 습성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함이 없이 순수한 자기 경험에만 의거함으로써 종종 어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어로 일'군들은 선박의 속력, 선박의 견인력, 수심, 어군 회유 속도 등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지 못하여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현상을 종종 발로시켰다. 심지어 일부 선장들은 선박에 장치된 콤파스로써 항행 방향을 잡을 대신에 높은 산 봉우리를 바라보고서야 방향을 잡군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방향을 잡는 선장들은 기후 조건과 기타 조건들이 정상적이 아닌 경우에는 때때로 어장을 찾아 몇 시간씩 헤매는가 하면 예기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항행하는 사실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 지도 일'군들은 간혹 조직하는 기술 전습도 실지 생산과의 긴밀한 련계 없이 형식적이며 교조주의적으로 진행하였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어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 사업에서의 일련의 결함을 퇴치하기 위하여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기술 전습 사업을 어로 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는데 선차적 주의를 돌렸다. 기술자들은 종전과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어로 로동자들이 상륙하는 기회만을 기다리던 경향을 없애고 어로 로동자들의 작업장——선박에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실지 어로 활동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 전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술자들은 오랜 어로 로동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로동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높이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것은 어로 로동자들의 풍부한 경험이 선진적 과학 기술과 옳게 배합될 때에는 훌륭한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은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새 기술 기능을 용이하게 그리고 다른 미경험 로동자들보다 확고하게 배울 수 있으며 또한 배운 것을 실지 작업에 비교적 빨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기술 전습 방법은 기술 전습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함에 있어서나 기술자들 자신이 어로 경험이 풍부한 로동자들에게서, 생동하는 현실 속에서 배움에 있어 효과적이였다. 따라서 기술자들은 어로 작업에서 가장 애로로 되는 기술적 문제가 무엇이며 기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 고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기술 전습 사업을 조직하며 해당한 대책들을 제때에 강구 실시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실지 생산과 결부된 기술 전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풍부한 어로 경험들을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정리 체계화하면서 점차 어로 활동에 보다 과학성과 정확성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신입 로동자 특히 청년 로동자들을 위한 기술 전습 사업은 어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다. 신입 로동자 특히 청년 로동자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고기 잡이에 나서므로 배타기에 능숙치 못한 로동자들이 많았다. 때문에 신입 로동자들에게는 배타기를 비롯한 어로 로동에서의 초보적인 것부터 전습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므로 함남도 당 단체들은 신입 청년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반 리론 기술 전습을 진행함과 함께 신입 청년 로동자들을 선장, 어로장, 어로 경험이 풍부한 로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담시켜 실무적인 것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실례로 전진 수산 사업소 선장 김 덕모 동무는 신입 청년 로동자 김 순만 동무를 개별 담당 지도하였다. 선장은 처음에 청년 로동자에게 배에서 멀미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선박 기관부의 구조와 조타를 잡는 방법을 조급함이 없이 세밀히 전습시켰다. 선장 동무는 신입 청년 로동자가 배타기에 어느 정도 익숙하여진 다음에 각종 어로 작업 방법을 전습시켰다. 즉 로뿌 서리는 동작으로부터 시작하여 투망 방법까지를 가르쳤는바 청년 로동자는 3각형, 4각형, 5각형 투망 방법과 편망 방법까지도 배웠다. 선장은 신입 로동자를 담당 지도하여 1 년도 못 되는 사이에 그가 선장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청년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이상과 같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청년 로동자들의 어로 로동 경험과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정도를 충분히 타산하면서 《청년호》 선박을 조직하여 그들이 새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발기의 선두에 서게함으로써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려는 의욕을 한층 북돋아 주었다. 지난 봄에 서호 수산 사업소에서는 《청년호》 건착선을 조직하였다. 이 청년 로동자들은 지난 2. 4분기 동안에 종전에 건착망 꼽등어 어로에서 애로로 되였던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은 40 여 회에 걸치는 협의회에서 꼽등어의 습성을 세밀히 연구하였으며 호상 경험을 꾸준히 교환하였다. 그들은 기술자들의 방조를 받아 꼽등어의 습성을 옳게 타산함으로써 건착망으로 꼽등어를 잡는데 성공하였다. 지난 봄까지만하여도 우리 나라의 전체 어로 일’군들은 건착망으로써는 꼽등어를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었다. 청년 로동자들의 이 발기는 건착망의 리용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로 되였으며 어로의 계절적 제한성을 극복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였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어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전개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어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아직 새로운 과업의 요구와 선박 기타 어구들의 기술적 장비 정도에 뒤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 함남도 당 단체들은 당 수산 정책의 보다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어로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할 것이다.

어로 일’군들을 위한 당 사업은 주로 선박 우에서 조직 진행되여야 한다.

어로 일’군들을 위한 당 정치 사업은 어로 현장——선박 우에서 조직 전개되여야 하며 당 정치 사업의 성과는 어로 활동과의 밀접한 련계 여부에 달려 있다. 어로 일’군들은 년중 80% 이상의 시간을 선박 우에서 보내며 그들의 어로 작업은 선박 우에서 시작되여 선박 우에서 끝나게 되며 륙지에서의 작업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난날 함남도 내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어로 일’군들의 작업상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당 사업을 조직 전개하였다. 그들은 어로 로동자들 속에서의 당 사업을 선박 우에서는 조직 전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어로 로동자들이 상륙한 기회만을 리용하여 당 사업을 진행하였다. 심지어 일부 당 단체들과 일부 일’군들은 이상과 같이 어로 로동자들 속에서의 당 사업을 생산 활동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로 수산 부문 당 사업의 특수성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도내 일부 지도 일’군들은 어로 일’군들의 작업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로 일’군들이 상륙하면 일률적으로 회의, 학습회, 강연회 등등을 소집하면서 그의 회수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였다. 결과에 이러저러한 회의들에는 어로, 가공, 공무, 사무 등 각 부문의 일’군들이 참가하게 되는바 그들의 작업 성질과 시간은 서로 다른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로 일’군들은 오랜 시간의 어로 작업과 배타기에서 피로하였으므로 상륙하면 우선 일정한 휴식을 요구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저러한 회의에 참가한 어로 로동자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피곤에 견디지 못하여 토의되는 문제에 관심을 적게 돌리며 은근히 회의가 빨리 끝날 것만을 고대하게 된다. 또한 적지 않은 어로 로동자들은 시간과 작업 조직 관계로 각종 모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우리 도 내에서는 수산 부문에서 가장 주도적 부문인 어로 부문 일’군들 속에서의 당 사업이 아주 불원만하게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결함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사업을 어로 일’군들의 생산 활동과 결부시키며 해상——선박 우에서 조직 전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사업은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어로 활동에 적응하게 해상——선박 우에서 주로 조직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우선 선박 우에서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주되는 당 사업을 수시로 조직 진행할 수 있도록 종전에 불합리하게 조직되였던 일부 당 단체들을 개별적 선박 단위로 당 단체를 조직 개편하였다. 당 단체를 조직할 수 없는 적은 선박은 2—3개를 통합하여 당 단체를 조직하였다. 물론 우리들이 어로 부문에서 개별적 선박 단위로 당 단체를 조직한 것은 어디까지나 어로 부문에서 당 단체의 조직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첫 조치에 불과한 것이였는바 앞으로 계속 당 단체들의 조직 체계를 연구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사업을 주로 선박 내에서 조직 진행하도록 실재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당 단체들은 지도 일’군들을 개별적 선박에 파견하여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해석 침투시키면서 그의 실행 대책을 어로 로동자들과 더불어 토의케 하였다. 동시에 어로 작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들을 창발적 열성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케 하였으며 선박들이 출항 또는 귀항하는 로상에서의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각종의 당 정치 사업을 조직 전개케 하였다. 그럼으로써 어로 로동자들 속에서 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으며 반면에 어로 로동자들이 상륙한 시간은 거의 그들의 래일의 작업을 위한 휴식에 돌릴 수 있게 되였다.

함남도 당 단체들이 어로 일’군들을 위한 당 사업을 선박 우에서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로 작업에서 여러가지 긍정적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다. 실례로 신포 수산 사업소 10호 심해 기선이 처음으로 심해 어업에 동원되였을 때였다. 10호 기선 선장을 비롯한 일부 로동자들은 도달된 심해 어장에 고기가 많지 않다 하여 심해 어업의 유리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근해에로 돌아 갈 것을 주장하였다. 선박 우에서 당 회의가 진행되였다. 핵심 당원들은 당 수산 정책을 적극 옹호하여 나섰다. 당원들의 적극적인 제의에 의하여 10호 선박은 근해로 돌아 갈 대신에 더 깊은 바다로 나갔다. 그들은 예기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다른 실례로 륙대 수산 사업소 정치망 기선은 바다로부터 40—50분간에 어망을 끌어 올려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거의 120분간을 소비하여 어망 리용률 제고와 어획고 제고에서 지장을 받았다. 선박 당 단체 회의는 어망을 끌어 올리는 시간을 단

축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많은 당원들은 어망을 끌어 올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원인이 표준 조작법을 위반하는데 있다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표준 조작법이 준수됨과 함께 어망을 끌어 올리는 시간은 단축되였다. 전진, 차호 수산 사업소를 비롯한 도내 다수 수산 사업소 어로 일'군 당 단체들은 선박 우에서 기동성 있게 당 회의를 열고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바 거기에서는 어군 탐색, 투망 방법의 개선 등의 어로 활동에서 절실한 문제들이 상정 토의되였다.

함남도 당 단체들은 어로 로동자들 속에서의 당 사업을 선박 우에서 진행함과 관련하여 그들을 위한 계급 교양 사업을 한층 개선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어로 부문 당 단체들은 선박의 출항과 귀항 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언제나 전체 당원들이 한 선박 내에 집중되여 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할 수 있었다. 우리 함남도 당 단체들은 어로 일'군들 속에 아직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 무규률성, 자유주의 등을 극복하고 그들을 참다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육성하기 위한 계급 교양 사업을 조직 진행함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방법을 퇴치하고 그들의 작업상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조건들을 충분히 타산하였다. 본래 어로 로동자들은 어로 작업 행정에서 모두다 빈틈 없는 규률적인 일치 동작으로써 행동하며 험한 파도를 만났을 때에도 서로 협조하여 위험과 곤난을 극복하는 등으로 용감성과 단결성이 강하며 호상 협조의 정신이 두텁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서로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무원칙하게 융화하며 개인 리기주의, 무규률성, 국가 재산 략취 등의 부정적 현상들과의 투쟁을 거의 전개하지 않고 가족주의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다수 어로 로동자들은 오랜 어로 로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만을 믿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 들이지 않는 습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남도 당 단체들은 어로 일'군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긍정적 측면을 한층 발전시키며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데 신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당 단체들은 선박에서 학습회, 강연회, 좌담회, 직관 선전 등을 진행할 때에 작업 과정과 선원들의 생활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옳게 결부시켜 어로 일'군들의 실정에 적응한 계급 교양 사업을 진행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함남도 당 단체들은 민청 단체를 비롯한 근로 단체들을 동원하여 인민들 속에서 어로 일'군들의 사업의 중요성을 해석 선전하는 동시에 어로 일'군들의 영예감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후에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청년 로동자들의 비중은 16%로부터 24%로 제고되였으며 어로 일'군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 *

함남도 당 단체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을 일보 전진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축성한 데 불과한 것이다.

함남도 당 단체는 동기 어로를 앞두고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을 한층 개선 강화함으로써 동기 어로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을 위한 투쟁과 조국 광복회

김 형 탁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은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하에 적극적인 무장 투쟁의 새로운 단계에로 전화 발전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무장 투쟁의 지도적 핵심은 자기의 혁명적 활동에 있어서 불패의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확고히 립각하여 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을 기초 지어 놓았으며 무장 투쟁을 대중의 정치, 경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조직, 령도하면서 조선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 력사에서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혁명적 전통을 이룩하였다. 특히 1935년에 조선 인민의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로서 출현한 조국 광복회는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서 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 강화하며, 로동 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국제 로동 운동과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한층 강화함에 있어서와 또한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을 위한 투쟁과 조국 광복회에 대한 심오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이것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대중적 동맹자에 관한 문제이다.

로동 계급이 그의 혁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력량의 편성에 있어서 자기의 동맹자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인 전략 문제이다. 특히 식민지 혁명에 있어서 로동 계급은 전국의 대다수 주민을 포괄하는 광범한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동맹자들과 굳게 손을 잡지 않고서는 민족적 해방의 위업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 있어서 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박은 례외 없이 봉건적 압박과 결합되여 있으며 이 두 압박의 청산, 이것이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혁명의 기본이니만큼 제국주의적 압박의 청산은 동시에 봉건적 압박의 청산과 결합되게 되며 또 결합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 해방 혁명은 외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그의 예봉이 돌려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이 투쟁에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건적 압박의 청산에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 대중을 궐기시킴으로써 만이 이 혁명의 전개력, 생활력이 강력해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혁명에 있어서 로동 계급이 령도자로 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농민을 확고히 동맹자로 전취해야 한다.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이것은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의 핵심이며 그의 기본 력량이다. 매개 식민지 예속 국가 로동 계급, 그의 당 앞에는 그의 동맹자 문제에 있어서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관계를 신중히 처리할 과업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것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부르죠아지는 종주국의 부르죠아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외래 제국주의의

압박이 예속 부르죠아지에 대해서와는 반대로 민족 부르죠아지의 리해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로부터 민족 부르죠아지가 일정한 단계에서 일정한 기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혁명 운동을 지지할 수 있다.

때문에 로동 계급, 그의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족 부르죠아지와 공개적 뿔럭을 맺을 수 있으며 또 맺어야 한다.

그런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통일 전선은 로동 계급, 그의 당이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적 및 조직적 사업을 수행하며, 로동 계급을 독자적인 정치적 력량으로 조직하며 지주를 반대하여 농민을 궐기시키며, 로동자, 농민의 혁명 운동을 공공연히 조직하며, 이리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그러한 원칙과 조건하에서만 혁명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만일 이 원칙을 어긴다면 그는 결국 민족 부르죠아지에의 투항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민족 부르죠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의 계급적 제한성과 비겁성, 동요성의 측면만을 보면서 민족 부르죠아지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유해한 편향인 것이다.

레닌은 대중적 동맹자에 관한 전술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자기보다 강한 적을 승리한다는 것은 오직 최대의 노력을 다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적들 사이에 있는 온갖 구렬(龜裂)——그것이 비록 사소할지라도——과 각국 부르죠아지들 사이에 있는, 그리고 각개 국내 부르죠아지의 각종 그루빠들과 그 각 종류들 사이에 있는——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나마——그 온갖 리해 관계의 대립과 또한 대중적 동맹자——비록 일시적이며 불안정하고 불견고하고 믿을 수 없고 조건부적인 것일지라도——를 획득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을 반드시 가장 치밀하게, 가장 용의 주도하게, 가장 신중하게, 가장 능란하게 리용할 때에라야만 가능하다.

맑스—레닌주의의 이 전술적 원칙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예속 국가의 로동 계급이 그의 강한 적——외래 제국주의 및 그와 공모하는 예속 자본가, 봉건 지주 기타 반혁명 세력을 반대하여 적 진영 내부의 각종 모순을 리용하는데 정통하며 숙련된 정책으로써 우선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소부르죠아지 및 민족 부르죠아지까지 포함한 일체 애국적, 진보적 요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 들이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광범한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는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이 결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1920년대에 대중의 혁명 운동이 급속히 장성하기는 했으나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당이 수립되지 못하였던 것과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25년에 창건된 조선 공산당은 그 대렬의 압도적 다수가 소부르죠아 인테리들로 구성되였으며 종파 분자들의 분렬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그러한 당이 대중에 대한, 통일 전선 운동에 대한 혁명적 지도를 보장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엘파》들은 1927년에 조직되였던 《신간회》가 조선에서의 첫 반일 통일 전선 조직인듯이 주장하였다. 그들은 《신간회》를 로동자, 농민, 혁명적 인테리, 중 소 민족 부르죠아지들의 《혁명적 뿔럭》이니, 《통일 전선》이니, 《당적 형태 즉 민족 단일당》 이니 하고 선전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일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민흥회》, 《신간회》가《신간회》에 통합되였는 바 이는 반제국주의적인 대중 조직으로 발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엠엘파의 종파 소굴로 전화한 조선 공산당이 《신간회》 내에서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적인 독자적 정책을 내세울 수 없었으며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민족주의적 환상의 위험을 간파, 극복하도록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정치적 훈련을 강화하며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 로농 동맹을 형성 강화하며 이 기초우에서 반제 력량을 단합하며 그의 전제로서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철석같이 강화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원칙적 요구들이 보장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그 어떠한 조직도 진정한 통일 전선의 조직으로 될 수 없었다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다. 사실에 있어서 당시 《신간회》 지도부에 들어 간 절대 다수는 몰락 량반과 도시 소부르죠아지 및 소부르죠아 인테리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독자성을 고수할 대신에 그들에게 지

도권을 넘겨 주었던 것이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신간회로》 라는 기'발 밑에 로동 계급의 정치적 력량을 장성시키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꾸준히 강화하는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신간회》를 당 우에 올려 세우며 로동 계급의 독자성을 소부르죠아적 민족주의에 용해시키는 우경 투항주의를 고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간회》가 《통일 전선체》 이니, 공산당이 신간회를 《령도》하였다느니 하는 것은 당시 조선 공산당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엠엘파》의 종파 활동을 옹호하기 위한 것 외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1920년대에 로동 계급의 령도권의 확립,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형성은 실현되지 못하고 절실한 객관적 요구로만 남아 있게 되였었다.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었던 반일 민족 통일 전선 형성은 오직 1930년대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 선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서만 옳은 로선 우에서 실현되였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걸쳐 미증유의 파괴력을 가지고 전개되였던 경제 공황의 심중한 피해를 입게 된 일제는 가장 반동적인 파쑈 통치 정책으로 조선 인민에 대한 전례 없는 탄압과 강탈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 및 사회·계급적 모순을 일층 격화시켰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로동자, 농민의 대중적, 혁명적 진출에 기초하여 무장한 반혁명에 대한 무장한 혁명의 대항——계급 투쟁의 최고 형태인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는 로선을 제기하고 그의 실현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경주하였다. 그들은 국내, 국외에서 전개된 광범한 대중들의 반일 폭동을 조직화하며 그것에 의식성을 부여하여 선진적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로 되는 첫 항일 무장 유격대를 결성하고 1931년부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길에 들어 섰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지침으로 한 이 항일 무장 투쟁은 시종일관 인민 대중 속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박았으며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 구호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장성되는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의거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을 조직 지도함과 함께 20년대의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의 결함과 해독을 청산하고 정확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을 확립 실천하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에 의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을 위한 투쟁 행정은 항일 무장 투쟁의 강화 발전 행정과 밀접히 결합되였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유격 부대의 핵심으로 되였으며 이들은 유격 부대의 사상 조직적 통일과 강철같은 자각적 규률을 보장하며 매개 유격 대원들을 고상한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면서 유격 부대의 전투력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유격 대원들을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대중 조직은 유격대의 지반이다》라는 구호 밑에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의 강화를 위한 투쟁에 꾸준히 궐기시켰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구호들의 실현을 저애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는 각종 해독적인 편향과 오유들——좌경 기회주의, 맹동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등을 극복 청산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종파 잔재들과의 부단하고 무자비한 투쟁을 언제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도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대렬 내에서는 1928년 조선 공산당을 해산의 운명에까지 이르게 한 엠엘파, 서울파, 서상파, 화요파 등 종파 집단들과 기타 종파 분자들의 치욕적인 종파 투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것은 공산주의 대렬과 대중 운동에 심중한 분렬적, 파괴적 해독을 끼쳤다. 더우기 이 종파 분자들의 모든 반맑스—레닌주의적 죄행들은 공산주의 대렬과 민족 해방 운동 진영을 와해시키려고 발광하는 일제 강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 주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무장 투쟁 강화와 반일 통일 전선 형성을 위한 투쟁에서 반종파 투쟁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좌우경적 기회주의 편향들과 종파를 반대하는 투쟁은 공산주의 대렬의 사상 행동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확대 강화하는 주요 담보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항일 무장 투쟁의 지도적 핵심은 간고한 전투 행정에서 1932년—1934년에 걸쳐 장백산 일대와 송화강 일대에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을 창설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 실시된 혁명적 제 대책은 혁명 군중의 조직과 유격 투쟁의 대중적 정치, 경제적 지반을 일층 확대 강화시켰다. 해방 지구 내에서는 인민 혁명 정권이 수립되였으며 반동적 매국 지주 및 일제 주구들의 재산은 몰수되여 공공 기금 또는 구제금으로 충당되였으며 농민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권리의 보장, 즉 매국적 지주의 토지 몰수와 그를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하는 일방 소작료의 제한 정책이 취해졌으며 로동자들에 대한 8시간 로동제 실시, 녀성들의 해방, 주민들에 대한 혁명적 교육 정책과 민족들 간의 차별 대우의 페지 등 대책들이 실시되였다. 이 모든 혁명적 제 대책의 실시는 로동 계급의 령도권의 확립과 로농 동맹의 형성, 토지 문제와 민족 문제의 밀접한 결합 등 민족 해방 혁명의 당면한 중요 임무들이 이미 구현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 달성된 이와 같은 정치적 성과는 조선 혁명 발전을 위한 고귀한 산 경험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또한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 투사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주었다. 그리하여 항일 유격 부대 주위에는 광범한 반일 군중 조직들——반제 동맹, 반일회, 청년 의용군, 농민 협회, 농민 자위대, 반일 부녀회, 생산 유격대 등이 조직되였으며 따라서 수 많은 혁명 군중이 조직되게 되였다. 이 대중 단체들은 항일 유격 부대들과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인전대였었다.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에 의하여 1934년 봄에는 대련합 부대로서의 조선 인민 혁명군이 창건되였는바 이는 항일 유격 전선의 통일을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 인민 혁명군의 창건은 동만과 남만 일대 반일 유격 부대들이 단일한 전선을 결성하여 대규모적 기동 전투로써 적에게 보다 큰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는 적들의 항일 유격 전선 분렬 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항일 유격 투쟁이 달성한 빛나는 군사, 정치적 성과들은 국내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반일 투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1930년대 전반기에 있어서 국내 각 지방들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좌익 로동 조합 및 좌익 농민 조합 운동이 치렬하게 전개되였으며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은 정치적 성격을 날카롭게 띠고 더욱 대중적 범위로 확대되여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 대중의 이 모든 진출은 아직 분산성과 자연 발생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국 내에는 이 모든 투쟁을 통일적으로 옳게 조직할 수 있는 진정한 령도적 핵심이 없었기 때문이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환경하에서 동북 일대의 혁명적 항일 빨찌산 부대들과 그 속에 있는 공산주의적 핵심들 간의 련계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조만 국경 지대에로 진출시켜 일제 군경과의 투쟁을 한층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것은 국 내외의 광범한 반일 력량을 민족 해방 투쟁의 기'발 밑에 전일적인 반제 전선에로 단합시키며 국내 혁명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였다. 이 시기에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 있는 기본 조건들도 성숙되여 가고 있었다.

조선 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쑈적 폭압과 략탈의 강화로 말미암아 조선 인민의 생활에서는 현저한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었다. 로동 계급과 함께 농민 대중 속에서는 일제 타도와 토지 혁명이 없이는, 또한 강력한 민족 해방 전쟁이 없이는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정치적 각성과 반일 기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여 가고 있었다. 또한 절대 다수 민족 부르조아지들은 파산과 몰락의 운명에 빠졌으며 광범한 소부르조아층은 절망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제를 항거하는 민족적 적개심은 나라의 전체 민중들 속에서 날로 팽배되여 가고 있었는바 대다수의 종교인들과 지어 일부 중 소 지주들 속에서까지도 불만과 동요의 징조가 농후하여 지고 있었다. 변천된 정세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동 계급과 농민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며 그의 령도하에 반일 투쟁을 공동적으로 전개하려는 일체 력량을 집결 확대할 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각계 각층 인민의 이상과 같은 동향이 계급적 리해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민족적 해방의 리익을 위하여 단일한 반일 투쟁 전선에 련합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더욱 풍부화시키고 있었다. 다른 한편 견실한 공산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지도적 핵심이 형성되여 있었다는 사실은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기본 담보였다. 이 시기에 비록 우리 나라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당은 없었지만 국제 공산당과 밀접한 련계하에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을 능숙하게 우리 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적 핵심——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통일 전선을 형성 강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내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강력한 조선 인민 혁명군에 의하여 보위되는 유격 근거지—혁명 근거지에서 혁명 군중이 훈련되였으며 통일 전선을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이 육성되였다.

이리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를 결성하는 문제가 운동의 성숙된 요구로서 제기되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 성숙된 요구는 해결되였는바 그들이 제기한 통일 전선 로선은 당시 국제 로동 운동 앞에 제기되였던 반파쑈 인민 전선 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였었다. 당시 국제적 규모에서 대두하고 있었던 파시즘을 반대하는 인민 전선 운동의 제창자는 국제 공산당이였다. 파쑈 독일은 위대한 쏘련을 침공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모든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 이태리가 가담하여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을 파쑈의 노예로 만들려고 발광하였다. 파시즘을 저지시키지 않고서는 인류는 무서운 재난을 면할 수 없었다. 파시즘을 저지시키는 위업은 각국 로동 계급의 전투적 적극성을 강화하며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확보하는 토대 우에서 모든 비프로레타리아층에 대한 그의 영향을 강화하며 종주국 근로자들과 식민지 및 반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간의 전투적 동맹을 강화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었다. 동방에서 파시즘의 아성인 일제를 반대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 애국 력량을 결속하는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동시에 국제 반파쑈 인민 전선 운동의 강화에 커다란 기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항일 무장 투쟁의 급격한 장성과 그 영향하에 국 내외의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와 그의 결속이 강화됨에 따라 일제와 그의 주구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더 커갔다. 그리하여 1934년경부터 일만군경의 항일 빨찌산 부대에 대한 군사 정치적 공세는 더욱 강화되였다. 1934년 겨울에 일제는 수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동기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것이 실패되자 그들은 1935년 봄에 병력을 더욱 증강하여 소위 춘기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때부터 일제는 종래의 전술을 바꾸어 개개의 유격구를 떼여 내여 격파하려 하였다. 이것은 빨찌산 부대에게 커다란 위험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적의 발악적 공세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군사적 대책과 전반적으로 조선 혁명 운동을 가일층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 방침을 강구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그리하여 1935년 봄에 왕청현 요영구 지방에서 소집되였던 조선 인민 혁명군 동만 군정 간부 회의는 조성된 정세하에서 새로운 군사적 및 정치적 활동 방침을 규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요지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제시하였다. 즉 파시즘의 대두와 그로 인한 새 전쟁 도발 음모가 로골화되고 또 이에 대치한 반파쑈 인민 전선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반일 군중을 혁명 대오에 집결해야 하는만큼 항일 무장 투쟁을 국내 혁명 운동과 직접 련결시켜 국내 운동을 고무 추동하여야 하였으며 그리하여 동북에서는 물론 국내에서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조직적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했다. 이를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애국 력량을 반일 통일 전선에 단합시킬 것이며 이 통일 전선의 구체적 조직 형태로서 재만 한인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는 것이였으며 이 조직을 점차 확대하여 국 내에서의 통일 전선 운동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군사적으로는 적들의 소위 《대 포위 토벌 작전》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유격 근거지를 사수하는 데만 구애할 것이 아니라 유격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 국 내에까지 확대하며 유격 근거지 주민들에 대한 군사 정치적 훈련을 일층 강화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을 계속 확대 강화하는 것이였다.

요영 군정 간부 회의에서 채택된 방침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이를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직접 우수한 인민 혁명군 부대를 인솔하고 북만 원정(北滿

遠征)을 조직하였다. 이 북만 원정은 항일 빨찌산에 대한 포위 공격을 좌절시키고 적 후방 교란선을 확장하여 적에게 부단한 타격을 주기 위한 군사적 목적과 함께 국제 혁명 력량과의 긴밀한 련계하에 반일 단체에로의 대중 집결 사업을 강화하여 통일 전선 결성을 위한 정치 조직적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는 북만 원정으로부터 우리 나라 북부 국경 장백 지구로 진출하였다. 이는 빨찌산 부대와 국내 혁명 운동과 련계를 밀접히 하며 통일 전선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제 조건을 보장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하에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북만 원정과 장백 지구 진출에 이르는 행정에서 적과의 가렬한 전투에서 커다란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광범한 대중을 반일 조직에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반일회》와 같은 대중 조직은 적의 통치 구역에까지 깊이 뿌리 박고 더욱 확대 장성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조국 광복회 결성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조국 광복회 결성 준비 위원회는 국 내외의 광범한 지역에서 결성 준비 선언문을 보급 침투시켰으며 많은 조직 사업을 전개하였다. 드디어 1935년에는 조국 광복회가 결성되였다.

조국 광복회는 종래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있었던 반일 대중 단체들을 단합하였으며 국 내외에 분산되여 있었던 모든 반일 대중 조직들은 물론 일체 애국적 요소들을 개인의 자격으로서도 포섭하는 조직 로선을 취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성된 정세하에서 가능한 모든 동맹자들을, 지어는 개별적 인사들까지도 조국 광복회에 결속함으로써 적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보다 확대 강화하려는 신축성 있는 능동적 조치였다. 조국 광복회는 우리 나라의 민족 해방 운동사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 온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빛나는 첫 결실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일 통일 전선 결성을 위한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빨찌산 투쟁을 진행함과 동시에 레닌의 학설에 의거하여 당시 국 내외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통일적 민족 전선으로 단합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였다》(김 일성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조국 광복회는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을 1930년대 우리 나라의 력사적 환경과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다음과 같은 력사적인 자기의 10대 강령을 선포하였다.

《조선 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 통일 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 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

《조 중 민족의 친밀한 련합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만주국>을 전복하고 중국 인민들이 자기가 선거한 혁명 정부를 창설하며 중국 령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할 것》.

《일본 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 조선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혁명 군대를 조직할 것》.

《일본 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 기관 및 매국적 친일 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 운동의 경제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 제도를 취소하고 대중 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농 상업을 장애 없이 발전시킬 것》.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왜놈의 공포 정책 실현과 봉건 사상 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 등 차별 없는 일률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

《노예 로동과 노예 교육의 철폐, 강제 군사 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군사 교육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의무적 면비 교육을 실시할 것》.

《8 시간 로동제 실시, 로동 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로동 법안의 확정, 국가 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 대중을 구제할 것》.

《조선 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현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

이 강령은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의 력사적 문헌으로서 무장 투쟁을 대중의 정치, 경제적 투쟁 구호와 결합시키고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의 장래 전망과 지향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예견한 정치 로선의 제시였다. 이 강령은 반제국주의적 과업과 반봉건적, 민주주의적 과업들을 유기적으로 정확히 결합시키는 로선들을 명시하였으며 1930년대 우리 나라의 인민적 민족 해방 운동의 목적과 성격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을 내리였다. 강령의 전체 사상은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과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 동맹에 관한 리념 및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으로써 일관되여 있다. 강령은 모든 혁명에 있어서 근본 문제로 되는 주권 문제에 있어서 광범한 반일 통일 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 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여기에서 인민이란 개념은 강령의 모든 조항을 고찰하면 명백한 바와 같이 친일 지주, 예속 자본가 기타 친일 주구,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로동자, 농민, 광범한 소부르죠아지 및 친일하지 않는 모든 민족 부르죠아지도 포함한 각계 각층의 대중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반일 통일 전선 실현으로써 인민 정부 수립—이 로선은 김 일성 동지가 국재 혁명 운동 및 항일 무장 투쟁의 고귀한 경험에 립각하여 천명한 것으로써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가능한 일체 동맹자를 조직 단결하여 민족 해방 투쟁의 공동 기치 밑에 총진군하는 로선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였다. 동시에 이 인민 정부 로선은 새로운 인민 정권 형태를 예고한 것이였다.

강령에는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들이 정연하게 밝혀져 있다. 즉 인민 정부를 전취 공고화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수행할 과업들——혁명군의 조직, 일제와 그 주구들의 토지의 몰수, 일제와 친일파, 민족 반역자, 예속 자본가들의 소유인 모든 생산 수단의 사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그에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 상응한 제반 대책들——민족 부르죠아지의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 로동자들에 대한 8 시간 로동제와 로동 보호재의 실시,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악독한 일제 잔재 및 봉건 잔재의 숙청과 광범한 민권의 옹호, 민족 문화와 인민 교육의 발전 등 기본 문제들이 선포되여 있다.

특히 강령에서는 혁명 력량의 집결을 고려하여 전체 지주 토지의 몰수가 아니라 친일 반동 지주의 토지 몰수만 예견하였다. 이것은 강령이 중 소 지주의 토지 몰수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제의 야수적 폭압하에서 중 소 지주층에서까지 동요가 일어 나고 있는 특수한 반일 정세에 적응하기 위한 전술적 방침에서 제기된 것이였다. 또한 강령에서는 친선적 국가들과의 우의 단결의 강화가 강조되였는바 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명백한 표현이였다.

실로 조국 광복회의 강령은 1930년대 조선 현실에 가장 부합되게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작성한 선진적, 혁명적 강령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장래 전망과 목적을 명확히 천명한 강령이였다. 그리고 이 강령은 당시에 벌써 앞으로 창건될 당의 최저 강령을 명백하게 표현한 것이였다.

조국 광복회 강령은 앙양되는 대중의 반일 기세를 목적 의식화 및 조직화하여 그들의 혁명적 투쟁을 고무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였으며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좌우경적, 기회주의적 견해를 분별하는 지표로, 그를 분쇄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였다. 또한 강령은 공산주의 대렬 내의 사상 및 정치 로선상 견해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분산된 혁명 조직들을 통일 결속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와 항일 무장 투쟁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조국 광복회 운동은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였으며 거대한 전개력을 가지고 계속 발전되였다.

* *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조국 광복회가 논 역할은 거대한 것이였다. 조국 광복회의 출현——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민족적 독립과 자유의 기'발을 계속 높이 들고 애국 력량을 조국 해방을 위한 공동 투쟁의 기치 밑에 집결시키면서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 강화하는 획기적 사변으로 되였다.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가지고 조직된 조국 광복회는 조선 주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동만 지방에 널리 분포되였으며 그 조직은 각 현 공작 위원회를 단위로 구 지부, 소조, 분조의 체계로 형성되였다.

이 조직들의 지도부에는 단련된 빨찌산 부대의 간부들과 지방 출신 간부들이 선발 배치되였다. 조국 광복회의 조직망은 불과 수 개월 동안에 동만 일대에 널리 퍼지였고 특히 인민 혁명군 주력이 집결한 장백 지구 일대에서 대중적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그 하나의 례로서 장백현 공작 위원회만 보더라도 그 조직 체계는 상강구, 중하강구, 하강구를 통하여 각 동,리에 침투되여 지부와 반 조직이 40여 개에 달하게 되였으며 이 조직은 지방의 대중 단체였던 농민 협회, 반일 부녀회, 반일 청년회 등 단체들과 밀접한 련계하에 대중 정치 사업과 빨찌산 부대 원호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무장 투쟁의 지도적 핵심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다수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 혁명 단체들과 련계를 맺으면서 조국 광복회의 조직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는 광범한 조직 정치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조국 광복회의 조직망은 함경남북도 일대의 산업 중심지들과 농촌들을 비롯하여 철원, 서울 등 국내 중심지에까지 확대되여 갔다.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조직된 《조선 민족 해방 동맹》에 의하여 지도되였는바 그의 지방 조직체들은 공작 위원회, 반일 청년 동맹, 반일 구원회, 부녀 해방 동맹, 반일회 등등으로 다양한 력량을 흡수하였다.

조국 광복회가 제시한 《모든 력량을 통일 전선에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모든 힘을 합치여 반일 투쟁에 바치자》라는 구호는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 이 구호를 따라 재만 동포들은 조국 광복회에,국내의 반일 력량은 민족 해방 동맹에 집결되여 갔다. 그리하여 조직된지 얼마 안되여 조국 광복회 산하에 20여 만의 혁명적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 대중이 단결하였다. 1937년 중엽에 이르러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은 38개의 하부 조직과 외곽 단체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의 지도하에 함남 반일 투쟁 동맹과 함북 반일 동맹 및 그 산하의 좌익 로조와 좌익 농조 기타 하부 조직들을 결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국 광복회에 구현된 정확한 통일 전선 정책과 조선 인민의 리해에 알맞는 정치 로선은 날이 갈 수록 인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여 갔다.

조국 광복회는 당시 혁명 운동의 기본 주류였던 항일 무장 투쟁과 대중의 정치,경제 투쟁을 긴밀히 련결시켰으며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 강화시켰다. 조국 광복회가 확대 강화됨에 따라 장백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조선 인민 혁명군의 빛나는 군사, 정치적 성과들은 국내 인민들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면서 거대한 영향을 미치였다. 국내의 인민 대중은 항일 무장 투쟁에 고무되면서 해방에 대한 신심도 드높이 반제,반봉건 투쟁에 힘차게 궐기하였다. 특히 함경남북도 일대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로동 운동이 계속 발전하였으며 토지와 자유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더욱 대중적으로 발전되여 혁명의 강력한 분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선진적 로동자, 농민 청년들이 유격 근거지를 찾아 갔으며 인민들은 항일 유격 부대들에게 물심 량면으로 되는 지지 성원을 보내였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의 대오는 1936년에 이르러서는 실로 수만 여 명에 달하는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하였으며 일제에게 더욱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되였던 것이다. 일제 강점하의 암담한 침묵을 깨뜨리고 국내에 진군하여 일제에게 심중한 타격을 가한 력사적인 보천보 전투 기타 여러 차례에 걸친 국내 진공 전투,조중 국경선 일대와 동북 일대에서 전개된 대규모적 기동 전투들과 그의 빛나는 승리들은 조국 광복회의 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였다.

또한 조국 광복회는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조국 광복회를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그것을 민족 통일 전선을 확대하는 조직적 임무의 한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였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지도적 핵심은 박 달, 박 금철 동지들을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로 조직된 《공산당 건설을 위한 소조》였는바 이 소조는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국내 거점으로 되여 있었다.

국내에 파견된 다수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각 지방에서 분산적이며 수공업적인 투쟁을 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여 공산주의적 핵심을 형성하고 이를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지도적 핵심의 주위에 집결시키면서 공산주의 대오의 통일과 확대 공고화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로동자, 농민 기타 근로 인민들을 조국 광복회 조직체들의 주위에 계속 집결시키면서 이를 공산주의적 핵심이 지도케 함으로써 실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시키며 투쟁에서 검열된 선진 분자들로써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확대 강화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조국 광복회의 기관지 《3.1월간》,《화전민》 기타 혁명적 출판물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조선의 확대되는 군중 운동을 여하히 조직할 것인가》 등등의 많은 소책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선진적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및 유격 대원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당 건설을 위한 조직, 사상적 제 과업, 광범한 통일 전선 형성과 그 확대 강화 대책, 대중 운동에 대한 조직 지도 대책, 악독한 종파 잔재 숙청 대책 등 조선 혁명 운동 앞에 당면하여 나서고 있는 제 문제에 대한 명백한 지침을 주었다.

이와 같이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통일 전선 확대 강화와 함께 국내 공산주의자들과의 련계의 강화, 공산주의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국내 혁명 단체들 및 대중 운동과의 련계의 강화, 맑스—레닌주의의 보급 등으로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를 부단히 추진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조성된 혁명 정세를 옳게 파악한 기초 우에서 무장 투쟁을 대중의 정치, 경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조선 인민의 항일 해방 투쟁은 장차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를 이루었으며 우리 혁명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조국 광복회는 또한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령도를 일층 확고히 하였다. 시종일관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의거하였고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하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가 선포한 로선에 고무되여 토지와 자유를 위한 농민 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였던 사실 등은 로농 동맹의 확고한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특히 조국 광복회가 전국적 범위로 확대 강화됨에 따라 그가 선포한 《일본 제국주의 타도!》,《광범한 민족 통일 전선으로 인민 정부 수립》,《침략 전쟁 반대》 등의 정치적 구호하에 로동자, 농민들은 물론 동요하던 광범한 소부르죠아지와 적지 않은 민족 부르죠아지들까지도 공산주의자들의 뒤를 따라 일제와 싸워 나가게 되였던 사실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가 일층 확고히 실현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조국 광복회는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과 쏘련을 선두로 하는 국제 민주 력량과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였으며 반일 공동 투쟁에서 조 중 량국 인민간의 전투적, 혁명적 친선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활동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일관되여 있었으며 그것은 또한 직접 국제 반파쑈 인민 전선 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었다.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민족 해방 투쟁의 기'발과 함께 항상 《쏘련을 선전하며 옹호하자》, 《중국 혁명을 지지하자》,《침략 전쟁 반대》 등등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구호를 제기하고 항일 무장 투쟁과 대중의 반제,반봉건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아갔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조선 혁명과 국제 로동 운동과의 련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 발전되였으며 특히 조 중 량국 인민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의 견실한 토대가 구축되였다.

* *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하에 진행된 항일 혁명 투쟁, 반일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을 위한 투쟁은 조선 혁명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다.

해방 후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불패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령도하면서 시종일관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

끈쓸따찌야

본 질 과 현 상

리 종 윤

자연 및 사회에서 어떠한 사물 및 그의 발전 과정의 본질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물 및 그의 발전 과정의 일정한 내'적 련계를 그의 본질이라고 리해하며 본질의 일정한 표현 형식을 현상이라고 리해한다.

인식의 범주로서의 본질과 현상은 객관 세계의 가장 광범하고 기본적인 내'적 및 외'적 련계를 반영하며 우리의 인식 행정이 심화되여 가는 과정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범주의 도움으로 사물의 내'적 본성, 그의 발전 법칙 등을 인식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물질 세계의 사물 제 현상의 호상 련계는 복잡하며 다양하다.

거기에는 본질적, 내'적,필연적 련계들과 비본질적, 외'적, 우연적 련계 등이 존재한다. 매개 현상은 이 매개 련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그를 표현한다. 왜냐 하면 본질적 및 비본질적, 필연적 및 우연적 련계 등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물 현상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물질 세계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것들 가운데는 공통한 그 무엇이 있다.

우리가 생물계를 관찰할 때 우리는 우선 그가 웅대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감촉하게 된다. 현대 생물학은 약 30만 종의 식물들을 알고 있으며 약 150만 종의 동물들을 알고 있다. 이 식물들과 동물들은 서로 다르며 또 각이한 생활 조건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그것들이 모두 성장하며 번식하며 발생하며 사멸한다는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생명체의 생활 현상이다.

그러면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생명이란 단백질의 존재 양식이다. 그리고 이 존재 양식은 그 본질에 있어서 섭식과 배설에 의한 단백체의 화학적 성분의 부단한 갱신에 있다》(《반듀링론》 조선로동당 출판사 판, 454 페지).

사회 현상도 역시 복잡하며 다양하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일정한 공통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례컨대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는 나라의 복잡한 구체적,력사적 조건들과 국제 국내 정세, 나라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 수준, 계급적 력량 관계 등등에 의하여 불가피적으로 일정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과도 형태, 방법이 각이하게 되며 또 정치적 주권 형태도 역시 각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니 그것은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인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세계의 복잡한 현상 속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의 정확한 구별은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만일 우리가 본질적인 것,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전히 개별적이고 비본질적이며 우연한 표징들을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것을 똑바로 포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매사에 오유를 피면할 수 없다.

자연, 사회의 허다한 현상들은 심히 본질적인 특징들에 의하여 서로 구별된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각종 형태의 현상을 통하여 표현된다. 표현되지 않는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본질이건 반드시 이런 혹은 저런 형태의 현상을 통하여 표현된다.

례컨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기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이 본질은 그에 고유한 경쟁, 생산의 무정부성,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등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들을 산생시킨다.이 모든 현상은 자본주의의 불가피적 동반자이며 그의 본질을 반영한 현상 형태인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산생시키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본질, 즉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사회적 제 관계의 본질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창설함으로써 자본주의에 고유한 제 현상——경쟁,생산의 무정부성, 착취를 폐절하며 새로운 동지적 호상 원조와 공동 로동에서의 호상 지지 등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산생시킨다.

이와 같이 낡은 본질이 청산되면 그 본질을 표현하는 현상도 청산되며 새로운 본질의 발생은 그에 상응한 새로운 현상을 출현시킨다.

이상의 례증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즉 본질은 항상 현상을 통하여 표현되며 그리고 현상은 언제나 본질을 표현한다. 따라서 현상은 각이한 형태로 표현되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닌은《본질은 표현되며 현상은 본질적인 것이다》(《철학 노트》, 237 페지)라고 하였다.

본질과 현상은 이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통일되여 있다. 이 통일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변증법적 통일인 것이다. 이 통일은 객관적 물질 세계의 복잡한 통일을 표현한다.

본질과 현상은 밀접하게 통일되여 있으나 우리는 또한 그것을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현상은 때때로 사물의 실제적 본질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직접 모순되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또 사물의 본질적인 면을 외곡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또는 저런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어떤 현상은 본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나 다른 현상은 본질을 덜 표현하고 있거나 또는 심지어 외곡되게 표현한다.

본질적인 현상은 사물 대상의 실제적 본질을 더욱 완전히 표현한다. 때문에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론하면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리해하기 위해서는 한갓 그의 본질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본질이 표현되는 본질적 현상 즉 표현 형태까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이 지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레닌은 그러한 본질적인 현상으로서 자본의 독점 현상을 들었다. 자본의 독점, 집중화는 가장 뚜렷하게 제국주의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질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본질을 아주 외곡되게 표현하는 현상도 종종 있다. 례컨대 단순히 관찰한다면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회전하는 것같이 보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지구 및 기타 유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회전한다. 자본가에게 고용되고 있는 로동자의 임금은 표면상으로는 로동자의 전체 로동에 대한 지불로써 나타나나 실은 그의 로동의 일부분만이 지불되고 로동의 나머지 부분 즉 추가 로동의 부분은 자본가들의 리윤의 원천으로 되는 잉여 가치의 형태로서 자본가들에게 의하여 무상으로 점유된다.

이와 같이 본질과 현상간에는 불일치와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과 현상을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또 부분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조급하게 본질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 외모에 의하여 옳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사람의 외모는 그가 실지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의 사업, 그의 행동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사회 및 자연 현상에 대하여 한갓 그의 현상만을 가지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본질과 현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본질과 현상을 절대적으로 분리시키는 경향과도, 본질과 현상을 동일시 하는 속류 경험주의와도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만일 본질과 현상이 일치한다면 맑스가 《자본론》에서 쓴 바와 같이 온갖 과학이 무용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또한 본질과 현상의 불일치성을 절대화하고 그것들을 서로 련관 없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칸트의 불가지론에 전락되지 않을 수

없다.

칸트는 인간의 모든 지식은 감각으로부터 생긴다고 옳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본질과 현상간의 상호 련관성, 변증법적 통일을 보지 못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사물의 본질은 인식할 수 없는 《물 자체》라고 규정하고 그를 신앙에 넘겨 주라고 권고하였다.

사물 현상의 본질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과 현상의 변증법적 통일성과 그의 불일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또 부분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본질을 규정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연구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중성이 없이는 우리는 사물 현상의 실제적 본질을 리해할 수 없으며 엄중한 리론적 및 실천적 오유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본질과 현상을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사물은 부단한 변화 발전 과정에 있으므로 사물의 본질도 역시 변화 발전 과정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운동 밖에서는 사물 현상의 실제적 본질을 리해할 수 없다.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념두에 두고 우리가 사업한다면 사업 과정에서 많은 오유와 결함들을 피면할 수 있으며 사업상 큰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타산하였으며 우리 현실의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기본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 당과 정부 정책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일'군들 가운데는 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피상적으로만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사상, 즉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대신에 당 정책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판단들을 함으로써 엄중한 과오들을 범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다.

례컨대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데로부터 일부 일'군들이 범한 좌우경적인 오유들은 바로 그러한 례로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의 본질은 결코 우리 나라에서의 적아간의 모순을 경시하거나 적아간의 적대적 모순을 무디게 하여 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다.

당의 관대 정책의 이러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데로부터 일부 일'군들은 그 정책이 원쑤에 대한 독재의 한 개 수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를 그릇되게 집행함으로써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은 당의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데로부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명백한 계선을 알지 못함으로써 산생된 과오들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기회주의, 수정주의자들과 또는 반당적, 반인민적 분자들은 그들의 반맑스주의적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부분적인 현상들로써 본질을 규정하여 보려고 하며 부분적이며 본질적이 아닌 현상을 과장 외곡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들을 수정 외곡하려 하며 그리하여 자기들의 기회주의적 반인민적, 반당적 행동을 엄폐하여 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수'법은 모든 반맑스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국제 로동 운동의 력사는 그러한 사실들을 수다히 알고 있는바 최근 시기에만 하여도, 례컨대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폭로 규탄된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반동들이 일으킨 소동과 발맞추어 일부 나라들의 수정주의적, 기회주의적 요소들이 마치도 개인 숭배를 산생시킨 근원이 쏘베트 제도 자체 내에 있다고 하면서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의 《비민주주의적 성격》을 《론증》하여 보려고 시도한 사실이라든가 또는 웽그리야 사건 이후에 있어서 일부 나라들에서 공산주의적 로선에서 탈선한 일부 수정주의 분자들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면서 이러저러하게 떠벌인 주지되여 있는 그 모든 수정주의적 견해들은 바로 우연적이고 부차적인 현상을 과장함으로써 그를 본질과 동일시하려는 부르죠아 어용 학자들의 형이상학적 수'법과 하등의 차이점도 없는 것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 분쇄된 최 창익, 박 창옥, 서 휘, 윤 공흠, 리 필규 등 반당적 종파 분자들의 사상 행동도 국제 기회주의자들의 반인민적 사상 행동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여 소위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렬하고 반인민적인 책동을 시도하면서 허위적인 공담들을 늘여 놓았다. 그들은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구호 밑에 마치도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로선이 인민 생활 향상과 대치되는 것으로 떠벌리면서 우리 당의 전후 경제 발전의 총로선 즉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정책을 반대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단편적인 현상들을 수집하여 그것을 외곡 과장하여 당 정책의 《부당성》을 《론증》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현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것이였다.

현실은 우리 당의 경제 발전의 총로선의 정당성, 그 거대한 생활력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써 확증하여 주고 있으며 반당 종파 분자들의 반인민적 행동을 여실히 폭로하여 주고 있다. 그들의 일체 행동은 인민 생활 향상과는 상반되는 것이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문제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 가능하며 또 객관적으로 필요한 합법칙성인 것이다. 우리 나라 조건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없이는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 인민 생활의 계통적인 향상이 보장될 수 없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공업 발전이 경공업과 농업 발전의 토대로 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특수한 조건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례컨대 식량 문제의 해결에서 경지 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는 정당 수확고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바 이것은 중공업 부문인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요구한다. 대 소의 관개 하천 공사도 기계 공업 제품과 전재 제품을 다량으로 요구한다. 주민들의 의복 문제에 있어서도 자연 섬유 특히 목화 생산이 제약을 받고 있는 조건하에서 화학 섬유의 다량적 생산이 그의 유일한 해결 방도로 된다. 주민들의 근대적인 문화 건설에서도 다량으로 철재, 쎄멘트 등 중공업 제품인 기재들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당의 경제 정책은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된 가장 정확한 정책인바 중공업 부문들은 생산 수단 중에서도 인민 생활과 직접 결부된 생산물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파 분자들의 당 경제 정책에 대한 비방은 전혀 무근거하며 비현실적인 것이였다.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반인민적 행동은 그들이 우리 당이 실시하는 경제 정책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한 데서만 나오는 결과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당적, 반인민적 사상에 있는 것이다.

*　　　*

사물 현상의 본질은 표면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감각, 지각으로서는 그를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단순히 관조, 관찰할 때에는 사물 현상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표징과 차요적이며 우연적인 표징과를 서로 구분하지 못한다. 감성적 인식 단계에서는 대상의 본질적인 측면과 비본질적인 측면, 중요 측면과 차요적인 측면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 측면이며 차요적인 측면인가 하는 것을 분간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 기관 만으로서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각, 지각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만을 우리들에게 줄 뿐이다. 이 자료들을 연구 분석하여 대상의 중요 측면, 차요적인 측면 등 본질적 및 비본질적 표징들을 갈라 내기 위해서는 추상적 사유의 역할이 필요하다. 추상적 사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대상 속에서 그의 본질적인 측면과 비본질적인 측면을 갈라 내게 하여 주며 대상 속에서 때때로 속기 쉬운,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본질적인 것과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사회는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로 이루어 져 있다. 매 사람 마다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생활 양식, 능력, 지망 등등이 다르다. 사회 생활의 이러한 복잡한 정경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여기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얼핏 보이는데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추상적 사유는 이러한 착잡한 정경 가운데서도 주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고 뽑아 낼 수 있게 한다.

례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억만 사람들의 처지가 아무리 가지각색이라 하더라도 과학은 이 수백만 사람들이 대립되여 있는 량 대 계급 즉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로 나뉘여 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이러한 기본 계급 외에 또한 기본적이 아닌 계급들도 있다.)

이러한 실례는 사유에 의한 과학적 추상과 일반화가 없이는 현상의 본질을 심오하게 리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만일 감성적 지각이 우리에게 개별적 사물의 구체적 현상을 준다면 사물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인식은 사유 활동의 총화인 것이다.

사유의 힘은 사물간의 내'적이고 중요한 인과 관계를 밝혀 준다. 이것이 바로 자연 및 사회의 제 법칙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과학은 자연 및 사회에서의 복잡한 현상들을 거쳐 그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있다. 과학은 본질과 현상간의 차이와 모순을 해명하여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과를 구별함으로써 현상들의 발전 법칙을 밝혀 준다.

이와 같이 인식은 감각 기관에 의하여 인식하는 단계로부터 사유에 의하여 제 사실을 구명 연구하는 단계로 올라섬으로써 제 현상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파악한다.

그런데 인식의 이 심화 과정은 사유의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 활동이 규정한다. 오직 실천에 의해서만 인간의 사유는 본질적이 아닌 표징들을 뽑아 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일반화하여 사물의 심오한 본질을 밝혀 낼 수 있다. 때문에 레닌은 《생활 실천의 관점이 반드시 인식론의 일차적이고 기본적 관점이 되여야 한다》(전집, 14권, 130 페지)고 강조하였다.

인간의 실천 활동이 풍부할 수록 객관 세계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이 더 풍부하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생활, 실천과의 유리를 반대하며 생활, 실천과의 긴밀한 련계를 요구한다.

이 견지는 우리의 실천적 및 리론적 활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 혁명의 본질을 인식하며 그의 전망을 똑똑히 알려면 우선 혁명 대오에 참가하여 충실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혁명적 실천이 없거나 혹은 실천과 유리되는 때에는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며 낡은 사고 방식을 피할 수 없으며 또 엄중한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최근 쏘련 공산당에서 폭로 규탄된 말렌꼬브, 까가노비치, 몰로또브 등 반당 그루빠들의 행동은 생활, 실천과의 유리가 얼마나 커다란 해독을 주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증시하여 준다.

실천의 새 자료를 고려하지 않으며 실천으로부터 유리된 인식은 몹씨 락후하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아무데도 쓸 데 없고 심지어 해독을 준다. 이러한 인식은 실천을 무장시키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실천과 통일되여 있고 실천의 새 자료를 고려하여 낡아진 견해를 대담하게 재 검토하는 인식은 그 자체가 끊임 없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도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실천으로부터의 유리는 교조주의의 근원이다. 그런데 교조주의는 력사적으로 항상 맑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혁명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바로 여기에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의 상통성이 있는 것이다.

수정주의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융화 타협하며 맑스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제거함으로써 로동계급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이와 반대로 교조주의는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이 제기하는 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함으로써 각종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가능케 한다.

또한 흔히 수정주의는 교조주의와의 동맹하에서 존재한다. 때문에 그는 교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로써 맑스주의를 수정하려고 기도한다. 최근 시기에 있어서 수정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행동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하여 주었다.

《근 로 자》 제9호(루계 제14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7년 9월 20일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년 9월 25일

ㄱ—40 628 값 45 원

출 판 안 내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강사들에게 주는 보충 자료

본사에서는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강사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자료를 발간한다.

1) 초급반 강사들에게 주는 보충 자료.
2) 중급반 강사들에게 주는 보충 자료. ………………10월 발행 예정
3) 상급반 강사들에게 주는 보충 자료. ………………11월 발행 예정

이 책들은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참고 자료》학습에서 제기되는 중심적인 문제들을 보충, 해명하여 주며 특히 강의에서 강조되여야 할 기본 사상들과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강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수록하였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 (웨·까·폐지닌 저)

4×6판, 47페지, 10월 발행

이 저서는 우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략탈적 본질과 그 략탈의 정형을 폭로하고서 그로 인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생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식민지 략탈과 억압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운동이 세계 로동 운동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고 있는 것과 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가 민족 해방 운동에 주는 거대한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제 2차 대전의 결과 일련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탄생과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평화 진영의 형성, 민족 해방 운동의 앙양 및 승리, 식민지 체계의 붕괴를 론술하였으며 끝으로 식민지 체계의 붕괴가 가지는 세계사적 의의,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론술하고 있다.

평 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